

MAXIM



KOREA

SPORTS

ICON 문태중
UFC 레전드 열전
Oakland Athletics
빌리 빈 단장

CAMERON DIAZ

여교사의 도발

SEX

파트너, 여자가
더 원한다

멋진 판따라 형
홍경민

GAME

지★스타 2011 게임 성적표
블리즈컨 2011 in LA

게임 요정 **이신애**

소셜 게임앱 We Rule
데드라이징2
배트맨: 아캄시티

MAXIM 에디터 강추
크리스마스 선물 스페셜

‘완벽한’ **윤채이**

2011년 12월호
정가 5,400원



독자 선물
남성 전용 화장품
M°C 마스크팩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Suspoint USA Snowboard Team Pro Rider : Mike Burton
*Location : Mountain High Resort, LA California, USA
*Photographer : Dave Weems



SR sugaTM
point
PRIVILEGED SUPPLEMENT

MAXIM FEATURES

DECEMBER 2011

26 24 HOURS TO LIVE: 홍경민

아직도 이 형은 먼따라라네!

44 SPORT UFC 레전드 열전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가 지상
최강의 수컷을 MAXIM에 줄소환했다.

57 LOVE

섹스 파트너에 대한 여자들의 생각
원 나이트가 두 나이트, 쓰리 나이트,
포 나이트 되기까지.

96 GAME FEVER 블리즈컨 2011

태평양 건너 블리즈컨 덕후의 성지
블리즈컨을 순례한 후 내린 결론:
덕후의 덕은 역시 양덕이라.

84 ICON: 농구 선수 문태중

남자는 점프슛이지, 락 거 필요
없다.' 그 말에 에디터의 도가니가
뜨겁게 달아올랐다(이내 식었어...
달락!

88 PERFECT PARTNER

올해의
주와 (완벽한 파트너) 여주인공
올해의 위대한 매력이 힙기증을
유발한다.

110 신도불이 기관단총 K1A

우리 군바리에겐, 우리 땅에서 난
기관단총이 제일이야~!

118 SEXY MARINE GIRL

필승! 해병 콘셉트 섹시 화보
신고합니다! 너무 좋으면 말도 박지
말입니다! (수컷 해병대 전우는 안
나와, 작정 마)

122 히나

브래드 피트의 《메너블》 속 실제
인물인 오글랜드 예술대학의
발리 빈 단장을 직접 만나 춤곡(?)
이야기만 살짝 하고 왔다.

78 캐머런 디아즈

선생님, 우리가 나쁜 짓을
했어요. 혼내주세요.
데! 데!! 데!!!

From SEIKO WATCH CORPORATION
www.albawatch.co.kr

ALBA
POSITIVE & SMART



totally timeless trend...

Let it just be brilliant



104 이신애

MAXIM은 게임 요정
이신애와 밤새울 기세!

CONTENTS
↓

14 CIRCUS MAXIMUS

연예인? 저리 가라! 대 여자 쇼킹돌 모델 최강자전. 과자 때문에 생긴 재앙.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 양배추^S상추 (연예인 말하는 거야). 레알 수컷 자가 진단. 에디터를 울리고 웃긴 세상만사

28 GAME

정수기보다 간단한 MAXIM의 2011 자*스타 게임 성적표, 데드라이프2 오프 더 레코드, 배트맨 이암 사티, 소셜 게임의 일파&오메가: We Rule

36 RATED

돌 크루즈의 네바덴딩 개고생 미션 섹시 이모의 스크린 점거 사태, 코미디빅리그 vs.개그콘서트, 스마트폰으로 건강 챙기기, 과연?

42 MUSIC

정바비의 비비벌 이야기

46 SMOKE&DRINK

맥주의 역사, 당신에게 하드 필터가 필요한 이유, 럭키 스트라이크의 역습

53 MOTOR

두카티의 슈퍼 스포츠 바이크 1199 PANIGALE, 맛을 아는 레트로 할리 데이 비스 포터에이전, 솔라가드 탄팅 이벤트

60 STUFF

최강의 장난감 컬렉시 노트, 빠듯한 보드 정비 장만하기, 에디터가 고른 '지들이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추억의 마이마이, 남자를 위한 최고의 장난감: 피규어와 시계

128 STYLE

비키니 색시같이 고른 보드북 SUGAPOINT, 명동 패션왕 찾기, 피부가 먹는 일용할 양식, 2인1 배틀이 레미리 스코이 만든 스니커즈

137 CLUB

섹시 바니걸, 간호사, 메이드, 처녀귀신과 함께 할러원 파티



MEN'S
CLASSIC

남자의 외모는 경쟁력,

그 시작은 **MEN'S CLASSIC**



MEN'S
CLASSIC
화장품 받기



· Double Effect BB Cream 효능·효과



자외선 차단 SPF40 PA++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UV A/B 동시 차단은 기본,
SPF40 PA++의 든든함까지



화이트닝 효과
[미백 기능성 화장품]
어둡고 칙칙한 피부를
밝고 회사하게



트러블 방지
미세토 주입물이 트러블로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세bum 컨트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력과
피지 조절 기능으로
깨끗한 피부 유지

편집장 이경미
yj@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수석에디터 차창 곽희
에디터 과장 김성현
대리 김진옥
주임 김희성
사원 박원남/누리
사원 송준기
이사신도트 3도현
객원에디터 김다영
장비비
이홍수

DESIGN / 디자인

디자인어 주임김연
주임 이은화
사원 이보라
이사신도트 신소희
일러스트레이터 사원 전영준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주임 최안영
joy@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대리 김종국
대리 김진옥
대리 김슬비

WEB SERVICE / 웹

웹상 사장인
arisis@town.com

발행인/ 대표이사 이애성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교열 신선경 kshin0111@dam.net

인쇄 · 활자분쇄 (주)파라디지프레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생자리동 19-1 인제인 아원순

유통 승주출판유통



발행처 (MAXIM) 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06-2 MAXIM KOREA 빌딩 1~4층
TEL. 02-323-192 / FAX. 02-625-0193
2011년 12월호 통권 제100호 / 등록일자 2003년 2월 30일 / 등록번호 마보 라-00250

MAXIM KOREA는 세계 20개국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남성 월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 미디어 그룹은 2008년 7월 15일부로 대한민국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하게 라이선스 계약이후 MAXIM의 한국판지를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 운영 및 소셜 서비스 등 유통행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알파 미디어 그룹과 알파 미디어 위해 야생한 제3자도 MAXIM의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MAXIM 본사인 알파 미디어 그룹과 (Y Media)에 귀속되므로 무단으로 열거 없이 복사할 수 없습니다.

광고 문의 070-4010-9041, 9043, 9046 구독 문의 02-323-1182

기타 문의 joy@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 www.maximkorea.net |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GIONE

CHIEF REVENUE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NCOX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DIGITAL ASSET MANAGER

MARIESA CONWAY

INTERNATIONAL FINANCE MANAGER

ERIK VANVOORHEES

DENNIS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4th Floor,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MAXIM INTERNATIONAL EDITION / EDITOR IN CHIEF

 USA JOE LEVY

 ESPANOL-US HISPANIC ANDRÉ FÉLIX DIAZ ROJO
Dominican Republic

 UNITED KINGDOM BEN RAWORTH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FRANCE FRANÇOIS DE GUILLEBON
Belgium, Switzerland, Canada Quebec

 GERMANY MIKE BLEIBTREU
Austria, Lichtenstein, Switzerland

 CZECH REPUBLIC PAVEL VONDRAČEK
Slovakia

 SERBIA LAZAR JOVANOVIĆ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m

 TURKEY KANAN KUSTUTAN
Cyprus

 ITALY CARLO CROCI

 PORTUGAL PEDRO JAVALOYES

 RUSSIA SASHA MALENKOV

 ARGENTINA GERMAN PITTELLI

 BRAZIL ROMARIO OLIVEIRA

 BULGARIA HRISTO ZAPRYANOV

 GREECE GEORGE FOTINOPOULOS

 INDIA VIVEK PAREKH

 INDONESIA TITAN HARINDA

 THAILAND SIROTE PETCHJAMRANSUK

 UKRAINE SASHA MALENKOV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maximkorea.net

copyright©2011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ALL I WANT FOR CHRISTMAS IS...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와 산타 할아버지가 상업적인 의도로 가공된 것일지라도(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 기사 참조) 마냥 좋다. 별 볼일 없는 할아버지 코에서 불 나는 루돌프... 땡이란 걸 알지못한 노는 날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즐겁고, 그런 날을 핑계로 사람 고백도 하고 상아에 진도도 나가고 하는 거 아니겠나. 하지만 몇 년째 MAXIM을 만들면서 남보다 한 달 먼저 크리스마스를 느끼다 보니 이젠 조금 무덤덤해진다. 문득 다른 MAXIM 식구들은 올 크리스마스에 뭘 할지 궁궁해서 설문 조사를 했다.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란?" 그 참담한 조사 결과를 독자님과 공유한다.

MAXIM 스태프 중 3분의 2는 크리스마스 계획 '따위'를 세우지 않는다.

박한빛 기자 에디터는 "나의 크리스마스 계획은 신께서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으며, 김희성 에디터는 "한두 달 전에 다 짜놓는다고 답했다(그런 사람이 원고 마감은 왜 늦었을까. 하지만 일지?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우리 2월호 밸런타인 데이 특집을 x짜지게 만들고 있을 거야."

아직까지 산타를 믿는 MAXIM 스태프 3인의 평균 나이: 29세

미취학 아동 때 믿음을 버렸다는 이가 5명이며, 나머지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3학년경 모 진옥 씨라고 밝힌 것일까요? 때까지 믿었다고 답했다. 놀랄게도 "무슨 소리! 산타는 있어요"라며 흥분한 3인의 평균 나이는 29세였다. 그중 송중민 에디터는 "지금도 믿지만 나에게 산타가 찾아오지 않는지는 꽤 되었다"며 우울해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직원은 "생색 내길 좋아하는 그들(부모)은 산타 선물 포장지에 '아빠 산타, 엄마 산타'라고 써서 주었다. 산타의 존재를 굳게 믿고 있던 내게"라는 패륜스러운 답을 내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 없어...

가장 실망스러웠던 크리스마스 선물: 공동 1위 카드, 곰 인형, 그런 거 없었다 (각각 2명씩 응답)

저 따위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짐작했겠지만 응답은 너무나도 중구난방이었다.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화용물"과 "유료 기간 얼마 안 남은 피아 상 품권", "세로로 읽어야 하며, 무엇보다 표준어 규정 전이라 읽히지도 도배된 중국 세계문화 전집" 등의 응답이 있었다. 송 모 에디터는 "전 여자친구가 내가 기운이 달린다고 생각했는지 송문 액가스를 시준 적이 있다. 효과는 좋았다. 아아 그런 뜻이었

나 보다라며 화상에 젖었다. 가장 슬픈 응답은 박 모 에디터의 "연체나 실망뿐이었다. 본인의 답? '중 선물은 선물보다 바랄 때.'"

그러는 네 녀석들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줄 건데?

"당연히 나에게! 내가 갖고 싶은 거!!!"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법. 하지만 이 질문에서 피배한 정신세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가 많았다. 다들, 특히 편집부 에디터들은 평소 지 갖고 싶은 걸 주절주절 늘어났다(6.64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템 기사를 참조하라).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응답은 실명 공개를 거부한 남자 직원의 "여자에게 줄 지체를 정성스럽게 채운 명품 백"이었다. 김상현 에디터는 "없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느냐"며 울컥했고, 이은환 디자이너는 덕력을 자랑하듯 "내게 걸출한 태블릿 PC를 사주고 싶다"며 선물빛 웃음을 드러내며 웃었다. 색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한 남자 에디터는 "MAXIM 사무실 근처 양자식당 아줌마 조커(여신에게 티팬티를...) 이라며 얼굴을 붉혔다. 김희성 에디터는 "딱히 정한진 않았지만 누군가 선물을 준다면 보답으로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공심 울수록 수상한 답을 내보냈다. 김 모 진옥 씨는 "산타를 믿고 있는 중3 친구에게 MAXIM 1년치를 모아서 주고 싶다"는 이기 천사 같은 순수한 미움을 드러냈(대실체로는 아귀, 전사 같은 수컷이다).

MAXIM 편집장의 답은? '당연히 독자 여러분께 더 알차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선물로...' 다행.

우리 독자님들의 올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가주) 흥밋날 잘 파헤친 모든 크리스마스도 행복하고 즐거운(가주) 일 진심으로 바란다. 그 곁에 당신의 진심 어린 친구 MAXIMO 함께하길

편집장 /영/비/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Ingersoll History



established in 1892

1896

1910

1920

1935

1950's

1971

1989

now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konocorp.com | 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타임토피아 www.timetopia.co.kr



【서울】롯데백화점 노원 02)950-2164, 현대아파트 해피타임 02)2012-0425, 전진상사 02)744-4714, 타임탑 02)324-6272, 타임머신 02)6398-2927, 타임시모 02)6373-7743, 타임21 02)3424-7063, 타임월드 02)3132-6108, 피션존 02)3398-7527, 프로워치 02)779-6944 [경기] 닥스시계 03)1781-8194, 대성 032)325-7467, 행복동 032)626-0686 시계상사 031)441-0158, 시론주요리 031)463-9798, 유민 031)658-6883, 타임루프 031)487-9057, 타임24 031)931-5555, 티파니 031)441-0158, 카시모모우 032)502-7138, [충청] 예진시계 041)640-5081, 신세계백화점 천안점 041)424-5081, 보보스워치 010-5494-5915, [전라] 타임앤트로 062)222-3114, 타임파티 062)224-0305, 골드메니아 042)410-0138,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91, [대구] 골주나라 053)256-0975, 골드스워치 053)424-4442, 그리니치 053)256-6165, 대구백화점(5층) 053)254-3977, 레프 053)425-0157, 신세계백화점 053)566-3316, 유얼리아 053)428-2668, 해피타임 053)428-3086, [부산] 영성 광복점 051)258-5315, 영성 남포점 051)253-5334, 영성 서면점 051)667-7356, 영성 신상점 051)253-5354, 월드타임 051)245-8359, [제주] 제주 중앙문세점 064)780-7671.



스마트폰으로
사연 보내기



단행

완전 분노해버려요. 부우!

MAXIM은 보시외 100회 이벤트를 컴퍼드 몇 대로 슬그머니 넘기다니 실망스럽기 그지없소(분노 1단계). 그것도 우편으로만 접수한다니 근성 없는 독자를 속이내기 위한 계획인 게 너무 눈에 띄었소(분노 2단계). 그리고 군대 마크 기사는 누가 쓴 거요? 내가 복무한 경연도 인제 3군단 30여단 부대의 마크가 없단 게 말이 되요. 우리 부대를 호경님으로 아는 거요(분노 3단계)? 마지막으로 그녀들의 육박이 물어날 브로마이드는 도대체 언제 만들어줄 거요(분노 4단계)? 12월호를 지켜보겠소. 이번에도 MAXIMI 나를 분노케 한다면 MAXIM 편지부는 X잡고 서클댄스를 추는 수컷 모습을 라이브로 감성하게 될 것이요. 농담 아니요. 앵그리휴먼. e-mail 사연

3X

100호의 진짜 선물은 그간의 추억이 묻어난 특집 회보였습니 다. 캠프도 따위 시간 MAXIM에 보여준 독자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건이지요. 우편 접수만 하는 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속이내다니요! MAXIM은 독자 여러분을 겸손마당 속이내는 일 따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 마크 선별은 결단코 독자님의 부대를 호경님 취급한 게 아닙니다(---다만 부대의 존재를 몰랐을 뿐입니다). 노여움을 푸시지요. 그렇지만 독자님이 편지부에 X잡고 서클 댄스라는 신세계를 열어주신다면 같이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디(응?). 우리도 농담 아닙니다.



3X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구려. 도대 솔로란 사실이 부끄러운 작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때만큼은 겨울 부대의 맹공에 무릎 꿇는 내 모습을 목격하게 되요. 문 밖을 나서면 수많은 커뮤이 생긴 보지도 못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빌미로 물고 뽀너 나리요. 게다가 음식장에는 밀야면을 연놈들이 자리를 매점매석이라도 했는지 혼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싸가 미르요. 무엇보다 열 받는 건 내가 지워한다는 사실을 악용하려는 친구들의 웅충한 속세요. 나에게 PC방 장액비와 차림값 3천 원을 쥐어주고 딱칠 방을 싸게 구하려고 나리요. 문제는 이런 재산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거요. 분하요. 어떻게 해야 이런 악명에서 벗어나 레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소? MAXIMI 알려주세요. 부탁이요.

전영환. e-mail 사연

3X

담당 에디터의 3년 전 일기를 읽을 줄 알고 깜짝 놀랐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길 비책을 알려주겠소. 방법은 간단하요. 철로 달려가시오. 종교가 워드 간에 12월 23~25일은 스님 코스프레를 하란 말이요. 목탁 소리를 드림 비트 삼아, 불경을 래깅하다 보면 크리스마스 따위 기억에서 사라질 거요. 주의할 점은 26일에는 반드시 하산해야 한다는 거요. 여기에 심취해 머리를 밀어버리는 순간 당신의 불꽃이는 영령해 '뿡인' 당하게 될 테니 말이요.



자진상세

이번 12월호 마감에 늦은 에디터 김씨의 최후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마감 일정에 늦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 드리는 바다. 만약 또다시 마감에 늦는다면 순결한 영영이를 찰진 형님들에게 빼앗겨도 군말하지 않겠다.

來心

보리의 마음



MAX 입대 입대 전 백어택을 당했!

올해 20세가 된 수컷이요. 이제서야 자유를 획득했다 생각했는데 군대라는 사연에 부딪혔소. 이 만화가 소개입 즈음이면 이미 군복이 다 되어 있을 거요. MAXIM 장기 구독도 3년치를 했어요! 절대 지포 라이터에 넣었던 것은 아니고 걱정할 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소. 그녀가 고무신 고무로 신발을 사신하 기 전까지만 해도 참이요. 이것 때문에 입소하는 오늘날저 정신이 안로메다로 탈출한 상태요. 불행은 '순에 손잡고~' 오는 게 계속 기다인데 훈런스 생활이 벌써부터 걱정이요. 믿을 건 MAXIM밖에 없소. 재미있는 글과 착한 사투리로 나를 위로해주시오. 부탁하요. 마지막으로 지인이 남는다면 이 한마디만 실어주시요. '미야! 사해! 난 너 인생의 유일한 빛이야!'

빅데드, e-mail 사연

MAX 이진 너무 슬프지 않소. 40세까지 못

해본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실연당한 채로 군대에 끌려가는 수컷만큼 불쌍한 존재도 없소. 훈런스에서 눈을 뜨면 사방이 사뿐엔 짐승밖에 없을 텐데... 그저 참내리는 밑밖에 할 수 없소.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걸기만 할 말이 없도요. 이왕 군대에 갔으니 이 참에 허벅지를 2012년 국내에 복귀할 박진호 형님마냥 두렵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소? 복돌이 파워를 보장하는 실한 허벅지에 반한 어저들이 당신만의 빛이 되려고 연동축제를 할 거요. 오늘날부터 어저 생각이 날 때마다 허벅지 운동용 하시오. 2년 후 당신은 최대의 정력가로 거듭날 있을 거요.



간행이 왔어요!

MAXIM 사무실에 허심실 미친게 병장님이 보낸 간행이 도착했다. 간행에 보는 군대 간식(?)에 황장한 편집부 직원은 승냥이처럼 달려들었지만, 모든 별사탕은 편집장님의 손에 넘어갔다. 비록 별사탕과 간행의 황금 조합을 만끽하진 못했지만 편집부 일등은 독자님이 보내주시는 간행 덕분에 어땜 같은 맘에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독자 사연 응모

▶우편 접수: (02-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방문 접수: 담당 에디터는 색시한 여성 독자가 뜨거운 사연을 날리며 "사연 잘 부탁해요"라고 말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꿈은 이루어졌다. 그런데 담당 에디터의 눈의 핑이는 짜증나게 아까부터 엄지손도 안고 계속 들고 있는 걸까? 응?

고맙습니다. MAXIM 독자들이 밀레니엄 때때로의 입막이 무서히 살아 남았는지 궁금하다. 사자가 멸종한 채 살아있던 고인하지 말고 MAXIM에 독자 사연을 보내라. 제이나 간행이 없어도 MAXIM 편집부는 열과 성을 다해 읽는다. 당신의 귀한 시간! 이 하루부 쓰라림에 사라질 걱정 따윈 집어라. 운이 좋다면 MAXIM이 준비한 순수 남성 청결제 소우 스킨을 받을 수 있도요! 명 먹고 말 먹기 아냐!



사연 원료! 대박!



남성 청결제 소우 스킨



천룡기

CIRCUS MAXIMUS

A Maxim View of the World

여자 쇼핑물, 어디까지 가봤니?

여지간한 미모 아니면 동대문에서 샘물 떼기도 어렵다는 여자 쇼핑물 모델들을 한라리에 모았다. 폐수 가득했던 인구가 아리수처럼 시원하게 정화되는구먼.

※ 박현빛누리

STYLE MIX

스타일믹스 www.stylemix.co.kr

원년에 하두리 좀 찍었던 수많은 얼짱이 쇼핑물을 오픈했다가 쓴맛을 보고 문을 닫았지만 책년에 오픈한 알짱 배지운의 스타일 믹스는 꾸욱- 승승장구하고 있다. 배 사장님 MAXIM으로도 먼 길을 한 번 해주세요?

1



JI-EUN

Height 166cm
Weight 46kg
Top 55size
Waist 26~27inch
Shoes 235mm



3

DO-HEE

Height 170cm
Weight 52kg
Top 55size
Waist 26~27 inch
Shoes 250mm



HYUN-A

Height 160cm
Weight 43kg
Top 55size
Waist 25inch
Shoes 230mm



UPTOWN HOLIC

업타운 홀릭 www.uptownholic.com

런이라는 이름은 우월한 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 법칙이 있는 것인가. "선배 나 머리 아파" 하며 교문 앞에서 캔 커피를 기다리는 새내기 후배가 바로 여기 있다. 아... 갑자기 점심만 신랄하게 얻어먹고 내 친구랑 사귀면 망할 후배가 생각나는군.

2



CATCH ME

캐치미 www.catch-me.co.kr

<플러코스티> 정가은처럼 시원시원한 미소와 애교 가득한 처치가 이상형이라면 캐치미를 클릭하시라. 그녀의 참박웃음에 중학생한테 뒤통수를 후려 맞은 기분까지 뻥 풀릴 테니까. 캐치 미~ 캐치 유~ 이제 슬바꼭질은 그만! ♪





VILLAGE MODE

빌리지모드 www.villagemode.co.kr

평소 유니니에게 하이킥 맞아보는 게 소원인 수컷이라면 당장 빌리지모드를 클릭하라. 머리를 쓸어올리는 모음이 얼핏 그녀를 떠오르게 한다. 사이트 대부분이 모델의 옷는 모습으로 도배되어 있으니, 저절로 아싸 미소가 지어질걸?



4

SEUL-KI

Height 164cm
Weight 49kg
Top 55size
Waist 26inch
Shoes 240mm

CAMELLIA

까멜리아 www.camellias.co.kr

5

시크하고 도도한 매력의 처자는 어떤가? 사방사방 미소를 날리는 여느 쇼핑몰 모델과는 달리 시크한 카리스마가 꿀꿀 흐른다. 간혹 볼 수 있는 그녀의 옷는 모습 또한 여여하니 놓치지 말 것!



MARI

Height 168cm
Weight 52kg
Top 55size
Waist 25inch
Shoes 235mm



YEY-EN

Height 170cm
Weight 48kg
Top 44size
Waist 24~25 inch
Shoes 240mm



BUBBLE AND CHIC

버블앤치크 www.bubbleandchic.co.kr

심은하 뺨치게 청순한 이 처자는 허리가 유난히 가늘어서 스커트 피팅 시 3cm가량 줄어서 입는다.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한 저대어 아파트 광고를 떠오르게 한다.

6



다음 달 MAXIM 화보 모델을 사수하러!

이 아름다운 처자를 쇼핑몰 공간에만 묶어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가? 여된 쇼핑몰 모델이 좋은지 반응을 일으켜라! 다음 달 가장 인기 있는 처자와 함께 사랑한 화보를 끼워주겠다!

참여하기

- 방법1.** 가장 맘에 드는 쇼핑몰 모델의 번호를 골라 MAXIM 편집부로 문자를 보내라
010-5199-1182
- 방법2.** 20원이 아깝다면 MAXIM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와 QR 코드를 통해 댓글을 남겨도 좋다.

선물도 준비!

그녀를 지옥만 독자 중 20명에게 랜즈글래스 디얼이벤트 비비크림을 선물로 쏜다!



다음 달
MAXIM 모델
평하기





과자 잔혹사

먹는 길로 장난치는 거 아니다.

BY 박희성 ILLUSTRATION 전영준

난동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막대사탕을 먹지 마라'는 말을 듣고 백년 9세의 한 미국 소녀가 성악실을 온몸으로 시전했다. 버스 안에 청을 받고, 버스 기사에게 닥쳐라며 욕하는 걸로 모자라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까지 잡아던졌던 것. 그레도 분이 덜 풀렸는지 경찰을 깨물기까지 해 결국 유치장에 끌려가고 말았다.

절단

'혹새'라는 별명으로 80년대를 평정했던 게구우면 이현주는 얼마 전 방송에서 과자 때문에 허가 절단될 뻔했던 사연을 털어냈다. 치과 치료 후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과자를 먹다 허를 다섯 바늘이나 꿰매야 했다는 것. 단지 과자가 먹고 싶었을 뿐인데 장액인 9급 평정을 받게 된 그녀는 이 일로 극심한 우울증과 환각, 현형에 시달려야 했다.

살인

2008년 6월, 21세의 월기왕성한 청년 일라이 웨스틀레이크가 한 여자의 차에 치즈 맛 과자를 던졌는데(도대체 왜?),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장난질이 됐다. 자신의 차에 치즈 맛 과자를 던진 데 격분한 차 주인이 그대로 돌진해 그를 차에 죽인 것이다. 과자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차 주인은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테러

1985년 김 씨는 동네 슈퍼에서 사온 과자를 일예 넣는 순간 허에 이상한 자극을 느꼈다. 즉시 과자를 빨았지만 이미 허는 붓기 시작했다. 그제야 과자 분지가 살피더니 "독약이 들어 있으니 절대 먹지 마십시오"라고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당시엔 과자 판 돈 뜯어내려고 특정 과자회사 제품이 무작위 테러를 하는 짜질한 인건이 많았다.

폭발

1923년 고양시에 사는 전 도 씨는 술안주로 먹은 과자가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입안에서 폭발하는 엄청난 일을 겪었다. 전 씨는 출지에 왼쪽 볼에 커다란 피어싱을 담으로 얻었다. 당시 신문은 "술집에서 안주로 먹던 과자가 폭발되어 볼에 구멍이 뚫린 끔찍한 일"이라고 기록했다. 세상에 이런 일!!

사망

중국 산동 성에 사는 소년 사오즈는 누나들과 함께 과자 안에 사은품으로 들어 있던 립스틱을 비르고 자욕을 보았다. 사오즈의 누나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토하다가 병원에 실려가서 즉시 치료를 받아 쾌장했다. 사오즈는 배가 부푸는 듯한 증상을 느껴 지시제를 처방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세상에 뜨고 말았다.

1. 다음 중 과자 이름이 아닌 것은?

- ① 마더스핑거 ② 호포
③ 눈물감자 ④ 소녀사탕

2. 다음 중 과자 이름이 바르게 적혀 있는 것을 골라라.

- 별집맛재 () 별집피재 ()
오징어떡 () 오징어떡 ()
자카자카 () 자카자카 ()

3. 초리품의 봉지당 평균 일량이 수는?

- ① 약 568알 ② 약 842알
③ 약 1363알 ④ 약 2048알

4. 다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과자를 골라라.

- ① 연강경 ② 크라운 산도
③ 새우깡 ④ 초코파이



정답

1. ④ 마더스핑거(별집)와 영마(손가락)은 아메, 호포(호포), 노오의 무관함, 눈물감자(오빠는 그대 더 좋아?)
2. 별집맛재() 자카자카() 오징어떡()
3. ③ 현재까지 판매된 초리품 총 중량은 꼬마리 43,000,000 무게.
4. ① 45년생 연강경, 61년생 크라운산도, 71년생 새우깡, 74년생 초코파이의 부모 딸임.



과자 도둑 이야기

그렇 과자가 워낙...

1. 사해물에서 초콜릿 가게를 한 달만 벌 돈만 5천이나 된 건 도둑도 있다. 초콜릿만 보이면 시죽을 못 쓰는지 초콜릿 가게를 털 댄 돈과 함께 특정 과자를 꼭 훔쳐간다는데, 사해물 경찰은 이걸 단서로 도둑을 족고 있다.

2. 1922년 14세의 한 미국 소년 이 과자에 이가 들어 은행 강도가 되었다. 은행의 창문을 통해 침입한 소년은 주머니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 "사탕 과자를 주지 않으면 쓰겠다"는 무사(무시한?) 협박을 했다. 성공적으로 과자를 받은 소년은 유유히 현장을 떠났지만 10만 달러에 경찰들이 붙잡고도 말았다. 데. 예. 아. 영. 아!

3. 진소는 영국의 한 경찰서 구내 매점, 눈에 띄게 사탕 재고가 사라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경찰원이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범인은 다음 아닌 동료 경찰 두 명으로 밝혀졌다. 사탕 도둑 이라니 천. 어. 영. 아! 그들은 결국 정적 처분을 받게 됐다.

4.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28세의 한 여성은 헬리콥터에 사탕을 얻으려 다니는 10세 소년에게 "니 사탕 배가 싸다 보 말고요"하고 괜한 농담을 했다가 곧장 저 세상으로 갔다. 아이가 진짜 총을 꺼내 그녀를 겨누며 "됐고, 사탕이냐 내놔!"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나 초능력들, 집에서 딱치고 호로로나 호.



애들도 다 알아

4세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인과 보통 여성을 두고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미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갓난 아이조차 예쁜 사람 일도 더 잘 들린다. 역시..



이달의 직권

미국 청년 조이는 모두가 꿈꾸던 '평화헌 회사' 매니저가 될 몫을 실행했다. 밴드를 이끌고 회사에 가 상사를 억울리며 사표를 내던 그는 곧 아이 라이온 밴드의 연주 속에 한숨을 부르며 회사를 나왔다.
<http://youtu.be/5S5cWQ9gJ9M>



불편한 전자담배는 이제 그만!

헤드만 교체하면 항상 새 것처럼!
 신개념 Changeable System®으로 더욱 풍부한 담배맛을 즐기세요.



650mAh 대용량 배터리



혁신적인 오토미러 헤드 교체시스템



간편한 1.2ml 탱크시스템

www.ovalekorea.com

경고: 19 세이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니코틴이 아닌 니질, 벤젠, 비닐크로라이드, 비스,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니코틴 함유량 / H : 16mg, M : 11mg, L : 6mg



Myth Buster: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



내 콜라 도둑이 요기랑이?

당신이 크리스마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BY 송준민

1. 산타 클로스는 광고 제작자의 작품이야?

산타클로스가 새해경길 손꼽은 인물인 성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건 사실이다. 그는 남몰래 많은 선물을 배물었는데, 아메리카에 이주한 네덜란드인이 산테 클라라고 불렀던 발음이 그대로 미국식으로 된 것이 산타클로시다. 초기 산타는 오동탄 초록색 옷을 입은 남성이 모습으로 묘사되어 오다가 1839년 코카콜라 광고에 등장하면서 비로소 흰 수염과 빨간 옷을 입은 긴자클로스가 되었다. 늘 산타클로스와 연일이다 고된 노동을 하는 외로운 루돌프 역시 광고로 태어난다. 1939년 미국 백화점 '몽고메리 워드'의 광고 제작자가 만든 것이다.

맞아!

2. 뭐? 산타가 타키인이라고?

크로마 핀란드에 있는 산타 마을은 뭐야?

핀란드 헬싱키 북방 800km에 위치한 로바니에미의 산타 마을에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에게'라고 적힌 편지가 수백만 통씩 배달된다. 하지만 이곳 역시 산타클로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한 장배원이 산타클로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우연히 이 마을에 도착하자고 인 끝에 답장을 썼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핀란드 정부가 산타 마을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런 훌륭한 취미 새끼들.

가짜기!

3. 크리스마스는 줄여서 엑스마스라고 부른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곳곳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놓은 것을 보기도 하지만 대단하게 X-MAS라고 쓴 것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엑스-마스(일본어로 예수-마수)라고 일컫는 건 아주 무식한 짓이다. 여기에서 X는 영어 알파벳의 X자가 아니고 헬라어의 '크리스도'라는 단어의 첫자인 '크로스'로 이 뒤에다 MAS만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표기는 X-MAS로 할 수 있지만 읽을 때는 반드시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한다.

무식한놈!

4.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박인디?

루돌프는 원래 순록(Reindeer)이다. 순록보다 사슴이 더 입에 착착 감겨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것뿐이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박이는 코~"보다는 '사슴코가 발을 하기 쉽잖아. 그럼 루돌프는 어떻게 반박이는 빨간 코를 갖게 되었단 걸까? 순록의 코 끝은 털로 뒤덮여 있어 몸의 체온을 유지해주고, 눈 속에서 먹이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가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 세균의 감염으로 코가 빨갈게 되기도 한다. 루돌프의 코가 빨간 이유는 호흡기 질환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애플이 놀리는 것도 사라문정 이쁜 애플 데리고 전세계를 행방이 돌리다니... 산타 아니고 사탄 아냐?

아니오!

5.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태어난 날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원래 부활절을 크게 지내곤 했는데, 313년 신앙의 자유를 얻고 난 다음부터 예수 탄생 일을 최대 명절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였던 '불멸의 태양 탄생을 축하하는 로마의 축제'로 Christmas, Christy 하기로 한다. 고대 로마의 동짓날은 12월 25일이었는데 동짓날 밤이 가장 길다가 점점 낮이 길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탄생, 즉 죽음을 기리는 로마의 풍습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면 된다. 결국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은 맞지만 예수의 출생일은 아니다.

아사나고!

EYE OF MAXIM

MAXIMI 이달에 발견한 것

쓰라는 기사는 안 쓰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런던에서 열린 '하이힐의 예술 전시회'에 토슈즈에 20cm 넘는 힐을 달인 크리스찬 루부탱의 힐입을 등재해 주목을 받았다.



"반칙이다. 이들도 크리스찬이던데 자비심이 없네 새끼!"
7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에디터 박찬희누리



BBS의 인티뷰 중인 애산 강민경

"그저서 이쁨이 다치주세요."
부러 깊은 나무 깊은 에디터 송준민

일마 전. 런던 어느 도발에서 여지친구와 100킬로 기법하는 옷벌 애반트를 준비하던 남자가 모발을 활활 불태우며 서브라이즈 애반트를 시전했다. 그 도쿠장은 3,700만 원 상당의 손해는 물론 턱매질 중이던 다른 투숙객 12명까지 병원으로 보내는 기쁨을 토했다.



"재발 그런 건 먼 데서 하리라고"
그것이 마계 도사임을 순순히 인정해버린, 인턴 디자이너 이은화



자나 깨나 여친 조심

한 소셜 데이팅 서비스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1명은 연인의 의도를 의심해 미행하거나 통풍을 엿어본 적이 있다고 한다. 역시 은밀한 약속은 집 친척기를 이용해야...



그것은엔 권드리자마

11월 5일, 영국의 억류 리카 두세는 자신의 스타워크 피규어 컬렉션 워크 스키이커, 다스베르데를 영기드린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어휴우, 이게 바로 래플 심덕우구나.

24 HOURS WITH YOUR SKIN

CHRISTMAS
*** COUPLE**
UNDERWEAR

CRAZYBONE PREMIUM UNDERWEAR COLLECTION

대리점 개성문의 / 고객센터 080-911-8989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311 KOON빌딩
www.crazyboneshop.com / www.icrazybone.com

CRAZYBONE
UNDERWEAR COMPANY





SALAD BATTLE

지는 놈은 드레싱 소스에 대가리 박는 거다. BY 박현보/투리



상추



양배추

VS

상추	SPEC	양배추
WIN 본명 이상철 82년생, 181cm, 72kg 고려대학교 연세대학원	RIGHT NOW	본명 조세호 82년생, 172cm, 85kg 예원예술대학교
WIN 앨범 활동은 안 하고 (출발 드림팀)에서 청어를 넣고 있지만 좀 잘하더라.	IDENTITY DRAW	강생 배리어티 (하바나)에서 강생 중
가수나 운동선수냐?	STYLE	(타봉) 이후에 갈 곳을 잃음
무조건 민소매, 팔뚝 하나 는 GOOD! 선글라스는 꼭 써줘 제발!	MONEY	WIN 최홍만 상대모사 할 때 입었던 정장. 그거 비싼 거더라.
오리 가슴살, 유기농 채소 판매 스펙팅 운영	연관 검색어 DRAW	WIN IBM 한국 지사 조 이사님 아드님 MBC (경제야 놀자)에서 방영된 집 보면 놀랄걸?
손리, 상추 계이, 상추 효능, 깻잎		양배추 군데, 봄, 최홍만, 브로콜리

무승부

홍만이 정한데
이런데?

승자는
양상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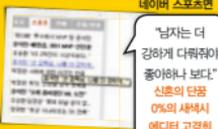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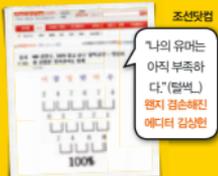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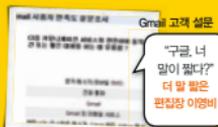


생장에 찍어 먹는
천한 것들도.

EYE OF MAXIM

MAXIM 이달에 발견한 것

쓰라는 기사는 안 쓰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젊은 나이에 체매에 걸리는 횡파는 흔하지 않고 있다. 약속 시거나 정소를 강박 있어 버리는 건 건원동일 수도 있지만 체매 횡파는 약속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 잊어버린 다. 이강준인 에디터에게 종종 발생함.

"편지장, 진짜 오늘인 줄 몰랐어요. 영영."
원고 마감일을 강박했다고 주장한
에디터 김희성

개 귀에 바람

개의 귀는 사람보다 훨씬 작아서 발달했고 공상해 예민하다. 스스로 귀속을 건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귀에 자극을 받으면 깜짝 놀라서 하고 있던 행동을 순간 멈추게 된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지난 10월, 울산 현대 앞바다에 햇돼지 1마리가 빠져 있는 것을 울산 해양 구조대가 포획한 데 이어, 11월 2일 강원도 양양군 울진항 동쪽 1.8km 해상에서 헤엄치던 햇돼지를 어민이 발견해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 소금 간은 잘 배웠겠어.





FX
남자의 모든 것

The Most
CHARISMATIC
TEAM of
ALL TIME

ROCK

Never Before.
NEVER
AGAIN.

CENA

MARY HENRY

SURVIVOR
SERIES

FX 채널 방문과
과월호 받기



WWE SURVIVOR
SERIES

WWE Monthly Special
2011 서바이버 시리즈
12월 10일(토) 밤 10시

tcast

FX Channel | SCREEN | BROADCAST | iTunes | Amazon | e-ON | FOX | FOX HD |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FX Channel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순도 100% 레알 수컷 찾기 테스트



솔직히 불어!
오해마 가지자고 전에!



겨울이라 유난히 추늘어질 땀방울이 남자 코스프레용인지 아닌지를 MAXIMI 이 편집해 주겠다. 18번 올메이는 테스트에 답변 발사할 준비 됐나? **By 김성민**

1. 여자친구랑 집에서 맥을 치는데 도둑이 문을 따는 소리가 들렸다. 이때 당신은?

- ① 꽂았던 풀폰이를 도로 회수한 후 곧바로 112로 전화한다. 그러면 원래 밑에 숨는다
- ② 소시계 가지고 놀던 야구 배트. 집에 묵혀 뒀던 스텐 건으로 무장한 후 도둑놈을 조지러 나선다.
- ③ 풀폰이를 휘날리며 바람처럼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 UFC의 도끼 살인마 실마로 병의해 압박을 선물해준다.

2. 서술자가 자랑하는 아리수급 수질의 결이 바글거리는 클럽에 당신이 입장했을 때의 반응은?

- ① 모두 레즈비언으로 변신한 것만아도 아무도 당신 따위 쳐다보지 않는다.
- ② 멀쩡하게 생긴 여자 몇몇이 당신의 (웃, 시계, 신발을 보기 위해) 전신을 훑었다.
- ③ 여자들이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주고, 괜히 미리를 쓸 여 남기고, 릿몸을 흔들어대는 데 여념이 없다.

3. 당신이 상종하기도 싫은 수컷과 보또를 허락하는 유일한 상황은?

- ① 수컷이라도 언제든 보또할 수 있다.
- ② 아버지와 어린 아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2차 성징이 온 아들은 제외다.
- ③ 때마침머리 다 곧 지새상으로 보낼 녀석이라면 고려해보겠다.

4. 잘친 수컷이 라쿠티방 당신의 영영이를 임대하는 데가로 100억을 준다면?

- ① 끝! 영영이에, 풀폰이도 추가요!
- ② 오로지 영영이만 임대하는 거라면 고려해보겠다.
- ③ 평생 무가지 신문은 나눠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못 하겠다. 시바!

5. 여자친구가 당신 집에서, 당신의 절친과 신나게 맥을 치는 상황을 목격했다.

- ① "들이 이렇게 뜨거우면 관계없구나. 나는 미쳐 풀폰이나" 라고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짐을 나신다.
- ② 달려들어 참처럼 붙어 있는 두 연놈의 몸부터 분리

시킨다. 처리하는 건 다름 문제다.
③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럴 때 쓰러지고 감춰뒀던 참아 도둑 꺼내 든다. 이제 고깃덩어리를 뿔어볼까?

6. 여자친구와 클럽을 갔는데 병신 같은 기도 녀석이 여자친구에게 띄우려 했다.

- ① 기도는 무시유니가 여자친구에게 클럽 대신 편안하고, 아늑한 엠타를 떠나고 고드건다.
- ② "좋게 말한 때 물어보내주시지" 라고 웃기 있게 말한다. 물론 이때 시선은 바닥으로 쫓아와 한다.
- ③ 이런 빌어먹을 호재작을 그냥 놔둬 줄 것이다. 클럽 앞에서 무적의 커를 서플댄스를 시전한다.

7. 먹지하고 조르는 여자친구보다 그닥 공놀이의 결승점이 100배는 더 중요하다. 동의하나?

- ① 무슨 소리냐? 미쳤나?
- ② 100배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은 일단 '아프키' 결심하고, 집으로 간다.
- ③ 공놀이 결승전을 이해하지 못한 알것은 그냥로 뺄 바리던 그뿐이다.

8. 갈을 잘못 들어 사람이러곤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 곳에 도달했다. 심지가 돌아갈 차편도 끊겼다.

- ① 오줌을 늘 생각이 없었는데 내 팬티 안은 왜 촉촉한 걸까? 이상하네?
- ② 흥가든 레가든 몸을 누일 만한 장소를 찾는다. 귀신에게 따 먹어도 지승보단 이성이 낫지.
- ③ 배이 그림스로 변신한다.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 굶둥이를 잡아먹으며 단박질을 보충하고, 코끼리 똥을 짜서 수분을 섭취한다. 이왕에 그냥 야영 한탄 버린다.

9. 지난 10년 동안 직접 몸으로 뺨 팀 스포츠는?

- ① 10년 전 고등학교 체육 시간의 공놀이에 참여했다.
- ② 5년 전 대학교의 동아리 체육대회에 출전했다. 그레도 나름 농구 결승전이었다.
- ③ 주말 아침에는 야구하러 가기 바쁘다. 되도 없다 이 야영 캐치하러 얼굴로 슬라이딩해도, 어쨌든 스텐 때문에 이에게 빠져도 야구에 대한 열정을 꺾을 수 없었다.

답변이 최다 1번이다

당신의 풀폰이가 사용된 지 오래되어 사라졌을지도 모르니 지금 당장 팬티 안에 손을 집어 넣어 생사여부부터 확인할 것 이렇게 살다가 흥석천과 '버 대버다' 가 될지 모르네. 수컷하면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당 밀알밀알만 발라 따던 집어치우고, 하드코어한 메 밀라키 형님의 음악으로 영혼을 달석 해라. 사라진 풀폰이가 생겨날 만큼 복싱, 격투기 같은 운동을 치하게 하는 것 잊지 말라?

답변이 최다 2번이다

그래. 아직은 남자라고 말해도 되겠다. 하지만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나 조 기속구회라도 나가면서 다 몸 안의 소 수컷들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요즘 TV나 드라마에서 부드러운 남자가 잘 나간다는 데 그거 다 구라다. 일단 당신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잖아? 그리고 원래 여자는 수컷 남새가 나는법 내 말도 남자에게 꿀피 수백에 없다. 그게 진리야.

답변이 최다 3번이다

레알 수컷이 여기 없었고! 당신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다. 남자는 잘나는 수컷과 무리를 짓고 싶어 하고, 여자는 어떤 남자에게 자신을 담보로 맡기게 행복하지 가라치며 일러차라는 속이 있으니까. 하지만 적당히 참을 줄도 알아야 해. 성추행하려는 여자석을 손 버렸다! 스승 크리 데오라는 더러운 새상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보다 강력한 수컷이 세상에겐 많을을 명시하고.



동안이시네요
영국의 다이앤 테일러 할매가 위스키를 시러 갔다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 19년에 태어난 이 할매는 1937년에 이미 유주 가능 연령인 18세가 됐지만 말이다.



천재의 취향
공포영화를 좋아다니며 파넬 짙은 여성의 시계 29를 집으로 가져와 함께 생활한 45세의 러시아 남성이 체포됐다. 더 놀라운 건 이 수컷이 저명한 역사학자로, 3개국 언어를 구사하는 천재라는 사실이다. 그레바야 반대 세력.

쉽고 간단한 여유증 자가 진단법.

깎노라, 뺏노라, 크노라!

아닐거야...아닐거야...내가 여유증 따위 일리가 없어...아닐거야...아닐거야...



가슴 اندازه
가기



CHECK LIST

가슴 모양이 전반적으로 영좌 동그랑땡과 같이 완전한 원형을 지니고 있다. (1점)

유두 부분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 책상에 부딪혔는데... 책상이 아프다. (2점)

유두의 크기가 건조도를 넘어 잘 얼면 핑크 크크(6mm)에 육박한다. (3점)

유륜이 중국산 판다곰의 다크써클을 닮았으며 크기가 30mm를 넘는다. (4점)

유두를 손가락으로 눌렀더니 서해안 갯벌 거닐 듯 푹푹 들어간다. (5점)

유두 주변을 손가락으로 만졌더니 웬 짐승남의 복근(유선 조직)이 거기 있었다. (6점)

실루엣 성형외과 여유증 센터에서 무료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여유증이라고 한다. (7점)



자가 진단 체크 합산 점수가 15점이 넘는다면 이 곳을 주목하자.

당신이 잃어버린 실루엣을 되찾자

실루엣 성형외과는 국내 3,500명의 최다 수술 케이스로 풍부한 '시술 경험'을 갖추고 있다. 최첨단 의료 기술을 도입해 너저분한 실 대신 인체용 분드를 사용해 수술 부위가 깨끗하다. 또 유두에 3mm 이하의 구멍을 내어 시술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방흡입에 적합했던 거드랑이 방식에 비해 유선 조직의 확실한 제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수술 후 사후가 가능하고 정교하게 관리 할 수 있다.

여유증 전문 센터에서 수술을 받는 이유

실루엣 성형외과의 윤상영 원장은 여유증 전문 센터를 별도로 운영, 환자는 수술비용 이외에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재발은 매우 드물지만 혹여 재발하더라도 100% 무료로 재수술이 가능하다. 안전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 믿음이 간다. 상담 예약 시 초음파 검사가 무료인 것도 다른 병원의 차별점!

자신감은 마을에서 나온다? 가슴에서 나온다.

가슴을 피지 못하고 다니던 서러움, 부장님이 사우나를 가지고 했을 때 주저리주저리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야 했던 경험, 공중 목욕탕은 고사하고 워터파크, 해인, 수영장에도 놀러 갈 수 없었던 서러운 기억들, 당신이 여전히 없었던 이유가 성격 탓일까? 당일 수술, 당일 퇴원으로 쓸데 없는 가슴일랑 간단하게 날려버리고 따뜻한 양지의 세계로 나오자, 잃어버린 자신감이 당신의 작은 용기로 되찾을 수 있다!



윤상영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전문 분야: 가슴 성형, 여유증, 흉부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 한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외래교수
- 한 실루엣 성형외과 대표 원장
-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 서울아산병원 유방클리닉 임상강사 역임
- 보당 수도병원 성형외과 과장 역임
-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ISAPS) 회원
- 성형외과학회 유방연구회 회원

실루엣 여유증 센터
Silhouette Plastic Surgery

<http://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2-5 실루엣 빌딩
4, 5, 6층 실루엣 성형외과(여유증 센터)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친구 추가해 주세요!
ID:gynecomastia

MISS OF THE MONTH MAXIM

2011 MISS MAXIM CONTEST
THE 8TH
SEMIFINALIST

김지예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누워 있을 때와 뒹 때까지 예쁜 여자는 없다고 했는데... 그런 여자가 있었다! 수백 번 정프레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녀의 눈웃음에 우리는 모두 넋을 놓고야 말았다.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UP 이현정 FILM 김진욱
ASSISTANT 조다현

COOPERATIONS
헤지스레이디스, 타이힐미게(02-546-7764)
코데스컴바인 이너웨어(02-2117-7335)
크리에이티브 레크리에이션(02-3443-1703)

서초 헤지스 레이디스
언더웨어 코데스컴바인 이너웨어

김지예

생년월일: 1989년 6월 15일생

직업: 치어리더

소속: 축구는 FC서울, 야구는 넥센 히어로즈, 농구는 전자랜드

나인볼 황후: 포켓볼에 자신 있다. 당구장 사장님이 나한테 도전하기도 했을 정도다.

꿀핀왕: 무슨 일이든 한번 시작하면 꼭 끝을 봐야 한다. 게임도 마지막 단계까지 끝내야 속이 시원하다. 요즘엔 '버블슈터'에 빠졌는데 129단계가 너무 어렵다.

최고의 순간: 팀이 경기에서 이길 때, 특히 지고 있다가 역전승할 때의 기분이 최고다.

힘들다고 느낄 때: 직업상 다리를 다치는 일이 예사라 아플 때도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술을 과하게 드신 분들의 진한 눈담을 들을 때는 기분 이 나쁘다.

트롯트 여신: 공연도 많이 하는데 나는 노래 담당이다. 트롯트를 좋아해서 몇 번 불렀더니 위에서 자꾸 트롯트만 부르라고 한다. 삼수 봉의 '히나리', 김양의 '우지마라'를 즐겨 부른다.

남자친구: 눈이 높지도 않은데 왜 없을까. MAXIM 나오면 나도 남자친구 생기는 거지? 그치?



“
포켓볼 내기에서 지면
밤에 잠이 안 온다.”



이상형: 어깨가 넓고 팔이 두꺼운 남자. 여자를 웃길 줄 알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 소심하게 속에 담아두는 남자는 별로다!

최악의 작업 멘트: 지하철 한탕남의 "갑판한국 가서 돈가스 드실래요?" 라는 멘트.

마음에 드는 남자를 유혹하는 법: 내속 없이 대한다. 그래서 "너처럼 많이 먹는 여자에는 처음이야!" 라는 얘기도 자주 듣는다.

지금 먹고 싶은 것: 햄버거랑 족발. 사들 건가요?

미니홈피: 일촌 신청은 다 받아주지만 일촌평에 남자친구 행사하면 바로 일촌 끊어버릴 거대!
cyworld.com/soulmate0615



빨간색 가디건 타이힐퍼가 언더웨어 코디조합바인 이너웨어 운동화 크리에이티브 레크리에이션

2011 MISS MAXIM CONTEST FINAL ROUND

영상으로
만나요



FINALIST 1. 이명희

생년월일: 1983년 3월 15일생

직업: 재즈댄스 강사

페이스북:

facebook.com/myungashley

드디어 결승 화보를 찍게 될 3명의 결승 진출자가 결정됐다. 2012년에도 MAXIM에서 볼 수 있는 단 한 명의 MISS MAXIM은 과연 누구?

대망의
결승 안내



연제 12월 8일~12월 28일(20일간)

어디서 MAXIM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

어떻게 당신 눈에 2012 MISS MAXIM이 되어 마땅한 그녀의 화보를 다운로드가 곧 그녀에게 던지는 한 표가 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FINALIST 2. 김지혜

생년월일: 1989년 6월 15일생

직업: 차어리더

미니홈피: cyworld.com/soulmate0615

FINALIST 3. 천아슬

생년월일: 1989년 10월 6일생

직업: 학생, 모델

미니홈피:

cyworld.com/cjsdlmf

2012 MISS MAXIM CONTEST



내년에도 MAXIM 화보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아름다운 여성 독자들이 남길 거라 믿는다. 2012 MISS MAXIM CONTEST에 도전하라. 결승에 가까워질수록 상금도 올라간다.

참가 신청 방법

- www.maximkorea.net에 접속한다.

- 우측 MISS MAXIM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 독자들에게 보여줄 예쁜 사진 20장을 업로드 한다.

자세한 내용은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문의 02-323-1182 alice@maximkorea.net

Jeremy & Hanson
INTERNATIONAL

STYLISH PROTEIN

for Stylish Guys & Girls



샘플신청하기
지스타일 전국모임
Miss Maxim 최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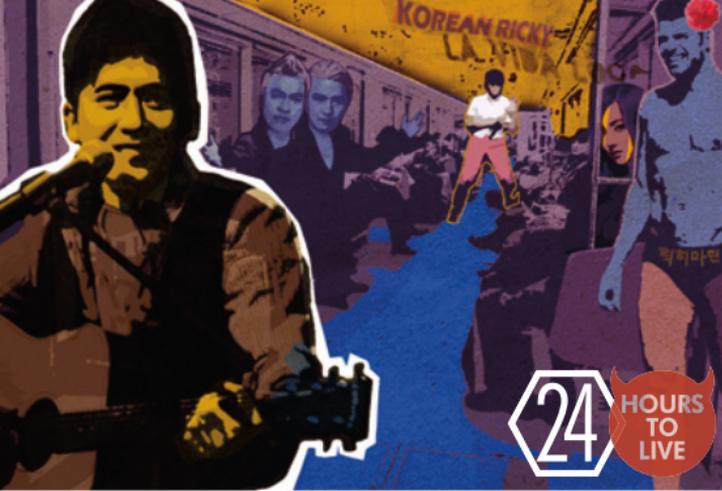
G STYLE

지스타일은 이지셰이크(Ez Shake)팩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셰이커 없이 흔들어도 마실 수 있는 신개념 프리미엄 프로틴입니다.

14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18종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9종	미네랄 5종	함유	NO
하루 권장량 35%의 풍부한 양	AB, B6, B12, C, D, E, K, 마인, 엽산 하루 권장량 33%	칼슘, 철, 마그네슘, 아연, 크롬 하루 권장량 33%	BCAA, 옥타코사놀, 타우린	합성미료, 플라스틱물, 포화지방



아직도 나는 탄따라 홍경민

탄따라는 탄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뜻이죠. BY 송종민 ILLUSTRATION 천영준

당신의 목숨이 이제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결혼도 못해보고 죽는다니 억울하지 않나? 못해본 게 결혼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찍 갈 거면 나는 사람 생각 해서라도 안 한 게 다행이다.

이렇게 준수한 외모에 어쩌다가 독거 노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나? 준수하다 말해줘서 고맙긴 한데 독거형 외모랑 무슨 상관인 거야? (웃음) 혼자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 그런가.

<올름린 우정>으로 전성기를 보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인기였나? 쉬는 날 하루 없이 잠잘 시간도 부족했던 때다. 가수 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 한 번 없으면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나가 아니라 나쁘지 않은 기억이다.

한국의 리키 마틴이라는 별명을 대체 누가 붙여줬나? 콘셉트가 그렇다 보니 대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붙은 수식어다. 그 때 프로듀서 김창환 씨가 대중들에게 꼭 이 별명이 나오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하던 기억이 난다. 쓰다가 먼저 홍보용으로 저 수식어를 쓴 적은 없었는데도 그 말이 나온 걸 보면 창환이 형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출중한 프로듀서인 것 같다.

이제는 현지 놀리듯 그 별명이 따라다닌다. 그 이미지 10년 가는 데 일등 공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나? 굳이 따지면, 그 이후에 그 이미지를 잘 만든 인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건 내 책임이다.

2002년 최고의 자리에서 있을 때 군 입대를 결정했다. 요즘은 군대 갔다 오면 챙겨주고 인도가 더 많아서데 억울하지 않나?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다. 안 하기도 되는 걸 강 것도 아니라 과대평가 되는 것도 싫었고 해야 할 걸 하고 왔으니 과소평가 되는 것도 싫었다. 나만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일말금 주연도 하고 연말에 상도 받을 만큼 연기도 잘하는데 왜 요즘은 안 하나? 내가 안 한다고 한 적 없다. 다만,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전문 연기자들처럼 작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을 뿐이다. 언제든 잘 맞는 작품을 만나게 되면 또 볼 수 있을 것이다.

뮤지컬 <원호>에서 보여준 호러블한 한발 올백 헤어스타일...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저항 안 해봤나? 원래 머리를 아주 짧게 지른 후 하얗게 해야 하는데 그나마 난 머리는 안 깎았으니 다행이다. 한 달 공인이라도 머리를 자를 순 있지만, 그 이후 스키를 즐기면서 머리를 자르지 못했다.

뮤지컬에 MC에 책 집필까지, 다 재능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하지만 뭔가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는다. 동태 형 같은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이 쓴 느낌의 연애이기에 오고 싶진 않다. 나는 연인인 에이 이전에 노래하는 사람이 되. 나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역시 당신에게는 노래가 가장 어울린다는 것을 <불후의 명곡 2>에서 증명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들 홍경민이 이렇게 노래를 잘했느냐며 의외였다고 말한다.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대중들에게 나를 보일 기회가 14년밖에 있었는데 보여주지 못했더니 그만큼 활동에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그 또한 안으로 해결할 숙제라고 본다.

그동안 대중이 원하는 흥경민과 스스로 하고 싶은 음악이 달랐던 느낌이다. 이제 갈피가 좀 잡히나? 세상 사는 이야기처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는 대중들도 나에게 그럴 뉘 할 것 같다. 화려함보다는 여백의 미가 많은 음악. 듣는 이가 함께 공감하며 인생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

정말 오랜만에 노래로 다시 인정받을 좋은 기회다. 화제가 되었을 때 얼른 새 음반을 발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하잖아.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진 않았지만, 곧 선보이게 될 것이다. 다만 <불영>을 올릴 때에 갑자기 흥분해서 무리수를 두고 싶진 않다. 모든 건 조금씩 잘게 꾸준히 할 때가 가장 좋은 것 같다.

한참 잘나는데 <불후의 명곡 2> 하자 소식을 들었다. 아이를 안이라고 누가 볼 거 싫다면? 처음부터 6주간 출연하는 걸로 시작할 일이다. 계속한다면 역시 최선을 다해 편곡하고 무대에 임했겠지만 6주엔 무대라도 충분히 즐겁고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불후의 명곡 2>를 통해 가장 의외였던 후배가 있다면? 의외는 아니었고, 생각보다 더 큰 능력과 재능을 가진 후배가 많았다고 본다. 무대에 서는 사람은 수많은 관객의 눈에 들리지 않는 강한 정서력이 필요한데 아주 충분한 가사와 리듬을 가졌다. 더 큰 가수가 될 것이다.

<감시장>에서 이희진씨가 여전히 좋아한다는 고백을 해서 화제다. 독거 노인엔 맹류 야인가? 좋은 친구다. 아직도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다만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연인이 아니었을 뿐이다. 그런 예쁜 마음으로 좋은 인연 만났으면 좋겠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 죽을 때 옆을 지켜줄 사람도 없잖아. 죽는 순간 누구에게 연락할 건가? 가장 마음많은 후배에게 연락하겠다. 그럼 다 알게 될 테니까(웃음). ☺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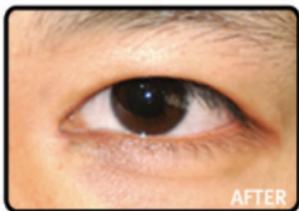


BEFORE



AFTER

〈눈 성형술 6개월 후〉



AFTER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doctor.co.kr

GAM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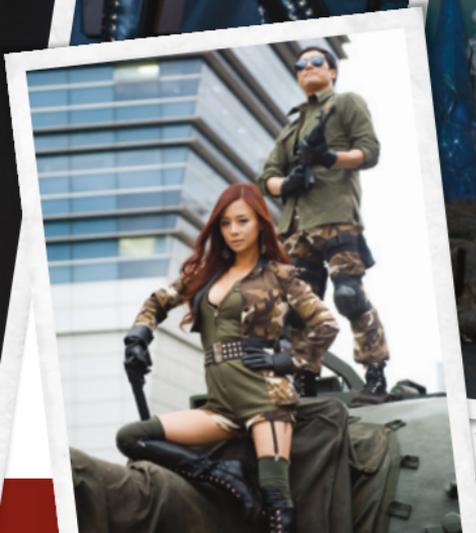
GAMER'S HEAVEN

MAXIM의 2011
G★STAR 방문기

2011 G★STAR에서 고르고 골라 한차리에 모았다.
BY 김성현 PHOTOGRAPHS ARC STUDIO



길사의 위용





G★STAR
올라 올군!

MAXIM STYLE
REVIEW

키워드로 뽑아본
2011 G★STAR

즐라 길게 쓴 재미없는 리뷰 따위는 사임이다. 올해 G★STAR는 이것만 일면 땀이다.

▶ 역대 최고 규모

28개국 총 384개 업체가 참여했다. 올해는 한 동안 G★STAR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핏펜을 비롯해 증권업체 비스문도 G★STAR 메인 무대를 장식했다.

▶ 역대 최대 관람객

총 관람객 29만여 명을 기록하며 작년의 28만여 명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이리저리 러그 말은 많았지만 흥행에 성공한 행사인 건 사실 올해는 작년보다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았던 것도 이채로웠다.

▶ 수출만 3,000억

게이머들이 부스에서 사진 찍고, 게임하고 놀 때 옆심히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비즈니스한 걸다. 양키 바이어가가 "G★STAR 원더풀" 이라고 외쳤다면데 확인할 길은 없다.

▶ 반쪽 행사는 BYE

우리나라 게임 업체의 자유 행사는 평가를 받던 G★STAR였지만 올해는 유럽의 위기에 맞설 때쯤에 일본의 세가, 미국의 블리자드 등 해외 업체들이 스키타다가 아니라 메인 디 시로 참여했다. 놀랍게도

▶ 콘솔 게임은 어디로?

올해 콘솔 게임 업체는 씨가 말랐다. 작년 키넥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MS마저 빠지면 서 콘솔 게임 진영은 말망했다. 우리나라 최대 게임 쇼에서 PSP VITA에 대한 정보를 한 톨도 얻을 수 없더니 말이 되네!

▶ 대세는 모바일 플랫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나가는 모바일 게임 업체 컴투스가 G★STAR에 전격 데뷔했다.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으로 밥 먹고 살던 업체들이 모바일 플랫폼에 신작을 내놓고 밥 숟가락을 얹는 것도 눈에 띈다.

▶ 초대작은 없었다

전세를 압도할 초대작 게임은 없었다. 물론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터널)처럼 예상치 못 한 활력이 있었지만, 작년 (디아블로3)만큼 G★STAR를 지배하진 못했다.

▶ GIRL★STAR의 부활?

작년보다 부스걸의 수질이 업그레이드된 건 사실이지만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의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게이머를 유치할 수 많은 걸 덕후가 행사장을 누볐지만, 모터쇼에 비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 정도면 양면이지!



할 뻔!
흥드료 한뎀?

WINNER OR
LOSER

2011 G★STAR 성적표

MAXIM이 주요 업체만 골라 성적을 매겼다. 성적표도 못 받은 등보잡들은 반성해라.



A+

명불하얀
역시 엔씨소프트!

- ▶ <리니지 이터널>은 <다이블로3>의 대항마로 손꼽히는 게임이 될 가능성을 보였다.
- ▶ <김드워>는 <플레이드 앤 소울>의 빈 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만족스럽다.

MAXIM SAYS 우리나라 NO.1 게임 제작사만 타이틀을 거쳐 먹은 건 아니었군.

we made
entertainment



A+

모바일 플랫폼을
집중공략한
모범생

- ▶ <창천>이라는 타이틀을 버린 <천룡>가는 꽤 어린 타격감을 자랑하는 무협 게임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 ▶ SNS-RPG <하이로 스퀘어>는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대작 게임을 만드는 게 가능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MAXIM SAYS 우리나라 게임 업체 중 스마트폰 플랫폼의 가능성과 중요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WARGAMING.NET



A+

워게이밍넷 '생일'

- ▶ 우리나라 밀덕들의 <월드오브탱크>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국 시장에 전격 진출!
- ▶ 게임에 대한 재미는 각종 불독이 메러, 쾌적한 게임 환경만 받쳐준다면 탄탄대로다!

MAXIM SAYS 게임도, 진짜 탱크를 전신하는 스퀘이드도, 심지어 부스까지 마음에 들었다.

한게임 | "글베다"

C+

▶ 한게임에서 <워닝 일레븐>을 온라인으로 선보인다는 건 잘 알겠는데.

▶ <킹덤언더피어스>는 진정 내년에 출시될 것일까? 편이 2003년에 출시된 걸 기억은 하고 있다.

MAXIM SAYS 엔플 N4N 소속이 맞아? 왜 이렇게 엉성해.

넥슨 | "공정적인 문벌식 확장"

B+

▶ 웹 기반 MMORPG <삼국지 무대>는 PC와 모바일 환경이 100% 연동되는 같은 서버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 <아틀란티카>로 배스넷의 게임 카테고리에서 전격 진출한다. 오호 이런 꽤나 신선한데?

MAXIM SAYS 넥슨은 웹, 소셜, PC 게임까지 놓치지 않을 셈이다. 이런 모습감!!

네오위즈 | "글베, 글베다"

C+

▶ <디펜더> 타격감과 액션이 잘 짜인 워리어 슈팅게임이건 인정한다

▶ 하지만 믿고 있는 MMORPG <플레이스>와 <이연>의 대박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MAXIM SAYS 솔직히 게임을 시연하는 것보다 부스걸음 보는 게 더 즐거웠다.

팍켄 | "아직 죽지 않았다"

B+

▶ 사랑이 놓지 않아도 <이브드드>의 태깅을 불러왔고, 전작의 인기가 이어갈 충분한 게임성을 갖냈다.

▶ 팍켄을 먹여살린 <유>의 후속작이 등장한다. 전작의 유사라면 생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MAXIM SAYS 간만에 G★STAR에 복귀한 것치고 생황했다.

빅스온 코퍼레이션 |

B+

"이름 그대로 크게 한 술가락" 됐다"

▶ 신작 MMORPG <레드블라드>와 익스트림 레이스 게임 <프라이드>는 기대 이상으로 잘 빠졌다.

▶ 게임은 물론 스퀘어까지 증권 업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G★STAR에서 능숙한 모습을 보였다.

MAXIM SAYS 빅스온의 G★STAR 나뭇잎은 성공작이 아니다.

염게임 | "<열혈강호> 바둑이"

B

▶ 오로지 <열혈강호>만 믿고 간다.

▶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염게임이 이놈에 매달리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은근 잘 만들었고, 은근 중독성 있다.

MAXIM SAYS <열혈강호> 게임의 후속작이 나올 즈음이면 만화 <열혈강호>도 굵이 보일 줄 알았다.

세가 | "반값! 세가"

B

▶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MLB 메이저 온라인>, <프로야구 메이저>, <풋볼 메이저>를 선보였다.

▶ 스포츠 메이저들은 게임은 세가를 따라올 업체가 없는 게 사실이다.

MAXIM SAYS 콘솔 <드림캐스트>를 만들던 세가였으면 좋았겠지만 이례대로 관심을 보여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컴투스 | "모바일 1등 업체에 위임"

B

▶ 모바일 업체가 단독으로 부스를 마련하니 우리도 편해

▶ 모바일 게임 중 가장 잘 나가는 <올리베&300>의 후속작 <올리 베&200>의 반응은 역시나 뜨거웠다.

MAXIM SAYS 컴투스가 G★STAR에서 다른 게임업체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다.

넷마블 | "일단 씨피리는 있는데..."

X100

▶ 넥슨과 <스태드> 제작사에게 X100을 떠넘기는 신작 <S2>가 눈여겨볼 수 있을까? 하긴 게임이 잘 나간다고 모바일이 흥과 사랑에 마지않는 부분 유료화가 게임 밸런스를 망칠지 가능성은 매우 높지!

▶ 야심 차게 들고 온 <리시에서 만든 와우> <리프트>도 오리저널 <와우>를 겹쳤다고 나리인데 생각대로 풀릴지는 의문이다. 돈벌이 잘하던 <스태드>도 권리 못하는 병신 이 <리프트>라고 드라졌어?



© CAPCOM CO., LTD. 2010. 2011 ALL RIGHTS RESERVED.

데드라이징2 :오프 더 레코드

그 남자가 돌아왔다. BY 스포트라이트

플랫폼 Xbox 360, PS3, PC

제작사/발매사 캡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장르 중비 파라디이스 액션

가격 45,000원(Xbox 360, PS3), 39,000원(PC)

레이팅 청소년 이용 불가

지막 한글



색다른 의미의 속편

작년 9월에 발매된 《데드라이징2》의 속편이긴 한데, 조금 특이한 형식을 도입했다. 이번 작품의 스토리는 '포춘 시티에서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했을 때, 만약 게임의 주인공이 척 그린&케이티가 아닌, 시리즈의 초대 주인공 프랭크 웨스트였다면?'이라는 상황에서 전개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등장인물은 《데드라이징 2》와 완전히 동일하다. 동일한 무대&스토리를 전혀 다른 캐릭터로 다른 시점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이번 《데드라이징 2 오프 더 레코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걸 패져낸 게임 환경

베이스는 《데드라이징2》가 때문에 그래픽이나 사용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 게임 중에 좀비가 많이 나오거나 폭발 연출 때문에 환이 느껴지는 현상이 비교적 감소됐고 완연히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전작에서 큰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로딩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 특히 Xbox 360판의 로딩 시간은 극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데드라이징2》를 즐겼던 사람이려면 세이프 하우스에서 항공기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 로딩이 매우 짧아졌다는 사실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거다.

사진 촬영 모드의 추가

주인공이 프랭크로 바뀐 덕분에 사진 촬영 모드가 추가되어, FP 스티커 촬영이나 셔터 찬스 촬영으로 단숨에 PP(경험치)를 얻는 게 가능해졌으며, 초대 《데드라이징》에서도 사용했던 프랭크의 고유 스킬이 다수 부활했다. 사실 프랭크는 Xbox 360에서 다운로드 한정으로 서비스했던 《데드라이징2》 케이스 웨스트)에서 이미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CO-OP에서 참가자 입장일 때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종에 관계없이 1인 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은 확실히 플러스 요소다.

전작과 대동소이한 게임 스토리

아쉬운 부분이라면 메인 케이스나 사이드 케이스 같은 스토리 관련 부분이 전작과 너무 똑같다는 전, 메인 케이스는 후반부를 제외하면 주인공의 프랭크가 되었을 뿐 전개가 거의 동일하며, 사이드 케이스는 생존자의 위치가 조금씩 변경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똑같다. 일부 추가 사이드 케이스도 존재하지만 손에 꼽는 수준. 심지어는 전작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오퍼서시 엔딩마저 비슷하다. 이참 속편이라 하려면 뭔가 아쉬운 수준이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즐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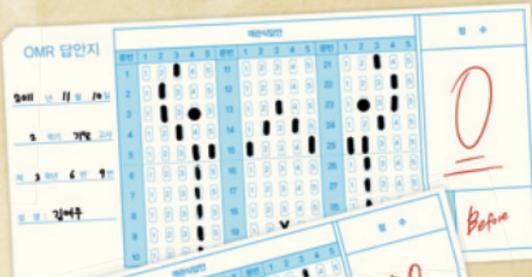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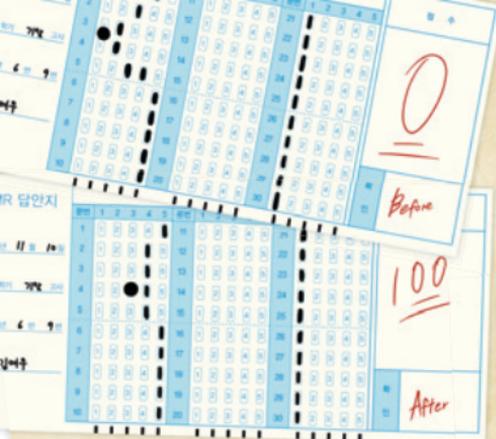
이번 작품에는 전작에 있던 Z(테러 이즈 리얼리티) 모드가 삭제되는 대신 '샌드박스 모드'라는 것이 추가되었는데 이게 물건이다. 초대 《데드라이징2》의 수(인피니트) 모드에 해당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서 체력이 줄어들지 않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포춘 시티의 이곳저곳을 돌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스토리 모드에서 이러한 플레이를 즐기려면 계속되는 무전이나 이벤트 때문에 은근히 시끄러워 보이는 느낌을 받았던 만큼, 이러한 모드의 추가는 시리즈 팬으로서 매우 기쁠 따름이다.

재미있고 저렴한데, 심지어 한글화

좀비를 일정 수 이상 죽일 때마다 도전이 가능한 30가지의 챌린지 과제는 어떻게 보면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샌드박스 모드에서 플레이어의 도전 욕구를 자극하며, 두 가지 모드가 친부 CO-OP 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할 수도 있다. 시리즈 팬이라면 당연히 즐길 만한 작품. 전작을 아직 해본지 못한 사람이 《데드라이징2》를 건너뛰고 이 작품부터 시작해도 큰 문제는 없다. 가격도 저렴하고 한글화도 되어 있으니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

시험은 잘 보았니? 이제 올바른 바디라인의 정답을 찾자!

자, 이제 플레이 시전! 여유증 치료를
통해 가슴을 쪽 펴고 거리를 확보하라!



2011년 11월 15일
시험을 봤다. 국어 시간은 어려웠다. 답일이 분명히 내기 했는데...
다른 부분인데...나왔다. 이런 백어레이...
유라 시험은... 범위를 잘못 알았다. 진짜다. 언제 그렇게 진
도를 많이 나왔지? T
그나마 미술 시험이 제일 쉬었다. 미술 선생님.
사랑해요. 꿀꿀꿀 ♥
어쨌든 이제 그 동안 못 해왔던 모든 놀이들을 섭렵하려
한다. 흉대를 걷거나 요즘은 강남이 더 좋다는데!
그 전에 미관을 못해왔던 이 가슴을 어찌하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에 받아야 좋을까? 아 유라
시험보다 이게 더 어렵다는! OTL



➔ 여우 여유증 클리닉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

최신 초음파 장비로 완벽한 가슴라인을 그릴 수 있는 병원

눈대중으로 여유증을 진단하고 진료하는 병원을 선택하는가? 여유증 가슴에는 지방 뿐 아니라 복잡한 유선 조직이 분포되어 있다.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마치 3차원 지도 그러듯 파악하는 것이 수술의 첫 번째 **여우 여유증 클리닉**은 최신 초음파 진단 장비를 도입, 지방 조직의 분포와 유선의 분포, 피부 탄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보장한다.

사람마다 다른 가슴, 많은 수술 케이스는 필수!

여우 여유증 센터에서는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을 권장한다. 광섬유가 장착된 기구를 삽입하여 카메라로 부위를 보면서 시술하는 '3mm 절개 여유증 내시경 수술'은 기본이고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의 상대적 양, 피부 두께, 흉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을 권장한다. 따라서 수술 후에 상태에 맞지 않는 시술로 재수술 염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수술만 잘하면 멍? 사후 관리가 좋은 병원의 척도!

여우 여유증 센터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회복을 위한 치료가 마련되어 있다. 'EFFECT Lipo Laser' 치료와 'EFFECT Meso Soft' 치료는 지방 세포의 유통화 촉진 작용을 해 피부와 세포의 재생을 원활하게 하고 조직의 유익을 막아 자칫 생길 수 있는 통증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줄 것이다. 이제 고민만 하지 말고 행동할 시간이 왔다. 지금 수화기를 들지아!



도움말 주신 반철원 원장은?

서울 대학교 병원 수련의
서울 아산병원 상형외과 전문의
대한 상형외과 학회 정회원
대한 미용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정회원
대한 비만 체형학의 정회원
대한 임상 메조세라피 연구회 정회원

www.foxyou.co.kr

02-516-6150 / 02-517-0675



여성형 유방 전문병원
여우 여유증 클리닉

© 2011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배트맨: 아캄 시티

원작만 대중 만들던 게임 제작자들
《배트맨: 아캄 시티》 보고 X잡고 반성해라 by 박영문

플랫폼	Xbox 360, PS3
제작사/발매사	인플레이 인터랙티브/ 워너 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로스타디 스튜디오
장르	액션 어드벤처
가격	58,000원
레이팅	15세 이용가
지막	한글



코믹스에 뿌리를 둔 배트맨 시리즈

DC 코믹스의 배트맨 시리즈가 원작인 《배트맨: 아캄 시티》는 2009년에 발매된 《배트맨: 아캄 어사일럼》의 속편이다. 《배트맨: 아캄 어사일럼》은 미래적으로 영화에서 보았던 ‘현실적인 배트맨’이 아닌 ‘원작 코믹스에 근거한 배트맨’을 선택, 배트맨 ‘영화의 팬이 아닌 원작 팬을 노리고 제작’되었다. 《배트맨: 아캄 어사일럼》은 뛰어난 연출과 완성도 높은 시스템으로 영화와 전혀 다른 배트맨을 그렸음에도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 원작의 인기를 등에 업은 그저 그런 게임이 아닌 거대

놀랍도록 진화된 시스템

‘강한 적을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처치한다’라는 개념의 ‘보이지 않는 포식자’ 시스템은 이번 작품에서도 그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개념을 그대로 살렸다. 거기에 다양한 기술과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 더 완벽해졌다. 전작에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조작이 너무 쉬워서 웬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광범한 상대를 공격할 때는 전작처럼 특박특박 치다가, 특별한 적이 나타나면 역동적인 스타일로 확 바뀌는 플레이를 간단 조작으로 즐길 수 있다.

개성으로 뚝뚝 뚫힌 한글화

전작과 달리 자막이 한글이다. 한국 게이머들이 패재를 불렀는데, 전체적인 번역 수준도 매우 뛰어나다. 오역이 생길 법한 스토리에서조차 실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게임 시스템 부분에선 약간 보이기 한다. 하지만 번역하기 까다로운 조커같이 특이한 등장인물의 대화나 말장난을 거의 완벽하게 소화해낸 것을 보면 칭찬해줄 만하다. 게임의 불륨도 매우 풍성하다. 후에 다룬으로 큰 텐츠로 2대 로빈과 1대 로빈이었던 딕 그레이슨의 나이트윈드 캐릭터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배트맨 종합 선물 세트

《배트맨: 아캄 어사일럼》은 더욱 강화된 연출이나 액트와 등 원작 팬들을 감동시킬 요소가 가득하다. ‘갓 우먼’이 플레이어 캐릭터로 추가된 것을 시작으로, 라스 알 굴, 두 페이지, 미스터 프리즈, 데드 샷 같은 악역이 다수 등장해 배트맨과 조커(&힐리 퀸의 일대일에 가까웠던 분유기)를 쇠산하고 스토리 라인도 더욱 풍성해졌다. 전작의 연출도 뛰어난 편이었지만, 이번 작품에는 더욱 다이나믹한 연출이 가득해 보는 눈도 즐겁다.

새로운 방식의 오픈 월드 방식

무대가 아캄 시티로 넓어져서 오픈 월드 방식을 채용했다. 하지만 걱정 마라. 이 게임은 오픈 월드 방식의 고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동의 지루함, 새로운 탐험 요소의 부족, 길 찾기의 난해함, 숨겨진 요소 찾기의 반복’과 같은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했다. 왜냐하면 지도에 수십 톱 위치를 표시할 수 있으니, 드넓은 무대에서 공알 한 쪽 찾듯이 숨겨진 물건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0점 만점에 10점

배트맨을 소재로 한 게임이라는 부분을 떼고 그 날 액션 게임으로 보아도 뛰어난 재미와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자랑한다. 그야말로 흠잡을 부분이 없는 명작이다. 두 작품 연속으로 개념 작품이니 시리즈 전량도 받아 10점 만점에 10점을 준다. 하지만 원작에서 점점 빛이 사라지는 시리즈가 끝까지 잘 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장래가 약간 염려된다. 하지만 너 이 지시, 끝까지 파이팅!



Got MAXIM?



경고: ①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앱스토어에서만 그립니다. MAXIM은 해당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은 아니어도 내 가족, 이웃까지도 물리게 합니다. 아이패드용 MAXIM에는 중독성 물질인 불동영상, 미공개컷, 독한농담, 우수암컷, 때깔기계, 교미사실, 독점비밀, 거친수컷, 메인게임, 총질잡질, 프로우동, 새간차랑, 오드바이, 만취음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국내 유료 아이패드 매거진 중 매출순위가 부동의 1위인가 봅니다.

중독 주의! 모바일 소셜 게임

소셜 게임은 인맥이 곧 돈이야. 이걸 게임에서까지 느끼야 하디나. BY 송홍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란?

대진 전투 등 게임자체가 목적인 일반 게임과는 달리, 게임을 통해 사용자 간 친밀감을 증대하고, 인맥을 관리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상대방과 같은 시간에 접속 중이 아니더라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스마트폰 소셜 게임이란 이래야 한다는 표준을 정립한 것이 바로 <위 룰>이다. 흔히 심시티형 전략 게임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작물을 수확해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서 생산된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지어가는 생산과 수확을 기초로 삼고 있다.

- 1. 작물을 심고 카운트인데 필요한 것은 오로지 시간뿐!** 30분 만에 수확할 수 있는 것부터 3일이 넘게 걸리는 것까지 다양하다. 건물을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므로 그 건물에서 자원을 생산하는 데도 또 시간이 걸린다 즉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얼마나 빨리 쌓아놓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만들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많아지는 데 못 만들던 옛것처럼 고급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을 때의 희열이 바로 위 룰의 백미라 할만 행진과 채소가게로 시작한 왕국은 레벨이 올라갈수록 드래곤의 동지, 해리퀘스트의 시진, 고대 피라미드 같은 멋진 건물로 풍성해진다. 비싸지만 그만큼 많은 생산량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 2. 이런 건물을 여러 채 갖게 되었다면 이제 소셜 네트워크 대부를 시작해보자.** 주변에 <위 룰>을 하는 친구 아이디어를 입력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아이디어를 입력해 친구 등록을 하면 언더 친구의 왕국으로 찾아가 특정 건물에 생산 의뢰를 할 수 있다. 생산 의뢰를 받은 친구가 수락하면 생산자와 의뢰자 모두 평소보다 훨씬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많을 수록 유리한 건 당연한 일. 인맥이 곧 돈이라는 사회의 진리를 깨달게 해준다.
- 3. 하지만 경쟁도 없고 게임 외에도 없는 단조로운 게임 플레이가 약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도전과제 시스템이 최근 업데이트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친구들의 비싼 건물에서 얼마 해라!'란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친구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뭇 긴장감을 갖게 한다. 이처럼 매주 새로운 건물이 업데이트되고 특별 이벤트 아이템이 추가되며 점점 발전하고 있는 <위 룰>은 스마트폰 소셜 게임의 시작이자 그 완성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롤 더 스카이



인기 온라인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을 제작한 JOE의 작품으로 대형 퍼블리셔들은 켈리타의 동부이다. 기본적으로 <위 룰>과 모든 면이 흡사하지만 광범한 한글 매뉴가 진입 장벽을 낮춘다. 후반 주자다운 신선한 아이디어도 눈에 띈다. 실제 비가 내리는 지역에 있다면 항상 구름에서 비가 쏟아져 땅이 비옥해지는 강수 시스템, 완성된 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있으면 친구가 훔쳐갈 수 있는 사리 시스템(훔친 작물은 보상이 1~5배가 넘는다. 덕분에 진 영영 게임에 범칙점의 등급 따지자.) 등 독자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남의 것 가져다가 살아가는 건 참 잘하지

스머프 빌리지



"라벨라 라벨라 팔라라팔라~" <위 룰>에 스머프를 결합해 리얼리티에 성공했다. 특히 파파 스머프가 퀘스트를 안겨준다던지, 풀들이 스머프가 죽은 작물을 심고 디자이너 스머프가 오자를 제작해서 스머프들을 꾸민다는 설정은 캐릭터를 잘 살린 예다. 다양한 미니게임이 마련되어 낚시, 뱀 경기, 포션 제조, 세일 공부처럼 혼자 놀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그 중의 백미는 역시 레타나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십분 살린 인플레이션 시스템의 동화적 그래픽 식상하지만 정말 동화책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해상도를 자랑한다. 아오, 귀여워

한국 드디어 게임 카테고리 개편!

11월 29일 드디어 모든 디어 활용성 값이든 게임 카테고리다 한국 스토어에 등장했다. 이제 게임 받으려고 다른 나라 계정 왔다 갔다 하던 게도 생소하다. 진짜 해주지



장진의 리턴 투 햄릿



연극열전이 뒀다! 장진이 뒀다!

2011년 12월! 햄릿으로 대학로가 발칵 뒤집어진다!

가장 재미있는 햄릿(?)으로 돌아온

〈리턴 투 햄릿, Return to Hamlet〉 **Coming Soon!**

프리뷰할인 **30%** | 12/9-12/16 공연 인터넷 예매 시, 회당/등급별 40매 한정

〈연극열전4〉 첫 번째 작품 Return to Hamlet

2011. 12. 9 (금) OPEN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작·연출 장진

제작 문화창작집단 수다 ☎ 연극열전 |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www.thetheatreplay.co.kr 문의 02-766-6007



R A T E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미션
임파서블의
역사



흥이 요즘 사는 게 좀 심심해

그 동안의 개고생 리스트 <

미션 임파서블 1



미슬러

시작하자마자 동료 다 죽고 홀로 고분고분, 확끈 하게 총으로 다 쫓아 죽이는 다른 시리즈와 달리 근 에 매달려 담방을 하나 옮길까 봐 달달 떨어야만 했다. 마지막에는 300km/h로 달리는 테레비 지 붕에서 벌칙 바람을 능가하는 풍금과 싸워야 했 으며 달리는 기차에서 헬리콥터를 폭발폭작 뛰어 다니는 등 생고생을 했다. 하지만 젊어 고생은 사 서도 한다고,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젊나가는 협 보 무비 시리즈물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서 자 가가 내서 제작도 하고 막 그린다.

미션 임파서블 2



어머니

시작하자마자 그 유명한 고공 양벽 등반 장면이 나온다. 이거 다 스텐트 없이 튜 형 스스로 한 거 다. 저 거대한 밑걸음 보라 옆에서 지켜보던 우 위앵(오우삼) 감독이 팬티를 여러 번 갈아 입어야 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왜 거기까지 올라갔어 야 했는지는 의문. 마지막 장면에서도 트라이업 프 스피드 트리플을 타고 총알 피하기 볼 구멍이 통과하기 등 동춘 서커스단 땀마구 날리는 묘기 대행진을 선보이며 미션 임파서블 팬들의 가슴에 직접 대못을 꽂아 넣었다.

미션 임파서블 3



호모

시작하자마자 고층 빌딩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해 든다. 아무래도 형님은 높은 곳에 있을 때 오르가 슴을 느끼는 아르코필리아 기질이 다분하신 듯. 그러지 않고서야 시리즈 내내 인위 무서운 장면 을 직접 할 리가 없잖아? 젊은 다리 위에서 무인 목적기와 사무를 밟이는 장면도 개고생 베스트로 꼽을 만하다. 하다 하다 이제 사람도 야고 기계 한테 이렇게 질리다. 특히 옆에 세워진 차에 매 다 갖히는 폭발 신이 인상적. 이 액션 시리즈는 국 내 드라마(이태원)가 소박하게 모방하기도 했다.

개고생의 아이콘 툼 크루즈

잘나도 고생이지. 맨날 뻥센 임무만
나한테 맡겨 아이! by 송승환

동 형이 또다시 새로운 개고생 미션을 들고 돌아온다. 불가능한 임무 그 네 번째 이야기다. 러시아 크렘린 궁 폭발 테러 사건에 연루된 IMF (Impossible Mission Force, 니가 생각한 그 IMF는 아니야) 국가적 분령을 피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IMF 조직에 대해 '고스트 프로토콜(조직의 정체와 목적 등의 기록을 색 지워버리고 재돌 모래는 애들이라고, 오리발 내밀기 위한 절차)을 발동한다. 출자에 국제 테러리스트가 된 이단 헌트(툼 크루즈)는 자신과 조직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반 강제 로 목숨을 담보로 한 작전에 뛰어든다.

하지만 이단 헌트가 아닌 톰 형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반기는 모양이다. 요즘 애 키우고 사는 게 좀 심심했는지 레드볼 레이스 팀과 함께 더 미션도 막 몰아보고 헬기 타고 360도 인사이드 다른 회전 에 도전하는 등 아무 데나 목숨을 걸고 다녔는데 이제 영화에서까지 더욱 정신 나간 액션에 도전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중 압권은 단연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건물에서의 와이 어 액션 씬! 대역 없이 직접 828m의 마천루에 매달리고는 좋다고 까르르 웃었다는데... 수리 아빠, 팔레미 두고 어디 가려고 그러시냐.



LAYERED UP & DOWN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타임토피아 www.timetopia.co.kr

[백화점]
 중계 2001아울렛 02)3399-8222, 아람 NC백화점 031)701-6841, 분당 2001아울렛 031)786-1808, 수원 AK PLAZA 031)240-2193, 일산 뉴코아백화점 031)900-5162,
 대전 세이백화점 042)257-7745, 천안 신세계백화점 041)640-5081, 광주 신세계백화점 062)360-1934, 대구 태백백화점 053)254-3977, 울산 뉴코아백화점 052)210-4010,

[서울] 드와치 02)2200-1355, 로만스 02)455-6841, 사포 02)463-9788, 시계독립 02)6282-2777, 워치북 070)4136-5090, 이와치 명품 02)771-7033, 이와치 종로 02)722-1673,
 창우상사 02)3424-0794, 타임21 02)3424-7063, 타임가는 02)324-6272, 타임메인 02)6388-2927, 타임시모 02)6373-7743, 타임월드 02)3132-4108, 패션존 02)3398-7527,
 [경기] 대성 032)325-7467, 핑키편 032)626-0686, 새문뉴얼리 031)463-9788, 유빈 031)698-6883, 크로왕스 02)2067-8808, 타임루트 031)487-9057, 탑타임 031)413-7656,
 티파니 031)441-0158, [인천] 카시오포유 032)502-7138, [광주] 보보스워치 010-5434-5915, [광주] 월드메니아 062)410-0138, 타임엔젤포 062)222-3114, 타임파티 062)226-0305,
 [대구] 골드&워치 053)424-4442, 공주나라 053)256-0975, 레프 053)425-0157, 스위스 053)639-5252, 휴얼리아 053)429-2668, 해피타임 053)428-3086,
 [김해] 시계백화점 050)337-9166, [부산] 명성 광복점 051)259-5315, 명성 남포점 051)253-5334, 명성 서면점 051)667-7356, 명성 신항점 051)243-5354, 서울시계 051)245-0625,
 와블 051)919-4704, 월드타임 051)245-8359,



이모도 여자다!

내성 만능인 어린이들보다 훨씬 솔직하고
도발적인 이모들의 사랑이 스크린을 달군다. **BY 송충민**

RATED

FILM

사물의 비밀



완벽한 파트너

한 십 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왜 벌써 사십이냐고!

해정장서씨는 불륜에 관한 논문을 준비 중인 사회학과 교수다. 말 안 듣는 남편 때문에 아주 딱 처 있는데 취재자 만만 연상연하 불륜 커플은 듣는 사람까지 달아오르게 할 정도로 생생한 섹스 이야기를 들려준다. 만만하게도 하릴 그녀의 옆에는 얼마 전 조수로 클리닉에 온 우성정씨(김민)가 있다. 그런데 이 청년 너무 훤하다. 집에 들어와서 라면 먹고 가려고 이성에 흥분을 내다보니 점점 마음이 무너져 간다. 일곱달쯤 소꿉놀이까지 하더니 밥 아예 데리고 살고 싶어한다. 못 이기는 척 남아가고 싶은데 우성은 해정에게 너무 께뚱하고 그렇게 예의 바를 수가 없다. 그래서 더 미치겠다. 그림의 떡이 이런 걸까. 딱...

그녀의 고안 해결! MAXIM식 데이트 코치

1. 체면이 있지 어떻게 교수가 학생을...

자적인 여성살수록 원 나이트 스탠드에 관해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자신을 예뻐 여자로 보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니? 왜냐하면 교수님 체면 걱정 마시고 오늘밤 즐기세요!

2. 19년의 니나야, 나 같은 여자들 원할까?

그는 여자 한 번 더 하려고 매달리는 그는 여자 안 먹는 남자의 습성을 이용하자. 경향이 적은 어린 남자일수록 유혹에 약하다. 하지만 남자 화장실에 청소 아줌마 드나들듯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미성년자 간혹엔 똑같이 잘하기도.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인데?

‘나?’가? 감하? 나물?

벌써 7년이 넘도록 레시미를 우려먹고만 있다는 평가에 요리 연구가 희숙(김혜선)은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런 희숙 밑으로 칠성진(보조) 요리사 민수가 나타난다. 새로운 아이디어에는 연애가 최고라는 지인들의 충고에 더욱 마음이 뒤숭숭한 희숙. 하지만 이런 풋내기한테 자질 내어주는데는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 하지만 그런 이모도 참사! 발상을 마치고 이른 다리를 주물러 달려면서 술취 민수를 유혹하는 희숙. 그런데 이 날자 망설이는 것 같더니 희숙의 다리를 이곳까지 주물러가 시작한다! 발 마사지는 섹스를 부르는 나쁜한 유혹이다. 나. 오렌탈에 느껴보는 젊은 남자의 손길에 다리가 아. 나. 아. 올 전체를 내주게 된다. 그 때부터 둘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방송국 대기실에서부터 요리 학원까지 장소와 도구를 충동원한 발칙한 섹스가 시작된다.

그녀를 위한 MAXIM식 데이트 코치!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어린 부하 직원과 몸을 섞을 수 있나. 완벽한 섹스를 위해서는 긴장을 푸는 것이 그 시작! 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원성이야. 부하 직원과의 섹스는 평소와 낮게만 했던 사립에게 몸의 깊숙한 곳을 침범당한다는 수치심을 더해 더욱 자극적이라는 선구자?들의 중언이 있다. 또한 오르지 못한 나무인 직방 상사의 뺨을 무너뜨렸다는 청복옥과 지배옥이 부하 직원의 만족감을 물어준다고 한다.



아 맛있어 짝!

올해 신타는 안오나?



1. 탄탄·유니콘호의 비밀

어디엔처의 원류라 하면 흔히 (앤디 아나 존스)를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탱탱 또는 탄탄이라 불리던 소년이나 이쪽은 꼭 잡고 있었다. 1829년부터 연애하기 시작한 이 프랑스 만화는 20세기 로망의 백과사전. 어디엔처의 정석이라 불리며 존스 바사의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원작 만화의 귀여운 그림체가 사라지고 말뿐만 3D그래피에 된 것은 좀 그렇지만 스페인과의 어디엔처 다루는 송미만 여전하다! 12월 12일 개봉



2. 불리츠

2형님 요즘 참 다작이다. 앤엔로지 한탄-휘둘레! 맥 사출 돈이 모자라신가? 아무도 빌자!는 이미 후기 수준인데 그 이번엔 복수심에 불타는 격한 형사로 분했다. 경찰들을 대상으로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범인에게 절친한 신배가 살해당하자 그가 나선다. 나가 그렇게 꼭 독해? 나. 머리가 내 빌자보다 빠르나? 12월 8일 개봉



3. 특수본

덜고 달은 신배 형사와 잘 배운 유학파 후원이 만난다. 티격태격 하며 친해질수록 원래 친했던 동료들이 싸늘한 눈길을 보내며 수상쩍은 행동을 한다. 아무런 눈치 없는 사립이라도 대응 무슨 내용이니? 일겠지? 형사 버디 무비히 ABC를 따르는 스토리는 차별화보다는 검증된 재미를 택했다. 양태웅이 안성기 역할을, 주연이 박종훈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나의 문제이다. 11월 24일 개봉

여기 선배들이 계시네



바람난 가족/ 문소리
이 안에 뭐 있지 궁금하냐?



말썹거리 잔혹사/ 김부선
떡볶이집 아줌마 설화 현장 로봇.



더 리더/ 케이트 윈슬렛
책보다 서로의 몸에 더 관심이...

창작뮤지컬

Miracle

미라클



"커다란 우주속에서,
영원의 시간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것..."

OPEN RUN 작/연출 김태린 | 제작 PAMA프로덕션

대학로 미라클씨어터 1관

평일 8시 | 토 일,공휴일 4시, 7시 (발심)

일반 30,000원 대학생 25,000원 청소년 20,000원

문의 PAMA 프로덕션 02.742.7261/2 |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코미디 엘 클라시코 레알 코미디리드 VS 개그셀로나

갈렉티코 버금가는 멤버를 영입한 <코미디빅리그>와 정통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한판 승부 자, 싸워라 박한영이리



RATED

TV



tvN 코미디빅리그 토요일 밤 9시

상금 1억 원을 놓고 벌이는 초호화 개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KBS 개그콘서트 일요일 밤 9시

1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 프로그램

꽃보다 개그

이 외모로 웃기엔 너무 아깝잖아!



김희한

실시간 검색어 '김희한 몸매'가 늘 만큼 <개그콘서트> '최종영이 그녀'에서 발군의 볼륨감을 보여준다. 노래도 잘하고 웃는 모습도 예뻐지만, 같은 매력은 죄다 도도하고 싸가지 없는 비호감 역할이라 안타깝다. 이런 거 못하~도 해!



백보람

동료 개그맨 김재우와의 요란한 연애와 결백에도 불구하고 얼굴, 키, 몸매, 백치미 4박자를 고루 갖춰 여전히 탐나는 여인. 소름돋는도 반창고도 화보도 찍고 웃기는 것 빼고는 다 잘된다.



김지민

다시인사이드 '미녀 개그우먼' 투표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대표 열망 개그우먼 <개그콘서트> '9시통 뉴스'에서 무심한 기자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는 꽤나 똑똑하다고. 유상무상무 형은 잘 재해하?

기막힌 서커스

황우석 박사의 코요태 복제를 비롯기로도 하듯 개그계의 개세, 빙어달의 빙탕에 이어 시조새+부엉이의 시부엉새까지 등장한다. 방송 수위를 넘나드는 동물 개그로 매주 헤드트릭을 기록하고 있다. 뱀속까지 개그맨인 수컷들이 십 년 동안 호흡을 맞춰왔으니, 아마 시부엉이 이질 수가 없잖아.



공격진

이재남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코너를 히트 친 최효중은 이번 시즌 독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CF도 꽤 찍었고 잘나가기로는 매시 뺨을 돌려쳤다. 하지만 여성팬을 공략한 여성지지 개그에 전국의 수컷들이 집단봉기를 일으켰으니, 앞으로는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강창치에게도 꿀 넣을 기회를 주면 말이에요!



WIN!

미드윙다친

사마귀 유치원

<개그콘서트>의 해리는 네 명의 마귀 선생님들이 알고 있다. 사마귀 체조를 추는 사마귀, 진로 상담 선생님 일수꾼, 동화 선생님 생갈, 바른 생활 선생님 쓰리개가 증원에서 뺨뺨 찰라준다. 특점왕 출신 최효중의 감각이 돋보이는 팀이었지만, '허버드 FC'에게 심하게 태클 당한 뒤로 재할 훈련에 들어갔다.

볼가봉가 체조를 배워볼까요?



내겐 너무 박한 그녀

블로그나 미소지나도 어디까지 안올릴 캐릭터인데도, 간디작살 김꽃두레가 너무 센 개그를 구사해 기선을 제압한다. '분장실의 강선생님'의 꿀물 웃게 캐릭터를 어찌 그걸 잡아왔는지 안영미가 앙아지 같이 웃을 때마다 소름이 쭈뼛쭈뼛 돋는다. 아~ 안영미 미든나 웃겨, 즐리 재웠어.

할리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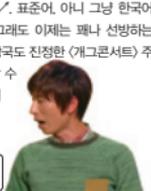
WIN!

수비진

서울 메이트

상국이, 경환이, 오래 기다렸나!.. 표준어, 아니 그냥 한국어 자체가 버거운 선수들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꽤나 신빙하는 개그맨이 되었기에 허경환, 양상국도 진정한 <개그콘서트> 주전선수로 자리매김 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지 배제하지 않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지.

이거 확히 공리들 꼭~ 치베까?



관객모독

<웃찾사> '이건 아니잖아' 예제형, 이상준 콤비에 새 멤버 문규박과 매주마다 축색에서 관객 중 한 명을 송살성 역할로 투입, 탄탄한 콤비를 구성했다. 가끔 송살성이 돌발 상황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이것까지 치밀하게 계산한 이상준의 에드러브가 돋보인다.

MAXIM 경이 무뎌 안됐다 싶으면 손 뭉개!



털리그 우승

존나 웃겨

WIN!



외이소 시리아스?



오빠, 나 열나는 것 같아.

이제 스마트폰이 건강도 챙겨주는 세상 BY 최홍민

Editor's Rating 얼마나 유용한 앱인지 보자

1 마이닥터

인터넷 병원 커뮤니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방대한 의학 정보를 얻고 교류할 수 있는 앱. 먼저 자가 진단 기능을 통해 내가 병신은 아닌지 테스트해볼 수 있다. 여기서 찾은 자신의 병명을 의학 책과 사전에서 검색해볼 수도 있고 메디톡이라는 게시판에서 내가 병신임을 민천천에 알릴 수도 있다. 부끄러우면 전문가 상담 게시판에 시연을 올리고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자. 메인 기능은 사람들의 평가가 좋은 병원을 찾아주는 추천 병원 메뉴. 별점과 20차 평으로 주변 병원의 평판을 파악할 수 있어서 병원 선택에 큰 도움이 된다. 가독이나 이른대 재수없게 끝낸 간호사나 의사 때문에 뼈있는 경험이 있다면 분노의 별점으로 응징해주자.

3 입체 가상 성형

성형 수술이 보편화 되면서 나도 예뻐질 수 있으니까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성형 수술이 무슨 신데렐라 미법도 아니고 수술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때 미리 바뀐 내 모습을 볼 수 있다거나, 그럴 듯하게 아이작하지만 사실이 앱의 수준은 증명사진 위에 투명 필름처럼 대고 사진만으로 각종 헤어스타일을 그려보던 여중생 시절의 경험과 별 다를 게 없다. 그렇지만 친구들과 서로의 얼굴을 바꿔보며 깔깔대기에는 최고 오직 여성 얼굴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자가 사용하면 트랜스젠더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뭐야, 더 흥미로운데!

2 KIMS Mobile Lite

알록달록 참 많이도 왔네, 근대 내가 먹는 약이 대체 뭐시여? 약동지를 뜯고 알약을 입안에 넣어 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앱이 참 번가울 것이다. 약에 쓰여있는 영문 이나설과 약의 모양과 색상을 입력하면 네 벅속으로 들어가는 약이 대체 뭔지 검색해 준다. 약의 이름과 제조사, 성분 분석은 물론 효능과 사용법, 복약 시 주의할 점등을 알차게 전해준다. 이제 알고 먹자 하지만 아쉽게도 이 서비스는 2012년부터 기간별 회원 가입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돈이 아깝다면 미리 처방전을 보고 약 이름을 메모해 줬다가 (드래킹) 앱을 사용해서 무료로 비슷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참고!

4 탈모 확률 계산기

"아니 이 보시요 의사 양반.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대머리가 된다고? 이하늘이 된다 이 말인가?" 2세대 남성 최대의 공포 중 하나인 탈모. 머리를 감을 때마다 용형용형 빠져가는 머리카락과 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당신의 민머리에 공포를 느끼기 전에 당신의 생활 습관부터 체크해 보자. 15문항의 질문을 통해 당신의 탈모 가능성이 계산해 준다. 물론 어디까지나 통계학적 데이터라서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자유. 그러나 벗겨지기 시작하면 때는 늦으니.

정력이 넘쳐서 그려 정력이!



Editor Says

마이닥터 이제 배탈 나서 새벽야보고 했는데 배탈. 체중 뭐 이만 걸로 검색 안 된. 도움이 왜 안 돼서 1점

KIMS Mobile Lite 속 쓰러서 약 지어 왔는데 다 읽어 못하네. 신동왕후 하하

Editor Says

입체 가상 성형 위험적인 도움 보다는 순수하게 재미로 점 중다

탈모 확률 계산기 사실 그냥 막 봐도 이게 뭐에 좋을까 안 좋을까는 나도 모르는 수준의 질문

Dr. Alcohol 바비빌의 새 앨범

뮤직 칼럼을 담당하고 있는 정바비가 바비빌 2집을 내놓았다. 원래 뮤지션이 아니라, 그가 들려주는 컨트리 음악을 감상할 준비는 됐나? **BY 정바비**



┌ 차젠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난날 음악 원고를 쉬었다. 한국형 컨트리
└ 뮤직 프로젝트인 바비빌의 2집 앨범 작업으로 정성없이 바빠 MAXIM 편집부의 이해를 받아 한 번 건너뛰기로 한 것이다. 한 회 쉬었으니 더 양질의 원고로 보답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바로 그 바비빌의 앨범에 대해 쓰게 되었다. 팔뚝을 길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낯설기만 한 컨트리 음악에 대해 더욱 잘 소개하고픈 욕심이니 이해하길 바란다. 지난 10월 30일 홍대 앞 스트레인지 프루트에서 필자(정바비)의 진행으로, 소속사인 비트볼 뮤직의 이봉수 대표와 공동 프로듀서인 전천후 기타리스트 김규하가 함께 했던 바비빌의 새 앨범 <Dr. Alcohol>의 청취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정바비: 먼저 컨트리 음반을 기획해서 발매하게 된 과정을 한 번 짚어주시죠.

이봉수: 비트볼이라는 레이블은 맨 처음 70년대 미국 컨트리 음반을 비롯한 소위 미국의 루츠 뮤직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음악이 우리나라에선 잘 안 먹히니까 좀 더 록(rock)적인 색채를 지닌 팀들과 같이 하러던 차에 당시 모던록 밴드로 활동하던 바비를 만났어요. 마침 바비도 컨트리 음악을 저희와 하고 싶어 했어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2005년에 바비빌 1집을 발매했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반응이 시원찮았죠(웃음). 그래서 바비가 컨트리 얘기를 다시 안 꺼내겠지 했는데 직전에 '가을방학'이란 팝 음반으로 대성공을 거둔 후에(웃음) 다시 또 이런 음악에 대한 갈증을 느꼈는 지 새 앨범을 내자고 제안하더군요. 그래서 "좋다. 성공은 다른 쪽에서 하고(웃음) 컨트리는 우리가 리얼하게 하자" 라고 했죠.

정바비: 사실 음반사의 대표이니만큼 상업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이런 모습들

보면 아직도 순수하진 것 같아요. 비트볼 뮤직 사무실에 액자로 시선을 끌여놨는데 거기에 '일보다 낭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봉수: 어, 그 액자는 없던 지 오래됐는데(웃음).

정바비: (웃음) '잡담'은 해석적인 슬러이드 주법의 기타 연주가 특히 인상적이랄 텐데요. 이번 앨범에선 제가 노래는 물론 기타 연주도 거의 안 했어요.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한 (김)규하 형이 대부분 기타를 맡아 주셨는데, 이분의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컨트리 기타의 맛을 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김규하: 제가 기타를 치기 시작한 게 1979년이에요. 처음에는 어울리지 않게 클래식 피아노를 쳤어요. 체르니 30~1번까지 쳤습니다(웃음). 그런데 어린 나이에든 악보대로 똑같이 쳐야 된다는 게 어쩐지 싫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는 안 치고 집에 있는 테니스 라켓으로 기타 치는 흉내를 내고 있었니까 부모님이 기타를 사주셨죠. 그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셨을거예요(웃음). 특별히 기타를



일과를 맞 나는 바비와의 음악이 궁금하다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채워달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장바비: (스타벅스에서 오백 개 잔을 외치다)는 제 오랜 친구 이원영 군에게서 영감을 받은 곡이에요. 이원영의 캐릭터는 이래요. 예전에 제가 원영이네 놀러 갔다가 책상 사람들 열었다니 빈 소주병들이 굴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아 왜 서랍에 빈 소주병이 들어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럼 그게 아직까지 차 있었잖아?"라고 말해서 경악했죠(웃음). 그런 원영 군과 그 웃지않은 슬고래 후배 박세희 군과 같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봉수: 처음 바비가 앨범을 제안했을 때는 4곡짜리 미니 앨범이었어요. 그때 준비된 곡이 (장바비)이 나 (스타벅스에서...) 같은 노래들이었죠. 당시 저희가 준비했던 게 비트부터 초창기에 기획한 음반 중 전 세계 최초로 재발매된 마이크 얼드리지 (Mike Aldridge)의 솔로 음반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도브로(dobro)링 스틸 기타 연주로 그레이트싱도 받은 팔순 노인인데, 연주가 기가 막혀요. 한국 레이블에서 자기 앨범을 내주고 하니까 고마워서 바비님이 앨범 만들면 도와주기로 약속 했던 거죠.

장바비: 그래서 그분한테 연주를 받아서 4곡 짜리 미니 앨범을 하기로 정하고 시작했는데 이분이 미국 노인이다 보니 시간관념이 완전히 우리랑 달라

요. 처음에 데모 파일을 보내주고서 일주일 만에 답장이 왔길래 '아니 벌써 연주를 보내주셨냐'하고 보니 첨부파일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웃음). 결국 그분한테 스틸 기타 연주를 받는데 고박 3달이 걸렸죠. 아, 이걸 정말 컨트롤스럽대(웃음). 그 사이에 제가 곡들을 좀 더 썼고 아예 그냥 10곡짜리 정규 앨범으로 돌리자. 이렇게 된 거죠.

이봉수: 사실 제작하는 입장에서 미니 앨범은 수익이 안 나는 모델이라 정규 앨범으로 바꾸는데 찬성이었어요. 바비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새들 캣츠(Saddle Cats)라는 웨스턴 스윙 밴드를 설립하고, 공동 프로듀서로 김규하 씨도 모시고 하면서 지금과 같은 앨범의 모양새가 된 거죠.

장바비: 정규 앨범으로 하기로 하고 쪽 데모를 듣다 보니 '어 정규 2집치고는 솔 노래가 너무 적네. 바비발답지 않다고 생각해서(웃음) 바로 그 자리에서 쓰게 된 노래가 타이틀 곡인 (술박사)예요. (난 내 네 애인인 줄 알았어)는 제가 처음에 썼을 때는 곡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규하 형이 기타를 새로 치면서 곡 느낌이 확 바뀌었 거예요.

김규하: 이번 앨범에 스틸 기타 연주로 참여한 분이 두 분이예요. 한 분은 아까 말한 마이크 얼드리지, 그리고 바비 블랙(Bobby Black)이란 분이죠. 각각 블루그래스와 웨스턴 스윙이란 하위 장르를 연주하는 분들이예요. 그중 웨스턴 스윙은 뿌리를 거슬러 미국 30년대 스윙 재즈의 요소가 컨트리

와 섞이면서 만들어진 음악이고요. (난 내 네.)는 바비 블랙의 연주가 들어가면서 웨스턴 스윙 느낌이 많이 강조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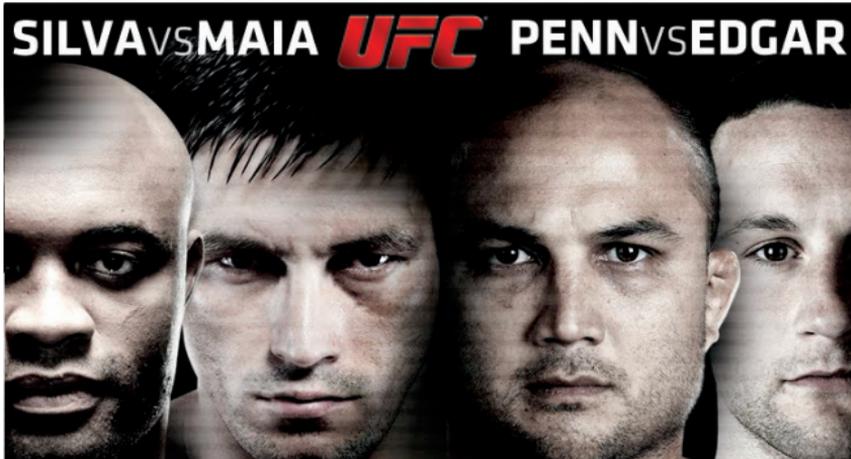
장바비: 이번 앨범에 (스타벅스...)와 (난 내 네...) 두 곡을 가라오게 버전으로 수록했는데요. 꼭 반주 삼아 노래를 부르시라는 뜻 이라기보다는(웃음) 마이크 얼드리지와 바비 블랙 두 가지 서로 다른 스타일의 스틸 기타 연주를 보낼 일이 좀 더 명확히 들어보시라는 의도도 있었던 거죠.

이봉수: 제가 좋아했던 연주자의 음반을 내면서 이쪽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번 음반으로 다시 한 번 음악 듣는 즐거움을 재발견할 수 있었어요. 컨트리 음악은 일상, 생활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화초 기우고 전산술에 맞힌 빗방울 사친 울리고 그런 것만 일상이 아니라(웃음). 바람 피우고 싶때고 고 짚는 이런 우리 삶 그 자체가 컨트리이거든요. 그런 걸 가려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컨트리라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HISTORY OF UFC #1

UFC가 FOX TV로 미국 전역에 경기를 중계한 지난 11월 13일은 UFC가 탄생한 지 만으로 18년이 되던 날이었다. 199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UFC의 역사를 이끌어온 선수들과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1단 발사 **BY** 격투 전문 칼럼니스트 이종수



무술의 기원

무술은 전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안됐다. 싸움터에서 난전을 벌이면 무기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비무장 상태에서 적을 처치 하고 중요한 적군을 생포하려면 맨손 격투 기법이 필수였다. 전쟁의 보조 기술이 아닌 양상과 자기 방어를 위한 무술은 소림사가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소림사를 창건한 달마조사는 AD 5세기 말경 친척(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왔다. 중국 선 종의 시조인 그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적을 물리치는 무술을 승려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쳤다.

유파 대항전의 시대

시카이 호르메 세계 각지에는 다양한 맨손 격투술이 발전했다. 모든 문파가 최강을 지향했고, 그것의 주인은 하나인데 모든 유파가 자신이 최고임을 주장했으니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자연스럽 게 대항전이 탄생했다. 대한 무예총서에서도 1919년 일제 치하의 서울에서 일본의 유도기와 인도 복서가 중로 한복판에서 대결을 펼쳤다는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을 언급한다. 1963년에는 미국에서 유도 선수 출신인 진 르벨이 미들급 복서 밀로 세비지와 격돌하는 장면이 TV로 중계됐다.

브라질의 발리류도

대중의 호기심을 끌여주기 위해 전혀 상관 없는 종목끼리 타류 시합을 펼친 것과 달리 '뽕'비의 나라 브라질에서는 아예 문파 간의 무규칙 격투가 '발리류도'라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했다. 일본에서 전파된 유술과 가라테, 태국으로부터 유입된 무에타이 등의 무술이 '자유분방한 사람이 사는 나라=브라질'이라는 토양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레이시 일족의 전설이 탄생한다. 수장 엘리오 그레이시와 히스 그레이시를 비롯한 엘리오의 아들들이 발리류도에서 무적의 포스를 뽐내었다.

그레이시 유술의 시대

1993년에 열린 UFC1은 그레이시 가문의 강령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당시는 사실상 문파 간의 대항전이었고 (불과 77kg에 불과하고) 호이스 그레이시가 UFC 토너먼트를 연이어 질러삼키면서 초창기 UFC에서는 그레이시 유술(주짓수)이 단일 무술로는 실전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규칙과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채 격돌했던 것이 초기의 UFC였음에도 선수들이 하나의 무술만 가지고 살아 남기가 무리임을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종합격투기의 3요소

종합격투기는 크게 타격과 그라운드 그리고 트랜지션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타격은 펀치, 킥, 무릎과 팔꿈치로 상대를 때리는 방식으로 무에타이나 킥복싱, 복싱, 가라테 등의 수련자가 능숙하다. 그라운드는 바닥에서 상대를 때리거나 관절을 꺾고 목을 조르는 형태로 레슬러나 유도, 유술, 삼바스트 등의 그레플러가 장악한 영역. 트랜지션은 이 두 가지를 오가는 능력으로 상대를 넘어뜨려 그라운드로 끌고가거나 그 반대의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건데 아무래도 그레플러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모노로그 스타일의 선수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기에 그라운드 파이터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타격이란 타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타격가는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기가 힘들다. 하지만 우수한 트랜지션과 그라운드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타격가와 서서 싸우다가 일격에 경기를 내주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의 파이터들은 자신의 전문 영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당히 허술했다. 호이스 그레이시나 라이벌 겸 선택도 마찬가지였다.

하이브리드의 등장

1995년 UFC에서 마르코 후아스(브라질)가 등장했다. 뛰어난 유술가로 8명이 겨룬 토너먼트에서 1, 2라운드 모두 서브미션승을 따낸 그의 결승전 상대는 203cm의 키, 몸무게가 140kg이 넘는 폴 베일런스였다(후아스는 185cm, 92kg). 후아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로직으로 상대방의 다리에 충격을 누적시켰고, 경기 시작 13분 후 베일런스를 주저앉힌 후 파운딩으로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그는 그라운드가 강한 상대는 타격으로, 타격이 강한 상대는 그라운드로 요리하는 하이브리드적 방법을 UFC에 최초로 소개했다.

비운의 천재 비토 벨포토

1996년에 UFC에 진출한 비토 벨포토(브라질) 역시 양방향 대응이 가능한 선수였다. 유술이 매우 강력했지만 복싱과 가라테에도 일가견이 있었고 눈부신 속도로 뱅어니가는 레프트 스트레이트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다. 당시로서는 최강단의 경기력을 보유한 천재적인 선수였지만 그에게는 체력 문제가 있었고 잦은 부상에도 경기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능만큼 피어나지는 못했다. 결국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 되지만 내용이 개운하지 못했다. 사실 챔피언 자리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당시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삼록과 스미스의 상부상조 정신

그리고 이 선수, 본명은 프랭크 알리시노 후아레스 3세. 프랭크 삼록은 1994년 일본의 판크라스에서 프로 파이터로 데뷔했는데, 그의 특기는 레슬링과

서브미션이었다. 하지만 그는 판크라스에 바스 루텐이나 곤도 유키 같은 선수에게 타격으로 쓰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던 즈음 모리스 스미스라는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리복싱과 K-1 무대에서 활약했던 타격 전문가였다. 두 선수는 "올다구나!"를 외치며 서로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주고받았다. 그 덕분에 스미스는 그라운드에서 싸우는 방법을, 삼록은 타격에서의 정수를 얻었다.

챔피언 하이브리드의 약진

스미스는 97년 UFC 14에서 마크 콜먼을 꺾고 UFC 헤비급 챔피언 자리에 오른다. 콜먼의 태클에 스미스는 미친 듯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졌지만, 나름 잘 버텨하며 장기간을 펼쳤다. 결국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콜먼은 판정패로 타이틀을 내주었다. (스미스는 타이틀 방어전을 한 차례 성공시킨 후 랜디 커투어에게 벨트를 넘겨줬다) 프랭크 삼록도 UFC로 진출했다. UFC 재팬에서 그는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놓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잭슨과 대전했는데 경기는 삼록의 압박에 의한 초반 서브미션 승으로 성급게 끝났다.

일인자로 등극한 삼록

98년에 삼록은 이고르 지노비예프, '더 클래식' 제레미 존, 로버 등의 준수한 도전자들을 모두 KO와 서브미션으로 손을 보면서 3차 방어에 달성했다. 이듬해 99년 티토 오티즈가 삼록에게 도전했는데 키가 191cm로 삼록에 비해 13cm 더 컸다. 어마어마한 힘과 강력한 레슬링 능력을 갖춘 오티즈였지만 그가 삼록에 비해 우위에 있었던 것은 트랜지

션이 천부였다. 타격과 그라운드 기술이 우수했던 삼록은 기묘한 초크를 성공시키며 오티즈에게 항복을 받아냈고, 당시의 종합격투기 P4P 일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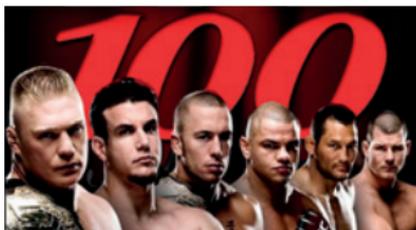
하이브리드의 정점 표도르

하이브리드의 정점을 찍은 선수는 2000년에 등장한 헤일리야넨코 표도르다. 삼보와 유도를 베이스로 종합격투기에 진출한 표도르는 그라운드 파이터였던 편향에도 소질이 있어 경기를 치를수록 타격도 빠른 속도로 향상됐다. 그에게는 두 명의 라이벌,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노타우루' 노게이라라는 압도적인 그라운드 파이터와 타격계 최강자였던 미르코 '크로에이션' 스탠셰비치 '크로코프'가 있었다. 하지만 표도르는 노게이라와 그라운드 싸움에서도, 크로코프와의 스탠딩 싸움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최강의 하이브리드 파이터

하이브리드 타이틀은 상대가 그라운드가 약하면 그라운드에서, 스탠딩이 약하면 스탠딩에서, 본인이 원하는 국면에서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표도르는 트랜지션에 약점이 있어 히라토도 아로나, 마크 콜먼, 케빈 랜들만 같은 뛰어난 힘과 레슬링을 가진 선수를 만나면 고전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천성기의 표도르는 노게이라를 그라운드에서 격고, 크로코프와의 스탠딩 싸움에서도 이길 만큼 가장 완성도 높은 하이브리드 파이터였다. 🏆

To Be Continued //



SMOKE&DRINK

맥주의 역사: 총정리편

그동안 알뜰했던 맥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중세 유럽 역사까지 살살이 살펴보시느라 육뻘뻘. 이번 호에서는 지금까지 연재한 것을 복습하겠다. 소재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

한 이윤복 (서울대학교사범대학 / www.webeer.co.kr)

오늘 제일 잘 나오는 맥주는?



음, 산타가 사랑 참대야!

마시는 건 쉬워도 깊이 알아가기란 쉽지 않은 맥주. 하지만 아는 만큼 더 맛있어진다.

사실 고대나 중세시대의 맥주 이야기는 지금의 현실과는 다른 데다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한 해가 지루는 12월이니만큼 지금까지 연재한 맥주 역사 칼럼을 최종 정리하며, 맥주의 기원부터 중세 유럽 맥주가 꽃 필 무렵까지의 역사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다. 함께 맥주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해보자. 1년간 피 마신 맥주잔 수를 정리하는 것보다 쉬울 테니 믿고 따라와.

앞서 언급했던 맥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술이며 지금까지 가장 널리 소비되고 있는 음료 중 하나다. 맥주가 곡물을 원료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맥주의 기원은 인류가 한양에 정착해 농사를 짓기 시작한 농경 시대부터 비롯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대를 말하기가 힘들다. 현존하는 기록에 따르면 BC 4000년경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한 수메르인의 유적에서 맥주 양조법이 그려진 점토벽이 발견되었다. 이는 최초로 맥주를 빚어서 마신 민족이 수메르인이라는 사

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자료다. 역사적으로는 BC 42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보리가 재배되면서 인류의 맥주 시음이 시작되었다고 추측된다.

다른 기록으로는 현재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다. 총 282조로 된 함무라비 법전 속에는 맥주와 맥주 가게에 관한 법률이 4개 조항이나 들어 있어 흥미롭다. 고주양태 플라쿠타에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별로 없는 모양이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맥주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우수한 품질로 업그레이드된다. 하지만 흙 재배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중세 초기에는 맥주에 독특한 맛과 향을 더하고 경우에 따라 특별한 색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향초와 약초의 조합물인 '그루트(Gruit)' 야생 허브를 일컫는 단이(를 첨가해 맥주를 제조했다. 그루트로 만든 맥주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대략 15세기 무렵까지 만들어졌다.

중세 후기에 비로소 맥주에 홉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 덕에 맥주는 폭넓게 대중화되면서 품질 또한 향상되었다. 물론 홉 대신 다른 허브를 쓰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오늘날에도 스코틀랜드의 에디 에일 맥주나 프랑스의 세르부아즈 황셀로는 홉 대신 다른 식물들로 맥주 맛을 낸다.

이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도시가 발전하고 길드 제도가 정착하면서 맥주 양조는 수도원에서 점차 시민에게로 이동되어갔다. 이 무렵에는 맥주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과 연구도 일어났다. 맥주의 부패를 막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성분인 홉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홉은 맥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료가 되었다.

품질이 안정된 맥주가 대량으로 생산·소비되는 맥주의 근대화는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됐다. 산업혁명 이전의 맥주는 소규모 지역 단위로 양조되었지만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맥주 생산은 장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량생산 형태로 바뀌어갔다. 프랑스의 루이 파스퇴르가 저온 살균법을 발견, 효모를 제거해 맥주의 장기 보관을 가능하게 했고, 증기기관을 이용한 대량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양조 기술 확립 등 획기적이고 새로운 방법들을 발명해 오늘날의 맥주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된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이렇게 지린 맥주가 유럽 곳곳에서 어떻게 꽃피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그 때까지 한 해의 마무리를 시뮬한 맥주와 함께

맥주순수령 순수해질 테!



독일의 빌헬름 4세는 1569년 맥주 원료 통일과 품질 향상을 위해 맥주브리, 홉, 물 외에는 어떠한 원료도 맥주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맥주순수령'을 공포한다. 그때에 독일 맥주나 세계 시장을 주도하게 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독일에는 지금까지도 이를 엄격하게 지킨다.

6개월 정기구독 정가 ~~32,400원~~ ▶ **할인가 29,400원**

3천원 할인
1000원 적립

12개월 정기구독 정가 ~~64,800원~~ ▶ **할인가 57,800원**

7천원 할인
2000원 적립

24개월 정기구독 정가 ~~129,600원~~ ▶ **할인가 114,600원**

1만5천원 할인
4000원 적립

36개월 정기구독 정가 ~~194,400원~~ ▶ **할인가 164,400원**

3만원 할인
6000원 적립

48개월 정기구독 정가 ~~259,200원~~ ▶ **할인가 209,200원**

5만원 할인
8000원 적립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바쁘다, 바빠!



사은품 확인
하러 가기



시세이도 우노 화이바 네오왁스 시리즈



슈가포인트 링딩통 양면베니



클레어스 달팽이 세안제 루마카



소유 스킨 순수 남성 청결제
쓰플린 클렌저



과월호 1년 패키지 [1~12호]

MAXIM DECEMBER 2011

정기 구독 신청 안내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2. 무통장 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액=1원)



MAXIM 패밀리로
풀어 봐

하드 필터 삼각편대

골편 담배이지만 마치 피이프에 끼워서 문 듯 단단한 느낌의 하드 필터 담배 3종을 소개한다.

하드 필터1 RAISON FEVER^{NEW FACE}

레옹이 친한 맛과 하드 필터를 탑재하고 등장했다.

하드 필터 삼각편의 구도를 완성한 레종 파버의 필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점선 처리가 되어 있다. 간혹 필터를 하나 뜯어낼 수 있게 되어 있는 2단 필터도 있지만 레종 파버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출장을 데 없는 맛의 6mg 고틀로 담배이나 필터를 굳이 변신시켜서 더 독하게 만들지는 않아도 될 듯하다.

하드 필터는 고틀로 담배에서 그 진가를 발한다. 보통, 담배 한 대를 피우는 시간을 잴 때 자타르 담배를 좀 더 빨리 피워버리고, 고틀로 담배는 비교적 천천히 피운다. 즉 오래 물고 피우는 고틀로 담배야말로 필터가 끝까지 단단한 상태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얘기다. 새는 느낌 없이 딱딱한 하드 필터의 밸런스는 레종 패밀리 중에서도 레종 파버를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하드 필터2 THE ONE impact

대표적인 자타르 담배 브랜드 THE ONE에서 지난 3월경에 출시한 THE ONE impact의 하드 필터는 물었을 때 단단하고 깔끔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산소강화필터로 산소량이 두 배로 늘어났다. 필터를 손으로 꺾으면 점선 모양으로 깔끔하게 필터가 뜯겨지는 데 이렇게 필터를 하나 뜯어내고 피우면 더 강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하드 필터3 simple ACE

마치 POLO 캔디와 같은 모양의 심플 에이스의 튜브 필터. 에디터가 주변인에게 심플 에이스를 한 개씩 내밀면 백이든 백 '필터가 굉장히 특이하다'며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이가 없었다. 심플 에이스의 튜브 필터 또한 그 단단함과 '무는 맛'이 어떤 하드 필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ARE YOU HARD ENOUGH? #2

뻗뻗한 남자는 담배도 좀 뻗뻗해야 한다.

BY 유승민 PHOTOGRAPH ARC STUDIO IMAGE Dreamstime

담배 필터가 단단해야 하는 이유

1. 음료를 마시면서 피우는 남자

음료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입술과 필터까지 음료수에 촉촉히 젖게 마련. 이때 재를 덜다 보면 마찬가지로 젖어서 눅눅해진 필터가 두 동강 나기 십상이다.

2. 오래 물고 있는 남자

남들보다 담배 한 대를 오래 피우거나, 물고 있는 시간이 길고, 갈근갈근 씹는 버릇이 있는 당신. 다 피우고 날 때쯤엔 필터의 현령이 효율흡출해져서 부러지기 쉽다.

3. 침 많이 흘리는 남자

담배 피우는 습관도 가지가지. 유독 필터에 침을 많이 묻히면서 피우는 당신도 재를 덜다가 필터가 툭 부러졌던 경험 이 아마 있을 거다. 당시에겐 좀 더 단단한 필터가 필요하다.

용병의 역습

단힐이 담배 가격을 200원 올리고 극도의 부진에 빠지면서 잠깐이지만 말보로와 보헐시가 등 경쟁 제품들은 아주 신이 났었다. 하지만 단힐의 제조사 BAT(British American Tobacco)는 곧 반격을 위해 최강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려 140년 역사의 세계적인 메가셀렉 럭키 스트라이크를 2,500원에 국내에 상륙시킨 거다. 이것만으로도 무엇을 겨냥한 역습인지가 명확해진다. 어쩌면 이 카드를 이미 염두에 두고서 자신있게 단힐의 가격을 올린 것일지도.

BY 유승민 PHOTOGRAPH ARC STUDIO



WAR
CIGARETTE

녹색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럭키 스트라이크 하면 또 전쟁 미군이 연상되는 건 어쩔 수 없다. 2차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 그런 전쟁영화에서 미군 병사들의 철모 뒤엔 항상 럭키 스트라이크가 꽂혀 있다. 사방이 포위된 상황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느긋이(?) 죽음을 기다릴 때 마지막으로 꺼내 무는 담배도 럭키 스트라이크였다. 우리에게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들고 들어왔던 미군의 군인담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미군들의 '군디스' 같은 것.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미군이 있는 전쟁터엔 럭키 스트라이크가 빠지지 않았다. 2차세계대전 당시에는 과색 모양의 원형 로고에서 녹색을 빼면서 "럭키 스트라이크의 녹색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라는 문구를 내세워 애상 마케팅에 성공하기도 했다. (사실은 여성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색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DESIGN ICON

강렬하고 심플한 원형의 럭키 스트라이크 로고는 담배라는 사실을 떠나 그 디자인만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실제로도 럭키 스트라이크의 로고는 세계 디자인사에서 큰 획을 그은 아이콘이다. 과색 모양의 이 로고는 코카콜라의 병 모양을 만든 것으로도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 레이몬드 루외의 손끝에서 나왔다. 예디터가 럭키 스트라이크를 처음 알게 된 건 한참 오토바이에 관심이 있던 중학생 시절. 레이싱 용 바이크그린 '붕가' 혹은 '알차'라고 불렀다) 카울에 큼지막하게 붙어 있던 럭키 스트라이크 로고를 본 이후다. 그런 럭키 스트라이크가 담배인지도 모르고 그 로고가 마냥 좋았다. 100여 년이나 된 로고가 담배 브랜드로서가 아닌, 그 디자인 자체만으로도 다 개차반이 난 브랜드 또한 부지가지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럭키 스트라이크가 90년대 초반에 이 어 또 퇴출되지 말란 법도 없었던 그런 정말 쫓팔리겠지.

타르는 낫추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오리자일 레드'라는 이름으로 한 가지만 나왔지만 해외에서는 FILTERS, ULTRA LIGHTS, MENTHOL LIGHTS, LIGHTS의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 우리나라에 나온 '오리자일 레드'가 이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다. 로고 색깔도 짙은 해외에서의 LIGHTS와 일치한다. 럭키 스트라이크는 이미 90년대 초반에 국내에 입성할 적 이 한 번 있었단! 2mg이나 되는 높은 타르 함량 때문에 대중화되지 못하고 사라졌었다. 그래서 이번에 티르와 니코틴 함량을 우리보다 현지 취향에 맞게 재조정하면서 '럭키 스트라이크 오리자일 레드'로 탄생했다.

vs. Marlboro

럭키 스트라이크의 등장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상대는 역시 말보로다. 수입 담배 1위라는 타이틀을 단힐에게서 빼앗은 후, 단힐의 제조사인 BAT에서 최대의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보로로서는 이 싸움의 향방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말보로가 꼭 왕좌를 굳히고 장기 집권할 수 있을 것인지가 판가름날 중요한 1차 대전이이기 때문이다. 2차세계대전 전쟁 영웅의 이미지가 배어 있는 럭키 스트라이크와, 황야의 무법자 말보로는 둘 다 진짜 '남자 담배' 대결에서는 점에서도 몹시 흥미롭다.

럭키 스트라이크로선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을 한국 땅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해외에서 이미 성공한 브랜드는 국내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긴 하다. 하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해외에서의 유명세를 업고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거저 먹으려 하다 개차반이 난 브랜드 또한 부지가지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럭키 스트라이크가 90년대 초반에 이 어 또 퇴출되지 말란 법도 없었던 그런 정말 쫓팔리겠지.

이제 챔피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차 대전부터 최고의 도전자를 만난 말보로, 한국 시장에도 진입하자마자 챔피언과 맞붙을 때를 하자는 럭키 스트라이크. 둘 다 대결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구우 담배

럭키 스트라이크는 그 유명한 문구 'It's Toasted'가 드러나듯, 확실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보통의 담배들이 담뱃잎을 햇볕에 건조하는 데 반해, 럭키 스트라이크는 구워서 건조하기 때문에 맛이 좀 더 구수하다는 거다. 하지만 실제로 시연했을 때 실제로도 다른 담배들에 비해 구수한지는 잘 모르겠다. 불을 붙이면 담배는 어차피 구워지는 거 아닌가?



MOTOR



DUCATI PANIGALE 1199

완전히 새로워진 두카티의 기함! 얼마나 빨리 달리려고 이름부터 빨리갈래!? BY 송종민

전 세계 모터사이클 매니아들의 축제인 EICMA가 지난 11월 7~13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렸다. 69회를 맞은 이날 행사에서 두카티는 새로운 플래그십 1199 PANIGALE를 발표했다. 레이스 레플리카, 즉 레이싱 머신의 일반 판매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 바이크 클래스는 모터사이클 브랜드의 모든 기술력이 집약된 첨단 테크놀로지의 집합체다. 그래서 슈퍼 스포츠 바이크를 보면 그 브랜드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양산형 슈퍼

바이크를 베이스로 경기를 치르는 WSBK에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2011년 시즌을 우승한 두카티 바이크의 위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터. 더구나 두카티 팩토리 팀원 제조사의 직 접적인 지원을 받는 팀이 MotoGP를 위해 모두 철수한 상황에서 말이다. 두카티는 2012년 레이스에 또다시 1199R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1199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1199의 압도적인 성능이 레이스를 너무 지루하게 만들까 봐 걱정된 걸까? 이런 건방진 배려를 뽐내!



체크
메이트!



할리데이비슨

XL1200X Forty Eight

남자는 할리 할라는 올드 스퀘어,
올드 스퀘어는 포티에잇



Gopher

모터 사이클을 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어떤 이는 누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바람을 가르고 싶어서 일 수도 있고, 또는 워싱력의 한계에 도전하며 칼 같은 코너링을 즐기기 위함일 수도 있다. 울릉불통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대자연과 함께 지구 끝까지 여행 할 수도 있고, 단지 집 앞 수풀에 걸어가기 귀찮아서 바이크에 오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라이더가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바이크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단지 바이크에 올라 엔진의 진동과 배기음을 즐기는 게 좋은 사람들. 그냥 모터사이클 자체가 좋아서 바이크에 오르는 사람. 아마 할리데이비슨을 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거대한 차체를 수동한 토크로 끈기 있게 밀어주는 V트윈 엔진의 고동감을 느끼며 천천히 넓은 도로를 크루징 해가는 이미지가 바로 할리데이비슨 라이더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는 성공한 중년층이나 은퇴하고 색다른 삶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노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스포스터를 타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 1957년 처음 등장한 스포스터는 1960년대 미국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으로 세를 확장해가던 영국제 모터사이클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라인업으로, 낮은 배기량에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현대적인 스타일의 모터사이클이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적은 젊은 층이 스포스터를 선택하게 되었고 작고 날렵한 외관과 스포티한 운동성능은 줄길 줄 아는 젊은이들을 위한 레이스한 바이크로 자리 잡았다.

일각에서는 젊은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저렴한 스포스터를 베이스로 커스텀 모터사이클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운동 성능을 희생해서라도 바이크가 가진 엿을 최대한 추구했는데 할리데이비슨 포티에잇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하는 모델이다.

→ 포티에잇의 기원



1948

최초의 파넬 탱크



1958

파넬 탱크가 적용된 스포스터

영국 상하의 농들과는
다르다 영국곡의



낮게 깔린 스텝아웃 기어들이
기어들은 흑마와 같다.



22.7cm 배스탱크가
포티에잇의 상징

헤럴리데이비슨이 2010년 시즌에 발표한 포티에잇은 그 이름처럼 1948년 처음 선보인 스포스터의 아이코닉한 뿔뿔 모양 연료 탱크를 유지하여 당시 스타일을 재해석한 클래식 레트로 모델이다. 22.7cm(7.94L)의 시대착오적인 작은 연료탱크가 채용된 것도 바로 그런 오리지널에 대한 고집에서 비롯된 것. 20km/L가 채 안 되는 연비의 모터 사이클이 감당하기에는 사뭇 불편할 정도로 주유소를 자주 찾아야 하는 저장용량이지만 다크 커스텀된 블랙 바디에 강렬한 컬러 포인트로 작용하여 깊은 인상을 준다.

핸들 바 아래로 마운트된 미러와 660mm로 낮게 설정된 시트고는 길고 낮은 실루엣을 형성하며 그 어떤 스포스터 라인보다 스타일리시한 라인을 자랑한다. 두툼한 팻 타이어와 스포크 휠도 클래식한 멋을 더한다. 여기에 스포스터 라인으로는 유일하게 풋 스텝이 앞쪽에 위치한 포워드 포지션 스텝을 적용해 형틀처럼 자유롭고 다소 간방진 자세가 연출되는 것도 특징이다.

이 모든 것이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스트리트에서 멋을 부리고 싶었던 당시 젊은이들의 모터사이클 문화를 대변하는 요소들이다. 2세기에 재현된 20세기식 모터사이클이 아직도 현대 젊은이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을 보면, 모터 사이클이 주는 순수하고 투박한 매력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걸 깨닫게 한다. 아직도 영국제 트라이엄프 바이크와 아이하의 올드 모델들을 키베 레이스로 개조하는 문화가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오래된 고물상을 뒤집어볼 시간이라 할까? 아니다. 할리데이비슨 포티에잇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 없이 멋들어진 레트로 스타일 바이크를 갖고 싶은 이들을 위한 멋진 선물이다. 포티에잇은 인상적인 50년대풍 디자인을 가졌지만 누구보다 세련되었고, 공랭식 1200cc 애플루션 엔진으로 멈춤 걱정 없이 달릴 수 있다. 편안한 싱글 시트에 앉아 탄 거머를 밟아 놓고 스로틀을 비트는 순간 당신은 급속도로 가속하여 50년대식 로맨스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H**



할리데이비슨
간지보이만
이런 것



MOTOR OF THE MONTH

모두가 기다린 BMW의 빅스쿠터
C600 스포츠 & C650GT



독일의 오토 명가 BMW가 드디어 소문만 무성했던 가솔린 맥시쿠티를 발표했다. 먼저 C600 스포츠는 배기량 650cc 변형 트윈 엔진으로 60마력을 발휘하는 스포티한 모델로, 아미하의 T-MAX를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 두고 있다. 같이 발표된 C650GT는 장거리 투어링에 맞춘 넉넉한 차체와 풍부한 편의 장비가 특징이다. 전동식 윈드스크린과 ABS, 풀페이션 헬멧 두 개가 수납되는 넓은 트렁크, 열선 그립과 열선 시트 등으로 스키와 같은 비그만 650과 경쟁한다. 시창에 강자로 군림하는 두 맥시쿠티를 동시에 상대하겠다는 것이다. BMW의 첫 빅 스쿠터 도전이지만 언제나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모델들을 선보여온 그들이기에 앞으로 시창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기대된다. 출시일 미정.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
뉴 제네시스 쿠파



현대자동차는 지난 12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시장에서 '더 뉴 제네시스 쿠파'를 공개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2008년 출시된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눈에 띄는 차이점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육각형 헤카소널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마치 (무한도전) 멤버들이 개구기를 켜 듯한 모습으로 현대 차의 패밀리룩이다. 3.8GD 엔진과 2.0T 모델은 각각 50마력 이상 출력이 향상 되었지만 토르는 오히려 감소한 형태로 세팅을 많은 변화가 가해졌다. 덕분에 연비가 좋아졌는데 거기서 거기다. 차종 5단 또는 6단, 수동 6단을 장착했던 기존 모델과 달리 뉴 제네시스 쿠파는 자동 8단, 수동 6단을 채택했다. 가격은 200만 원 정도 올랐다.

제8회 MAXIM 무료 토틡 당첨 독자는?



제8회 당첨자 권정순 독자의 K7 슬라타드 토틡 후기



안녕하세요 충북 제천에 사는 회사원 서른 살 조형기라고 합니다. 맥시스는 제가 거래처의 젊은 고객들을 상대 할에 있어서 중요한 편속의 하나이고 지도 즐겨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복지물로 한 달에 30원 정도 사서 팀원들끼리 6원씩 나눠서 고객님께 드리고 있습니다.(저도 하는 일고 드리지요^^) 맥시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독자를 위한 이벤트 진행이 많아서 좋고, 어차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는지 알 수 있고 데이트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좋습니다. 저는 차에서 일하는 시간이 약 8시간부터 거의 7시까지입니다. 에이인 그랜저-HG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데 차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때도 많고, 자료를 정리하거나 가끔씩은 이 안에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벤트에 도전하면서 당첨되는 건 인생의 소중한 낙이지요. 물론 당첨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요, ㅋㅋㅋ 이 이벤트를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이 꼭 당첨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쿠파에 당첨이 될 수도 있지만 남자에게 계속 도전할 예정입니다. 한 번에 되면 귀찮게 안 굴겠습니다. 당첨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죠? 저 당첨 되었습니다고 최고인 차고 경양출동 한 하니까요 ^^ - 조형기



알던 당신이 길러 조건이 아니기부터 확인했다. 얼굴을 이렇게 크게 찍어준 덕에 바로 1킬리 조기 아-리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주의의 현장에서 길러 드라이버의 차에 시가게를 렌탈을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해하기 바란다. MAXIM을 한 달에 30원이 산다니. 우리가 당시에 아-면 누구를 당첨시키겠는게 우리도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이벤트에 꼭 당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간 빠른 경쟁 탓에 한 쿠파에 당첨시키지지는 못했지만 늦게-마 당신의 뿌리모에 마 그랜저-HG를 출동한 에이다. 살아 있는 전설. 그랜저의 어떤 마저라 시가게도 지도 모르는 H-G에게 호칭 한 번 불러주기 바란다.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슬라타드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프'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비 항공우주용(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된 비로 그 130년 전통의 명품, 슬라타드 열 차단 필름이다

- ▶ **응용 기간:** 2011. 11. 22 ~ 2011. 12. 18
- ▶ **상품:** 22만 원 상당의 열 차단 토틡 시공 (2천원 시공, 즉 후면 제외)
- ▶ **응용 방법**
 1. 에이아 픽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벤트 호기 나오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멋진 사진을 곁들여면 원전 순위
-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내라.
 - 010-5199-1182(문집부 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MAXIM ONLINE STORE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도, 인터넷서점에서도
MAXIM 과월호를 구할 수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
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쟁취하십시오!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루이름의 배송기간도 당신에겐 너무 길다면? 해외에서
주문하거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사려면 MAXIM 과월호가
절판되었다면? 종이 매거진보다 저렴하게 MAXIM을 즐기고
싶다면? 잡지 속 영상과 함께 생생한 화보를 감상하고 싶다면?

MAXIM E-MAGAZINE 에 주목하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메뉴에서 e-매거진 구매를 클릭하시면
권당 1,500원에 MAXIM의 E-매거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e매거진 1권 이용권 **1,500원**
- e매거진 6권 이용권 **8,100원 (10% 할인)**
- e매거진 12권 이용권 **15,300원 (15% 할인) + 1000쪽 적립**
- e매거진 24권 이용권 **28,800원 (20% 할인) + 2000쪽 적립**

*이용권은 1권당 첫 열람 시점부터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MAXIM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MAXIM DIGITAL CONTENTS

그대 진짜 MAXIM의 매니아인가?
www.maximkorea.net 으로
당당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마!

- 1 수시로 타지는 이벤트와 쏟아지는 선물 세례
- 2 MAXIM 고화질 화보의
월페이퍼 다운로드 서비스
- 3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의
MAXIM e매거진 보기
- 4 촬영장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화보 공개
- 5 잡지엔 없는 이공계 화보
- 6 다음달 MSS MAXIM을 당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MSS MAXIM 온라인 콘테스트



당신에게 섹스 파트너와 여자친구가 모두 있다고 가정해보자. 섹스 파트너와 여자친구 중 누가 더 예쁠 것 같나? 순간적으로 당신의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는지 말해봐. 괜찮아. 굳이 양심에 손을 얹을 것까진 없잖아.

남자라면 누구나 섹스 파트너를 꿈꾼다. 이미 호칭부터 자극적인 냄새가 풀풀 풍긴다. 섹스 파트너는 왠지 예쁠 것 같고, 매력적일 것 같다. 섹스도 당연히 좋을 것 같다. "그래도 내 여친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드는 팔불출 독자도 있겠지만, 여자친구란 단어보다는 섹스 파트너라는 단어가 수컷들을 더 자극한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지?

그래, 섹스 파트너가 좋은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그 좋은 섹스 파트너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여자들에게 섹스 파트너 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다는 수컷들이 의외로 많다. 마침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끝나더라도 섹스 파트너는 유행을 타지 않는 스테디 아이템이니까 이번 달엔 섹파 매길 해보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해주고 싶다. 여자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섹스 파트너를 꿈꾼다. 마치, 당신처럼.



섹스 파트너에 대한 여자들의 고백

여자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줄게. 당신은 눈앞만 훑러.

BY 김희성



남친보다 섹파가 더 좋을 때 1

"아, 열라 짜증 나. 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배터리 나갔는데 남친이 그거 때문에 완전 빠진 거 있지. 새벽에 집에 와서 큰 쾰보니까 문자도 엄청 많이 와 있었어. '뭐해', '어디야', '이거 보면 바로 전화해', '죽고 싶나...' 큰 쾰보자마자 문자가 한 열몇 통 쾰르르 드는데 진짜 열라 짜증 났다니까. 밤새 남자랑 눈 올 안단 말이야... 어쩌다 전화 좀 못 받을 수도 있지. 진짜 이럴 때 보면 섹파가 좋긴 좋은 듯. 섹파는 내가 전화기를 꺼놓든 문자에 답장을 늦게 하든 간섭하지 않잖아.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마다 자꾸 남친이랑 섹파랑 비교하게 된다? 남친은 간섭하는 게 당연하고 섹파는 간섭 안 하는 게 당연한데도 자꾸 남친이 더 속증게 주는 것 같고 섹파는 열라 쿨한 것 같음." (K20세, 대학생)

남친보다 섹파가 더 좋을 때 2

"사실 난 섹스할 때 상대가 날 거절해 다뤄주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남친은 그냥 노열한 섹스만 해. 섹스를 노열하게 하는 사람들은 S나 M 기질이 있는 사람을 반대 취급할 것 같아서 맘도 못하겠어. 그래서 남친이랑 섹스를 하고 나면 항상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남친이 섹스를 못한다는 건 아니야. 남친도 섹스를 잘하긴 하는데 노열하면 해서 욕구가 100%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지. 근대 지

금 내 섹스 파트너는 S. 나는 M. 성향이 딱 맞아떨어 지나가 섹스 파트너가 된 거고 섹스 파트너가 섹스에 대해서만큼은 승기는 거 없다 다 예가해. 남친한테는 절대 못하는 말들. '넥타이로 속목 묶어줄래?', '오빠, 나 오늘 혼나고 싶어'라든지... 남친한테 이런 말 하면 섹스에 환장한 여자로 보겠지?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섹스 파트너가 있어서 오히려 남친이랑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섹스 파트너가 없었다면 남친의 섹스가 노열한 게 계속 불만이었을 테니까. 섹스 파트너가 생기고부터 남친과 사이가 더 좋아졌다면 이해가 돼?" (K24세, 대학생)

MT형 익스프레스

"아, 대박. 나는 남친 대신 섹스 파트너 두길 잘한 것 같아. 왜 섹스 파트너가 아니라 만나서 가끔 섹스를 하는 애매모호한 관계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손 잡고, 뽀뽀하고, 상대방이 오늘 같이 있자고 꼬시고, 안 된다고 두 번 정도 거절하고, 못 이기는 척 MT 가도... 이 복잡한 진도를 매번 만날 때마다 처음부터 나가야 하잖아. 사실 나도 잘 준비 다 하고 나왔으면서(웃음). 섹스 파트너한테는 섹스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말해도 되고, 만나서 바로 MT로 직행해도 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마시고 MT 가도 되고, 좋잖아?" (L28세, 프리랜서 MC)

귀차니즘

"남친과 헤어질 이후 3년째 섹파만 3명 정도 만나고 있는데 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 순진한 오빠들이 '너같이 이른 애가 왜 남친이 없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코웃음만 나와. 대박, 근대 한번 섹파를 만나기 시작하니까 남친 못 사귀겠더라. 얼마 전에 나한테 사귀자고 하는 애가 있어서 그냥 그러자고 했어. 애가 좀 생긴 게 내 스타일이더라고. 근대 아침저녁으로 연락하고 자주 만나야 하고, 기념일 챙겨야 하고... 섹파 끼리는 안 챙기던 걸 갑자기 챙겨야 하니까 되게 귀찮게 느껴지더라. 섹파끼리는 기념일 같은 거 안 챙겨도 되고 또 굳이 챙길 기념일도 없잖아. 잘 사귀 섹파 한 명, 열 남친 안 부럽다!" (C25세, 취업 준비생)

내가 하면 로맨스

"그리고 보니 섹파한테 여친이 있는지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오히려 여친이 있는데도 나랑 몰래 만난다는 사실이 더 기분 좋고 짜릿하게 느껴지던데?" (Y26세, 피팅 모델)

무소유

"나도 처음엔 섹파가 다른 여자를 만난든 말든 신경 안 썼는데 섹스가 좋으니까 없던 마음도 생기더라고. 섹파랑 사귀고 싶어졌잖아... 어쩔... (H23세, 바리스타)



× 섹스 파트너 DIY(초급편)

'섹스 파트너'라는 존재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여기서부터 섹스 파트너 만드는 법 중에서도 완전 생기초를 이야기하려 하니 섹스 파트너가 있다면 그냥 패스 하라. 하지만 기본기는 탄탄할수록 좋은 거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원래부터 잘 알고 지내던 학교 선배와 어쩌다 같이 잤다. 다음 날 아침 잠깐 당황스러웠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만나면 같이 자는 사이가 됐다. 언니들, 이런 게 섹스 파트너 맞지? S(22세, 대학생)

LADIES' GUIDE 어피 보면 섹스 파트너를 만든다는 게 별 일 아니다. 원

나이트가 두 나이트 되고 쓰리 나이트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섹스 파트너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 번 섹스 파트너를 만들어 본 사람이 원 나이트를 두 나이트로 만들기 쉽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머릿속엔 '도대체 어떻게???'라는 물음표만 동동 떠다닐 거다.

먼저, 원 나이트를 두 나이트로 만드는 데도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한다. 남자가 아무리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어도 적절한 타이밍이 안 따라주면 결국 지지부진해지고 마는 것처럼 섹스 파트너를 만드는 데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다행히도 섹스 파트너를 만들기 위한 타이밍은 여친 만들기 타이밍에 비해선 매우 단순하다. 좀 쉬운이 되지? 지피지피 백전백승이라고 일단 섹스 직후 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부터 들여다보자.

섹스 직후의 멘탈 붕괴

상대편과의 첫 섹스 후에는 그가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가 제일 궁금해진다. 나를 쉬은 여자로 볼까? 아니면 나를 더 좋아하게 됐을까? 이제 섹스를 했으니 더 이상 연락이 안 오려나? K(24세, 회사원)

LADIES' GUIDE 섹스 파트너를 만드는 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바로 '섹스 직후'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상대방과의 첫 번째 섹스 직후다. 그녀와의 첫 섹스 후에 당신이 어떤 리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녀와 여친이 될 수도, 섹스 파트너가 될 수도, 원 나이트로 끝날 수도 있는 거다.

여자들의 약점을 한 가지 알려주자면 상대방과의 첫 섹스 직후 급격히 소심해진다든 거다. 물론 당신과의 섹스가 별로였다거나 마음에 안 들었다면 소심은커녕 '쏘 쿨'하게 나올 거다. 아무리 전날 밤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굴던 그녀라도 다음 날 당신이 일어나기도 전에 땀나 시라졌다거나 급격히 통명스러워진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다. 당신도 그냥 쏘 쿨하게 원 나이트로 끝내라. 너무 아쉬워 마라. 당신이 공격해야 할 대상인 섹스 후 급 고분고분해진 여자는 99.9%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 말이다. 여자들은 첫 섹스 직후 남자의 어떤 점 때문에 다음 번 섹스를 결심하게 되는지 물어봤다.

귀여워서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엔 상대가 깨기 전에 최대한 조용히 MT를 빠져 나오는 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기 싫은 날도 있다. 자는 모습이 귀엽거나 괜히 안아주고 싶은 모습을 자극하는 타입의 연인일 때는 특히, M(28세, 패션 홍보대행사 근무)

간밤의 섹스보다 더 중요한 모닝 섹스

모닝 섹스까지 하면 심플플루 섹스 파트너가 된다. K(26세, 연구원)

이럴 식사는 쟁거워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오빠의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MT로 진행하게 됐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난밤의 일을 후회하고 있었다. 술이 깨고 보니 어색해서 건질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냥 가려는 나에게 "나중에 안보더라도 아침은 꼭 맛있는 걸로 먹고 가라"는 그의 다정함에 갑자기 그가 팬텀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오빠에게 연락이 왔을 땐 당연히 씹지 않았다. 그다음은 말 안 해도 알지? D(27세, 프리랜서)

LADIES' GUIDE

그녀와의 다음번 섹스를 기억하고 싶다면 섹스 후 식여버린 마음을 최대한 킁키지 않는 게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다. 남자를 그런 거 없다. 자기 전에는 예쁘다. 몸매 끝내준다. 오빠랑 다음에 맛있는 거 먹자. 영화도 보러 가자며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해놓고선 막상 다음 날 아침엔 뻐뻐한 거. 그게 놓고 꼭 며칠 뒤엔 다정한 메시지가 날아오더라.

하지만 그런 이미 늦었다. 여자들은 일단 섹스 직후 상대방과 자신의 앞으로의 관계를 재설정하게 되니까. 자신에 대한 애정이 급격히 식어버리는 남자와는 그외의 하룻밤이 아무리 좋았어도 섹스 직후 느릴 그 감정이 두려워 이후의 만남을 꺼리게 된다. 당신은 "난 아냐. 난 태너질 않았어"라고 하겠지만 섹스 후 초예민해진 여자들은 아주 아주 조금도 무관심도 감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 섹스 직후의 당신은 섹스하기 전의 당신보다 훨씬 더 자상한 사람으로 빙의해야 한다. 섹스 후에 팔베개를 해주거나 다정하게 안아주는 날자, 섹스 후에 연락을 더 잘하는 남자라면 원 나이트든 두 나이트든 언제든 환영이니까! 



S+UFF

ULTIMATE NOTE GALAXY NOTE

외국노님의 은총을 받고서야 비로소 삼성은 제대로 된 '낙서 마신' 을 세상에 투해낼 수 있었다. **최갑현**

갤럭시 노트는 3G와 LTE 버전으로 출시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LTE 버전이다. LTE 요금제로 유저의 등급에 별대를 짓고 싶어 한창한 통신사와 제조사가 합작한 결과다. 그 덕에 우리나라 유저는 손가락만 쪽쪽 하며 '스냅드래그'를 압도하는 엑시노스를 탑재한 3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채택한 갤럭시 노트를 사용할 수 없다.

▶ LTE는 스냅드래그를 사랑해

스냅드래곤(S3)은 경쟁에서는 나름 상위 칩셋이지만 삼성의 엑시노스와 비교하면 성능이 많이 처진다. 그럼 왜 LTE 버전에서는 스냅드래곤만 쓰냐고? 현재 3G, 4G를 커버 가능한 녀석은 퀄컴의 스냅드래곤(S3)밖에 없으니까 이 녀석도 추가 칩셋을 박아야 LTE를 쓸 수 있는 마당에 다른 CPU를 쓰면 음성통화 칩셋까지 추가로 박아야 하는 굉장히 귀찮은 상황이 발생해. 그러나 제조사가 "아 사바 블라 강 스냅드래그 씨"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 펜타일 방식이 뭐길래?

펜타일 방식은 1픽셀을 구성하는 서브 픽셀 수가 2개, RGB 방식은 3개다. 당연히 동일한 해상도에선 서브픽셀의 출출함 정도가 다르니 상대적으로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슈퍼러는 타이틀을 단 아몰레드 역정에 사용한 펜타일 방식은 서브 픽셀 수를 3개로 늘려 화질 논란을 상당 부분 잠재웠다. 아몰레드 역정도 정확하게 RGB 방식을 쓰면 그분 아니냐고? 아몰레드 역정은 아직 초기 기술이라서 RGB 방식을 구현하기에는 예로 사장이 꼴판다. 펜타일 방식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쓸 수밖에 없던 예기다.

▶ 고릴라 글래스

코닝에서 개발한 이 유리판(?)은 이음새 없이 정교하게 디자인돼 얇고 가벼우며 내구성이 뛰어나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안정적이다. 일반 유리보다 휘어짐에 강하여, 스크래치에도 강해서 갤럭시 노트는 물론 갤럭시 탭 등의 태블릿 제품에서도 사용 중이다.





GOOD

스마트폰에서 당신이 손으로 했던 모든 일을 펜으로 할 수 있다. 메모는 물론 그림 그리기도 마찬가지. 정전식 터치 따위는 가나 줘라. 말로 떠들어도, 문자로 써부러도 이해 못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한 큐에 이해시키는 패감을 갤럭시 노트에서 맛보자.

BAD

아직은 그리기 전용 앱이 미비하다. 펜의 굵기가 굵어질수록 딜레이가 길어지는 점 역시 아쉽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열 받는 건 우리나라에만 LTE 버전은 출시했다는 사실이다.

WHO WANTS NOTE?

최강의 장난감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갤럭시 노트가 답이다. 이 녀석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스마트폰보다 기지고 놀기 좋고, 지금까지 나온 어떤 스마트폰보다 낙서하기 좋다. 하지만 이 녀석을 노트 대용으로 쓸 생각이라면 애초로 갤럭시 노트는 지를 생각을 접어라.

DETAIL

S펜

WACOM (외품)

사람들이 갤럭시 노트에 열광한 건 외품의 디지털라이저를 적용한 최초의 스마트폰이기 때문이다. 왜 '외품'이란 말만 나오면 사람들이 개겨품을 무냐고? 펜으로 필기할 때 압력(한마디로 필압)을 감지해 훨씬 더 정교한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정전식 터치펜이 바닷가 백사장에서 손으로 끄적이는 수준이었다면, S펜은 공책에 펜으로 메모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다. 안드로이드 차기 운영체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는 필압 감지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는 만큼 갤럭시 노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앱 역시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사람들이 아이폰4S만큼 갤럭시 노트에 환장하는 이유를 이젠 알겠지?

CPU

삼성 엑시노스 1.4GHz (3GB버전, 해외)

퀄컴 스냅드래곤 S3 1.5GHz (LTE버전, 국내)

통신사 개격까들
LTE도 제대로 안 깔아놓고 왜 최신 스마트폰은 죄다 LTE 전용폰으로 만드는 거냐

RAM

1GB

이제 놀랍지도 않다.

내년 이즈음엔 2GB 정도 당연히 하게 여기게 되겠지?

DISPLAY

5.3인치 슈퍼 아몰레드 HD (1280x800)

펜타일 방식의 액정이라고 색인경부터까지 마라. 이 정도 해상도면 당신이 카메라만큼의 눈길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눈에 거슬릴 일은 없을 거다.

CAMERA

800만화소 후면 카메라, 200만화소 전면 카메라

독역이 카메라를 대신할 수 있는 아이폰4S, 엑스페리아 레이의 톨돌림을 기대하진 않았어.

BATTERY

2,500mAh

(착탈식, 국내용은 2개)

아이패드급의 배터리 수명(9시간 36분)인데... 심지어 착탈식이다. 박 대리의 조기 퇴근 걱정은 불붙어 매라.

16GB/32GB

64GB도 추가되었어! 아이! 삽시간에 마이크로 SD를 지원하니 32GB 메모리를 장착해 64GB를 만들자.

NFC 지원

뭐 이거 다 알지?

NFC 여러 번 설명했다. 이것도 당연하 들어 있다.

TV-OUT 지원

스마트폰으로 1080P 고화질 동영상을 돌리는 시대다. 스마트폰의 영상을 큼직한 TV 화면으로 봐도 손색이 없던 예까지. 그러나 요즘 스마트폰에서 티빙이 아웃 기능은 필수. 디박스는 이제 바이바이!

부담 없는 178g

178g이면 얇한 튜브 치약 1개 정도의 무게다. 액정은 광활한 낙서시 정말 가볍구만!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업데이트 0.0!

상상은 당연히 갤럭시 노트에 안드로이드 4.0 운영체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READY FOR SNOW BOARDING?

수백 명이 돌림행한 렌탈샵 보르장비로는 실력도 안 늘고 어디 한군데 부러지기 십상이다. 스노우보드는 장비빨이 99%인 스포츠란 말이다. 아침에 괜찮은 눈으로 하나 장만하자.

BY 박현필두리 PHOTOGRAPHY ARC STUDIO
COOPERATION: 텍사스노우(02-3444-0681 www.taxisnow.co.kr)
슈가포인트(02-2217-8458 www.sugapoint.com)

뭘부터 사지? 보드 장비를 구입할 때는 자신의 몸에 맞는 부츠부터 구입하는 것이 좋다. 몸에 가까운 장비일수록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간혹 간지를 생각하느라 기능보다는 디자인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스노보드가 꽃꽂이처럼 고상한 스포츠도 아니고, 의족 차고 재빨리 훈련 받고 싶지 않으면 발목을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든실한 녀석을 고를 것

BOOTS 부츠 고르기

부츠를 선택할 때는 평소 신는 운동화 사이즈보다 5mm 정도 크게 신는 것이 좋다. 두툼한 스노우알발 위에 신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신었을 때 발가락이 앞으로 닿는 녀석을 고르자. 발볼이 유난히 넓은 사람이라도 발가락이 닿는다면 달치고 그냥 신자. 보드 부츠는 처음에는 딱 끼는 느낌이 들어도 보드를 타는 동안 발생한 열 때문에 라이더의 발에 맞게 형태가 변한다. 딱 맞는 녀석으로 3~4번 타다 보면 덧바선보다 편해질지?

라이더의 발에 닿는 녀석을 고르자. 발볼이 유난히 넓은 사람이라도 발가락이 닿는다면 달치고 그냥 신자. 보드 부츠는 처음에는 딱 끼는 느낌이 들어도 보드를 타는 동안 발생한 열 때문에 라이더의 발에 맞게 형태가 변한다. 딱 맞는 녀석으로 3~4번 타다 보면 덧바선보다 편해질지?



묵혀두었던 보드 장비 정비하기

오나미급 장비를 확실해서 한가인으로!



1. 줄을 이용해서 자간거를 동안 만산한 이가 된 에지테크 날을 날카롭게 다듬는다. 손이 배일 만큼 날카로우아 브레이크가 잘 먹히는지?



2. 리무버 스프레이를 뿌린 후, 1분 정도 기다린다.

1112 THIRTYTWO LASHED FT ROYAL

스피드존 부츠: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츠로, 빠르게 신고 벗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발 밑도 금방 끝내는 성미 급한 사람에게 제격. 가격 330,000원



1112 THIRTYTWO BOOTS LASHED FT LAVENDER

끈 부츠: 끈 묶는 대신 끈이 다 소 걸리지만 발목 해-관은 기가 막히게 잡아준다. 이별을 뽐보받은 당산처럼 말이다. 가격 314,000원



BINDING

바인딩 고르기

바인딩의 밑바닥이 흡산할수록 안전한 것은 당연지사. 부츠와의 공합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신 부츠와 꼭 맞게 결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자. 역시 스포츠도 딱딱질처럼 속궁합이 맞아야 한다.

1112 ROME BINDINGS
390 Boss Lucite

가격 420,000원



▶ 하이백 Check!

용도에 따라 하이백의 길이와 물렁한 정도가 다르다. 하이백이 짧고 부드러운 바인딩은 키크에서 점프를 뛰거나 트릭을 할 때 발목의 유연성을 높이고, 하이백이 길고 단단한 바인딩은 라이딩할 때 부츠를 꼭 잡아줘 격한 속도에서도 턴이 용이하다.

DECK

데크 고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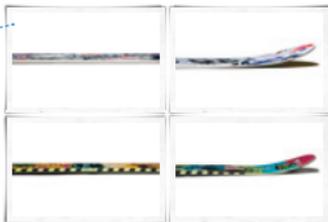
세월을 때 자신의 인종까지 오는 데크가 자신에게 맞는 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캔델 기준이다. 진짜 데크의 길이를 결정짓는 것은 카운무게로, 근수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데크에 그만큼 무게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기준치보다 조금 더 긴 것을 선택해야 턴이 용이하다. 내려봤을 때 배 때문에 발톱이 안 보인다면 이 점을 꼭 유의할 것!

▶ 데크의 유연성

어떤 식으로 보드를 즐길 것인지가 데크의 유연성을 결정한다. 키크 위에서 점프를 하거나 파이프를 타며 그야말로 보드로 지랄 발광을 떨고 싶은 유저라면 말랑 말랑하고 잘 휘어지는 데크를, 스피드를 즐기는 라이더라면 탄성이 좋고 단단한 데크를 고르는 것이 좋다.

▶ 정캠버와 역캠버

데크는 크게 정캠버와 역캠버로 나뉜다. 정캠버는 U자형으로 휘어지고, 역캠버는 L자형으로 휘어진다. 보기에는 미세한 차이지만 이 몇 센티미터가 중급자 이상 유저들에게는 크게 작용한다. 정캠버는 라이딩에 유리하며, 역캠버는 그라운드 트릭이나 자빙(Libbing: 레일, 기둥, 계단, 나무 등 장애물을 넘는 기술)을 즐기기에 좋은 제품이다.



3. 구리슬러 보드 바닥 사이사이에 끈이 물질을 제거한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쓸 집해야 왁스가 잘 먹는다.



4. 다리미로 왁스를 녹여 데크 바닥에 골고루 떨어뜨린다.



5. 램프 서츠를 다루듯 정성껏 다듬진다. 다름질 후 왁스가 흡착될 수 있도록 하루 정도 말린다.



6. 스크래퍼를 이용해 굳은 왁스를 벗긴다. 데크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을 때 보드가 잘 미끄러지게 하는 작업이다.



7. 코르크로 데크 바닥을 문지르면 마찰력이 발생해 표면에 남아 있는 왁스가 데크에 스며든다.



8. 솔(솔)은 수세미로 데크 바닥을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똑-똑-똑 일곱 번 만든다. 9. 왁스가 잘랐는지는 데크를 기울여 그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일자로 흘러내려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10 Gift Items

EDITOR'S CHOICE

연말연시는 불우한 이웃(MAXIM 편집부)과 함께 하지만 빈손으로 오면 산다고 나뉘고 각오하라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아이템을 추천하라고 하자 MAXIM 에디터들이 예뻐가려운처럼 폭주하기 시작했다. 야, 야, 사준다는 말은 아니었어 '선물'이라는 단어에 꽂혀 이것저것 추천하느라 여념이 없던 MAXIM 에디터가 토해낸 위시리스트, 이 중 거르고 걸러 예기스만 추렸다.



“이 녀석들이
여자친구보다
100배 더 낫다
면 믿을래?”

BY 에디터 김성현



어차피...
어린 애잖아!



MUSIC SELK's BAG

12월 24일을 기역에서 자위버벌 혼지만의 캠프를 떠난다 면 겨울용 침낭은 필수다. 침낭 안에서 당신은 세상 누구 보다 행복할 테지만 방광을 해결시키려 침낭 밖을 나서는 순간 혹한기 훈련의 악몽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일찌감치 '있는 침낭' 셀크 백을 장만해두라. 오차범 간편하게 착용 가능하기 때문에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캠프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더 신나는 건 예전처럼 드러큐리가 관에 처 박힐 때처럼 뻗뻗한 차렷 자세로 잠을 잘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아오 원년! 가격 100,000원대 문의 tinyurl.com/3k9xmiz 1544-6205

▶ 질러야 하는 이유

▶ 침낭에서 나가기 싫어 방광을 확대하는 일 따윈 사라진다고!

▶ 이런 사람이면 금상첨화

술만 마셨다 하면 아무데서나 차박하러 가는 사람이라면!



FUN SHOP 騎士의 우산

요즘같이 험한 세상, 마음 같아서 야 (베르세르크)의 간츠마냥 침라도 어깨에 둘러매고 다니고 싶지만 그랬다간 부실한 허리가 작살남은 물론이요, 뽀새 아저씨에게 바로 질러가기 십상이다. 현실과 적절히 타협해 '騎士의 우산'을 장만해 기사 코스프레에 나서는 건 어때? 처음 보는 사람은 당신이 진짜 검을 가진 줄 알고 웅얼할 테고, 유치한 당신은 기사라도 된 양 의기양양해질 테니 서로 윈윈이 될 거다. 아, 물론 당연히 우산의 용도라도 매우 훌륭한 녀석이다. 가격 48,800원 문의 tinyurl.com/3ur728a 1544-6205

▶ 질러야 하는 이유

▶ 평소에도 칼 맛을 많이 봤잖아.

▶ 이런 사람이면 금상첨화

연애, 어디서든 자신의 우산을 쉽게 찾기도 매우 훌륭한 사람이면!

N+CHARGER NCG00001

요즘은 기기 역후가 아니라도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양수경감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흔해졌다. 그렇다 보니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해 다닐지를 고민하는 사람도 그만큼 늘었다. 그러나 충전기 하나로 대응단결할 수 있는 기기 조합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기마다 충전기를 챙기는 번거로움에 직면하게 된다. 새우깡에 손이 가득 자른만큼 휴대용 충전기 N+CHARGER에 눈길을 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놈은 형광등 아래에서는 물론 초린 날도 충전이 가능할 만큼 효율 좋은 태양광 셀을 장착해 어디서든 충전을 시작한다. 두루마리 형태로 돌돌 말리니 휴대성도 좋다. 이런 스마트폰 녀석! 가격 155,000원 문의 www.ncharger.co.kr 02-2240-8181



▶ 질러야 하는 이유

▶ 납차당에서 사막에 버려졌을 때 좋겠네

▶ 이런 사람이면 금상첨화

베어 그릴스의 카메라맨이 되고 싶다면!



“소중한 남자를 위한 3종 SET 해쳐 모어!”

BY 에디터 고경희



CRAZY BONE SMILE

술로가 뭐 어때서? 어차피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게 술로다. 크리스마스라고 울적해 하지 말고, 인젠간 요긴하게 쓰일 주니어를 챙겨주는 의미에서 자신에게 소소한 선물을 해주는 건 어떨까? 크레이지 본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언더웨어라면 당신 주니어도 분명 행복할 거다. 당신 주니어가 행복하면, 당신도 행복할 거고, 당신이 행복하면 MAXIMO도 행복해질 거다. 그렇다면 입고 와서 보여 주진 마. 가격 19,000원 문의 www.crazyboneshop.com 080-911-6879

▶ 질러야 하는 이유

이 세상에 당신 주니어만큼 소중한 게 또 무엇이 있으리!

▶ 이런 사람이면 금상첨화

언제 어디서 바지를 벗더라도 당당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서



질러버다니
쿨당해졌어

SUGARPOINT ANACONDA4 BELT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고 싶다고 손쉽게 KFC 아저씨 친구처럼 생긴 신티로 번신할 필요 없다. 이 빨간 벨트 하나만 포인트를 주기에 충분하니까. 양쪽 면 중 원하는 스타일로 골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든다.

가격 58,000원 문의 www.sugapoint.com
02-227-5009



▶ 질러야 하는 이유

혹시 또 모르지. 벨트가 마음에 든 여자친구가 오늘 당신의 봉인을 풀어줄지!

▶ 이런 사람이면 금상첨화

주니어에 힘을 주고 싶은 당신!

반8 투명인간 아광 후드

술로 된 입장으로 커뮤이 드러내놓고 발호하는 이 즈음에는 차라리 투명인간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다. 그 마음 다 이해한다. 하지만 당신이 영화 <보러우 맨>의 주인공처럼 진짜 투명인간이 될 순 없을 테니 이윤으로 기분이랄라도 한번 내보도록 주의할 점은 '아광 후드' 기 때문에 아심한 밤에는 꼬마 유행 캐스퍼마냥 눈에 잘 띈다는 거다. 들은 기분에 요상한 짓거리를 했다간 은팔찌 선물을 받기 좋으니 조심하고! 가격 58,000원 문의 www.ban8.co.kr 02-423-6809

▶ 질러야 하는 이유

커뮤이 되면 입고 싶어도 못입을 테니 술로 때 미리 즐겨

▶ 이런 사람이면 금상첨화

너무 존재감이 투명해서 이거라도 입어야 사람들이 알아본다면

IDEAL GIFT

영혼을 줄 테니 이 녀석을 다오!

MAXIM 에디터가 오메발랄 원하는 (하)만 가질 수 없는 (이)아템이 여기 있다. 이 녀석 중 하나를 선물한다면 MAXIM 에디터를 조련하는 건 일도 아니지.

<공각기동대>의 타치코마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고, 심지어 귀여운 로봇 타치코마 TV 버전 <공각기동대>에서 바트를 구한 후 눈물 대신 오일을 흘리며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당신이 살아 있는 타치코마를 선물한다면 그보다 MAXIM 편집장은 충성을 맹세할 거다.

<외우>의 영웅 스칼의 동해머

스칼 형님의 전용머기 동해머는 그 자체로 긴지 적잖다. <외우>에서 호드 총족, 그것도 오코를 플레이하는 수컷이라하면 한 번이라도 동해머를 사용해본걸 꿈꾼다. 그러니 이윤을 주면! MAXIM 편집부의 길에는 당신이라도 영혼을 팔겠지.

<페이트 제로>의 성검 엑스칼리버

이윤만 있으면 <페이트 제로>의 대표적인 금발 마녀 세이버를 소환할 수 있다. 세이 버는 전작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에서 감춰져 있는 용매를 선보인 바 있으니 그녀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수컷이 마디랄 리가 있겠어? 안 그래 에디터 바?

<랩틴 아메리카>의 슈퍼 방패

미국인 대장 아저씨가 이 방패를 몸으로 들고 다는 게 아니다. 단단하고 튼튼한 건 기분이고 예나저든, 공격이든 충격이 가해질수록 방패의 내구도가 강해진다. 이 방패 하나면 어지간한 공격 따위는 가볍게 막으니 몸통이 보호용으로는 최고다. 당연히 힐 뽀뽀 수백에 그렇지? 디자인어 리?

제이, 올해 나쁜 짓을 (명수처럼) 많이 했어. 신타는 오지 않을 거야. 스브 반대 영구장!



EDITOR'S PICK

“요즘엔
이 신발이
대세야!
바로 나처럼
(응?)”

BY 에디터 박한빛누리

ADIDAS ZX700

러닝화를 여름에만 신어야 한다는 생각년도 미안드는데 지금 당장 분리수거하듯 꼭 겨울입수룩 통풍이 잘 되는 러닝화가 당신 발에 딱은 가장 냄새를 제거해주는 필수 아이템이다. 그렇다고 개나 소나 신는 러닝화를 신으면 한 마리의 클론으로 전 력하니 고민하다.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녀석을 지르자.

가격 109,000원 문의 shop.adidas.co.kr 1588-8241

▶ 질러야 하는 이유

지금 지르지 않으면 나중에 중고 장터에서 무중균이 꽃피는 눈을 영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 이런 사람이면 금상첨화

민자 가슴마냥 맛있는 내 패션 감각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저 놓이 싫다면 요즘물!

PUMA TX-3

퓨마에서 아침 차게 출시한 TX-3은 우주복과 매칭해도 잘 어울리는 아이입니다. 2012년 역시 반티지 유행은 어김없이 찾아올 테니 이놈을 질러두면 올해 말부터 서기 3천 년까지 쪽 이어서 쓸 수 있을 거란 예까지. 가격 94,000원 문의 www.puma.co.kr 070-7012-0888



이거 신고 서울 맨스 로 여자 후리게?

섹시쿠키 크리스 레이스드 ANGEL WING

당신이 보고픈 섹시한 속옷을 여기에 선물했다간 착용샷을 보기는커녕 빈테로 취급받기 딱 좋다. 속옷이 적당히 귀여운 맛이 있어야 여자도 입을 맛이 난다. 귀엽지만, 포인트를 주는 생명한 붉은빛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려주는 속옷이 선 물용으로 딱이다. 절대로 양옆의 스펀지가 가슴을 살포시 모아줘서 A컵도 B컵처럼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고...고른 건 아니다.

가격 브라 33,000원, 팬티 14,000원

문의 www.sexycookie.co.kr 02-320-6666

▶ 질러야 하는 이유

속옷을 사두면 입고 싶어서라도 여자를 만나게 돼 있다.

▶ 이런 사람이면 금상첨화

진한 향보다 달콤한 향수를 좋아하는 20대 초반의 여자라면!

모자를 썼으니 사실상 웃을 일은 센



저 놓이 싫다면 요즘물!

섹시쿠키 매지컬 크리스마스

귀여운 속옷 따위를 보면 딱칠 분위기가머 개질 만큼은 사이지만 크리스마스를 빙 자해 잊지 못할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남아 있나? 섹시함을 넘어서 나무토막 같은 남자도 활활 타오르게 만들 이놈이 적 당하겠다. 남자들이 화장하는 기타벨트 스타 일 연출도 O.K

가격 브라 34,000원, 팬티 14,000원.

기타벨트 17,000원

문의 www.sexycookie.co.kr 02-320-6666

EDITOR'S PICK

FOR LADY

“섹시한
속옷을
무턱대고 선물
했다간 착용샷
구경은 안드로
메다로!”

BY 에디터 김희성



속옷 착용샷 보고 싶은 것 아니었어?

EDITOR'S PICK

“요즘 이 토끼가 제일 잘나간다지?”

BY 에디터 송종민



RABITO iPhone4 Case

흔해빠진 아이폰 케이스는 꺼져라! 귀여운 토끼 모양의 라비토 케이스가 요즘 인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클립 축소이메이저서 종종 발견되던 녀석이 최근에는 당신의 얼굴만큼 특이한 아이템을 좋아하는 여자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꼬리가 달린 신제품도 등장했는데 이들은 스탠드처럼 활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남자라고 이놈을 쓰는 걸 수줍어할 필요는 없다. 우린 애들이 쓸모가 많아서 쓰는 거니까?(응?) 가격 3만 4천 원 문의 kinkirobot.com 02-551-7031

- ▶ 질러야 하는 이유
아이템을 고이게 하는 아이템으로 매우 적절하다. (개)
- ▶ 이런 사람이면 금상첨화
바나걸 의상을 멋지게 소화하는 귀여운 아가씨라면

이 놈이 싫다면 요놈을

UGLYDOLL CLIP ON

귀엽고 따뜻한 감촉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봉제 인형 열쇠고리다.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커뮤이 서로 주고받던 선물이었다. 불과 4년 만에 최고 정년감으로 등극했던 사실은 배가 아프지만, 이렇게 경제적이면서도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선물은 쉽게 찾을 수 없다. 여자용 선물로는 가격 대비 가장 준비가 최강
가격 9,200원
문의 kinkirobot.com 02-551-7031



- ▶ 질러야 하는 이유
명성이 크리스마스인데
- ▶ 이런 사람이면 금상첨화
한정판 패키지만큼 지르지 않고 못 बे가는 사람이라면

빅브 클리코

리미티드 에디션 클릭'업

빅브 클리코가 내놓은 리미티드 에디션 클릭'업은 종이로 만들어진 아이스 버킷이 눈에 띈다. 종이접기 기법에서 착안한 독특한 디자인은 여자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을 테니 작업용으로든 그만이다. 시각적인 즐거움만큼이나 운반과 사용, 보관 등 실용성도 빼어나니 빼어나니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리미티드 에디션 찾기도 쉽지 않을 거다. 가격 90,000원

이 놈이 싫다면 요놈을

임페리얼 클래식12

시티 에디션-평창

또 하나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여기 있다. 사실 저렴한 값에 특별한 가치를 원한다면 임페리얼만한 녀석도 없다. 우리나라 대표 위스키 임페리얼도 임페리얼 클래식 12 시티 에디션-평창'을 내놓았다. 최초의 지역 한정판 주류로 강원도 지역에서만 판매하려다했죠.

가격 500ml 기준 24,915원
문의 www.ImperialWeNeverGoAlone.com
02-3466-5700



EDITOR'S PICK

“리미티드 에디션 술맛은 언리미티드한 느낌이야”

BY 편집장



어...취한다



ULTIMATE TOY ONLY FOR GUYS'S HAND

남자의 손을 즐겁게 하는 장난감은 많다. 하지만 남자의 손을 빛나게 하는 유일한 장난감은 멋진 시계다.

BY 박현범주최 PHOTOGRAPH ARC STUDIO

COOPERATION 토이아일랜드(www.toyisland.co.kr) 032-327-1970

루미노스스왈(www.luminoswatch.co.kr) 알바(www.albaswatch.co.kr)

세이코코리아(www.seikokorea.com) 카시오(www.casio.co.kr)

갤러리아클럭(www.galleriyclock.co.kr) 스왈치(www.swatch.com/kr_1a)



Behind Story: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1966년부터 88년까지 캘리포니아 카말 시의 시장으로도 일했다. 능력 있고 장생관이 할 때는 수많은 여배우는 물론 수영 선수, 수영복 모델, 스타린우먼 등과 영문을 뿌렸고, 66세에 늦둥이를 보았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피규어 130,000원



SEIKO PREMIER SSA02J

130년 전통에 빛나는 세이코의 프리미엄 라인 중 유독 눈에 띄는 SSA02J 모델은 강동원 얼굴에 박지성 심장을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자인과 내구성, 두 마리 토끼를 산 채로 잡았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오인혜의 드레스가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 대단한 것(?)을 품기엔 한 없이 가벼운 드레스처럼 24석, 21,600진동, 4시각의 파워리저버를 갖춘 최고급 무브먼트를 품기에는 세이코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조차 가벼워 보인다. 오토매틱 와인딩과 매뉴얼 와인딩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 흔들려만 준다면 서기 3011년에도 이 녀석은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가격 730,000원

ALBA ACTIVE GENTS AF8N53X

패션왕을 꿈꾸는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많은 입소문을 탄 녀석이다. 시계에서도 한고급 한다는 크로노 그래프를 탑재했지만 가격은 합리적이야 가격대 성능비에서는 최고라는 평명이 났다. 20분의 1초 단위까지 잴 수 있으며, 시원한 크기의 요일 표시창이 특징이다. 방수는 5기압까지밖에 안 되니 죽기 전에 해자를 탐사할 일이 생기면 잠시 물어두고 잠수하도록. 가격 240,000원

Behind Story: 1984

년작 <터미네이터>는 아널드 슈워제네가 옷통 까 채끼고 <코난>을 찍는 중에 9개월이나 제작이 연기됐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노느니 일한다고 바지런히 새 대본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1985년작 <에일리언>이다.

터미네이터 T800 피규어
239,000원
할리데이비스 모형 189,000원



LUMINOX Deep Dive 1501

루미노스는 일반 측광형 야광 시계에 비해 무려 100배 이상 밝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손목에서 에너지를 뿜어 발사되는 것 같다. 게다가 이 빛은 25년이나 유지된다. 지금 산 시계를 미래의 당신 아들이 군대 가서 차더라도 야간 경계 근무는 안심하고 쓸 수 있단 얘기가. '딤 다이브'라는 이름처럼 인간이 들 어갈 수 있...음지도 모를 해저 500m까지 잠수가 가능하다. 해 병대 간 한번의 시계로 더 유명해진 루미노스 Deep Dive. 근대 태평양은 잠수보다 비행기를 더 많이 타지 않나?

가격 2,249,000원

Behind Story: 최등 학교 농구팀 대표 선수였다. 별명은 '백리 오바마' 농구 폭탄 백리. / 키 183cm의 자이언트 명부인 마셜 오바마는 프린스턴대 학부 해병대 백사 출신 병호사. 오바마가 룬림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그의 현토(사수)로 만났다.

군백리 오바마 피규어
130,000원



Behind Story: 영화 <레지던트 이블>에는 준비물이 드글대지만 영화 내내 단 한 번도 '준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를 만든 게임회사 캡콤의 일본 시장, 미국 시장은 영화 속의 준비 엑스트라로 카메오 출연한다.

스낵팩 요한슨 알콜에 <레지던트 이블>의 앨리스 몸을 가진 여자 피규어 185,000원

**SWATCH BLACK COAT
YCB4019AG**

묵직한 시계가 간지 난다는 고정관념 따위는 스와치에게 5공 시절 이야기다. 남성용으로는 다소 작아 보이는 사이즈지만 블랙과 레드의 격한 조화가 '이거는 수컷의 시계'임을 말해준다. 스틸이 아닌 알루미늄을 사용해 무게를 말도 안 되게 가볍게 만들었다. 학생들 따귀를 추러칠 때 묵직한 시계를 벗어야 했던 학생주임 선생님도 이 시계라면 번거롭게 그럴 필요 없어요.

가격 211,000원





Behind Story: 주먹을 뺏는 데 500분의 1초, 한 손으로 탁월이 50개 이상을 하며, 누워서 사자를 쳐 들고 30분 이상 버티던 20세기 최고의 무술가 브루스 리는 15세에 차차차 챔피언에 오른 출중한 인재였다. 원투 차차차보~ 쓰리포 차차차차보~!

브루스 리 피규어 189,000원

CITIZEN Eco-Drive Gents Minute Repeater BL9008-31A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시계를 작동하는 Eco-Drive 기능을 내장한 착한 녀석, 서로 다른 음으로 시·분 단위 시간을 구분해 알려주는 미니트리미터 기능도 탑재한 똑똑한 녀석. 게다가 알람 기능 및 파워추얼 캘린더, 생활 방수 기능에, 스파이어 크리스털 다이얼 구성으로 외부 충격에도 든든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다재다능한 강골 녀석. 요즘 참 질났다, 근데 자꾸에 이상이 생겨 태양을 볼 수 없게 되면...? 크리밍! 태양권을 씹튀! 가격 1,033,000원



VERSACE 12C80D009-S009
V-SPORT

최민수도 개량하게 만드는 <대부>의 돈 클레오 네급 카리스마를 갖고 싶다면 무조건 블랙8골드다. 이 녀석은 고독한 도시 남자의 간지와 크로노그래프 기능은 물론 베젤에 타키미터까지 탑재했다. 타키미터는 시간과 거리를 이용해 속도를 재는 기능으로, 현재 이동 중인 당신의 평균속도를 보여준다. 지금 당신이 탄 차의 계기판을 안 보고도 사속 몇 km로 달리고 있는지를 세계가 알려준다! 마피아처럼 갑자기 납치될 일이 잦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가격 2,280,000원

Behind Story: 일련 브랜드는 돈 클레오네 역이 '뿔뿔처럼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불에 송과 형감을 채운 채 오디션을 보았다. 실제 촬영에서 그는 치과의사가 만든 마우스피스를 썼다.

<대부>의 일련 브랜드 피규어
213,000원



CASIO EDIFICE EF-524SP-1AVDF

국민 배우 안성기, 국민 가수 조용필이 있다면 국민 시계는 단연 카시오다. 카시오가 2009년부터 공식 후원한 레드불 레이싱 팀과 드라이버 마이크 웨버, 세바스티안 베텔의 도전 의지를 기려 만든 이 한정판 시계는 기념념새만 알아도 침을 꿀꿀 흘리는 수컷의 구미를 당긴다. 20만 원대의 착한 가격인 데다 신사동 가로수길에 세워진 BMW 못 지 않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있구먼? 가격 250,000원



Behind Story: 나치 머릿가죽을 모으는 유대인 조직(바스티즈) 리더를 연기한 브래드 피트가 영화 속에서 죽인 사람은 단 1명이다. / 다이앤 크루거의 목을 조르던 손. 미국인 병사 목소리, 독일인 머릿가죽 모형은 모두 감독 티란티노 것이다. 개런티 아끼려고?

(바스티즈-가진 녀석들)
브래드 피트 피규어 189,000원

할리우드
스타 무리가
MAXM에



WATCH OF THE MONTH



스위스 아웃도어 워치 루미노스의 9082.BO

루미노스(Luminox)는 라틴어로 '밝은 밤을 의미한다. 다른 손목시계와 확실히 차별화된 특수 균용 시계로서 확고 부동한 신뢰를 거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루미노스의 9082.BO SR-가 블랙버드는 Valjoux 7750 오토메틱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100m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기 발광형 마이크로 가스 캡슐을 내장한 발광 테크놀로지는 10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직경 44mm의 견고한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를 PVD 코팅하여 블랙의 강인함을 내뿜는 9082.BO는 전 세계 500개 한정 판매이므로 서두르자. 가격 225,000원 문의 02-2234-2233



대니시디자인, 코펜하겐 시리즈 출시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스타일의 대표적인 유럽 전통 대니시디자인(Danish design) 워치에서 코펜하겐(Copenhagen) 시리즈를 출시했다. 대니시디자인의 코펜하겐 시리즈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다. 역동적이고 세련된 유럽미관 스타일의 외관이 특징이다. 크로노그래프에 10기압(10ATM) 방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가죽과 메탈 두 종류의 스트랩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베젤 및 케이스는 블랙, 실버 컬러에 인덱스는 실버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클래식한 디자인과 마테알 강화 글라스와 아날로그 디스플레이로 실용성을 더하였다.

가격 49만 원 문의 02-3397-7100(거코퍼레이션)



세이코와 FC바르셀로나, 꿈을 공유하다!

세이코가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인 FC바르셀로나의 공식 파트너십 체결을 기념하여 '세이코 스포츠와 FCB 크로노그래프 SNAE751'을 선보인다. 이 모델은 긴 곡선 형태의 리그로 편안한 착용감을, 원추 형태의 크로노그래프 버튼이 뛰어난 기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FC바르셀로나를 상징하는 컬러를 메인로 다이얼에 FC바르셀로나의 엠블럼이 새겨져 있어 더욱 특별함을 선사한다. 이 모델을 위해 새롭게 제작된 스페셜 키트에 담긴 이 시계는 FC바르셀로나 선수들의 사인인 담긴 기념 리플릿과 함께 판매되며, 리모델 메시를 비롯한 FC바르셀로나의 모든 선수들에게도 제공한다. 가격 84만 원 문의 02-511-3182 www.seikorea.co.kr



G-SHOCK.

GLOBE UNITED BY FATE 출시

다양한 스트리트 문화와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G-SHOCK이 호주의 역전 스포츠 브랜드 '글로브(GLOBE)'와 작업한 'GLOBE UNITED BY FATE' 모델을 출시한다. 기본 모델에는 시퍼와 스케이티에 인기 있는 GRX-5500을 채용하였고 역정은 비비드한 레드를 사용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 세계 주요 서핑 포인트의 타이도그래프와 문예이터를 탑재하고 빛으로 구동하는 터프슬라, 나일론을 사용한 튼튼한 밴드그리드 등, 이점 뿐만 아니라 실제 액션 스포츠의 사용을 고려한 스펙으로 제작되었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0718(지코스모)



티쏘의 크리스티나 커뮤 아이템

The Gift of Time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커뮤들을 위한 트렌디한 워치 아이템을 소개한다. 티쏘 쿠티어리에 퀴츠 젠트(Tissot Couturier Quartz Gent)는 심플하고 도시적이면서도 최고급 품질을 갖춘 티쏘만의 매력과 모두 부여해주는 인기 제품 라인이다. 이번엔 새로이 쿠티어리에 레디(Tissot Couturier Lady)가 출시됨으로써, 이 두 제품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멋진 커뮤 워치를 찾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가격 레디라인 37만 원.

가격 쿠티어린 47만 원

月刊遺物

월간유물

購讀申請
02-323-1182

영화배우
감독 세나리오
(강의북)

1980년 이후 출판된 모든 영화
사실상의 원본과 보충본을
1980년 이후 출판된 모든 영화
사실상의 원본과 보충본을
국제예술사
266-2495

행동파 스테레오, 마이 마이 오 마이 (1983년)

시몬 나는 아느냐, 배터리가 없으면 짝 없이 연필로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는 것을. 이승훈

“오양 선생님! 제 워크맨을 잃어버렸어요 영영. 엄
마가 입학식 날 사주시던 건데...”

체육시간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온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다. 아들이 그걸 알았더라
웅성거리고 선생님은 왜 그렇게 비싼 물건을
학교에 가져오냐며 야단을 친다. 당시 학교에
서 가장 많이 도둑맞았던 물건을 꼽자면 첫째
가 나이키 농구화였고 그다음에 소니 워크맨
이었다. 교실에는 삼성 마이마이도 있었고 금
성 아ած도 득맞았던 물건은 꼽아지 않은 소니 워크
맨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워크맨은
크기가 여의 폐계 작았고 버티도 잘 들어
진 금속 재질로 누가 봐도 멋져 보였다. 또 그
정어한 음질은 도저히 마이마이와 비교할 것
이 못 되었다. 누가 들어도 쉽게 구분이 갈 만큼
의 차이였다. 그러다 보니 워크맨은 모두의 소
망이고 풍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워크맨을 가
질 수는 없었다. 용산 전자상가에 전시되어 있
던 소니 워크맨은 금성이나 대우 제품보다 많
게는 3배나 비싼 가격을 달고 도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80년대가 어떤 시대였다. 인터넷 쇼핑은 커녕
해외여행조차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던 시절
이다. 때문에 워크맨을 갖기 위해서는 용산 보
따리상들이 필수입매는 물건을 울며 겨자 먹
기로 비싼 값에 사거나 드물게 해외 여행 다
러는 사람들이 한 개씩 사 들고 들어오던 것을 선
물 받는 선택 받은 중자들이 몇몇 있을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국산기술로 저렴하게 발매된
삼성전자의 마이마이는 어찌된 아이들의 좋
은 대체품이었다.

삼성은 소니 워크맨이 출시된 지 2년 만에 자사
의 기술로 만든 첫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를
마이마이란 브랜드 네임으로 시장에 선보이
게 된다. 워크맨의 완벽한 카피 모델이었던 첫
번째 마이마이의 성능이 아예 말한 대로 비
교할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음악 감상의 패러다
임을 바꾼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의 혁신성
은 그대로였다. 학교에서, 산에서 언제 어디
서나 견전지만 있다면 즐거운 음악을 들을 수 있
었다. 남심경 안 쓰고 가들 듣고 싶은 음악만
들을 수 있는 매력적인 기계였던 것이다. 하지
만 헤드폰은 아직 낡은 물건이었다. 당시 헤드
폰은 전화 교환원 아니냐 음악 다방 DJ들이나
쓰는 물건이었다. 초기 모델에 헤드폰 단자가
두 개였던 것도 헤드폰 문화를 익숙치 않았던
시기의 과도기적 특징 중 하나였다. 음악을 함
게 듣는 것이라는 개념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
지 않았던 거다. 또 토코라인 버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누가 말을 걸 때 토코라인 버튼을 누
르면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주변 소리를 헤드
폰으로 들려주는 기능이었다. 헤드폰을 사용
했을 때의 고품질을 걱정할 장치가. 지금 보면 정
말 쓸모없는 기능처럼 들려지만 당시 인간 소
외를 걱정한 엔지니어들의 우려가 담겨 있었
다고 생각하니 따뜻한 웃음이 나온다.

우리는 그 때

1. 대한항공 007편 747 여객기 소련 전
투기 피격 탑승자 269명 전원 사망
2. 어승산 테러 사건 전두환 대통령령
핵심 참모진 순직
3.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성수 구
간 개통
4. 이산 가족 찾기 4개월간 생생방 영영

세계는 그 때

1. 닐센도, 전설의 게임기 페미컴 발매
2. 월리엄 골딩의 《페리대왕》 노벨 문
학상 수상
3. 마이클 잭슨, Billie Jean으로 전성기
4. 영화 《캠프》 개봉

그때 그 기사

워크맨, 개인주의 조장 비판

뉴욕 타임즈는 문명사회에 어울리는 제품
라고 치켜세우면서도 동성 음악 유래론도 함께
펼치고 있다. 즉 가족이나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미국인이 헤드폰 때문에 더욱 고립되는 경향이
일어지고 있다는 것. 여성 잡지 편집자 간부들
클라인 헤드폰 때문에 데이트를 망친 예)를 들
어보면 '나의 보이 프렌드'인 그 시몬은 헤드폰을
끼고 스타레오 음악에만 열중하면서 나보고 들어
보라는 게 아니냐. 나는 헤드폰을 끼고 예, 매우
충동적이고 라고 대답했습다. 헤드폰을 들려주
니까 그는 계속 그것을 끼고 음악에만 신경을 쓰
지 않아요." 그녀는 그녀의 데이트가 마지막 데이
트였다고 말했다. (후략) 동아일보 1983년 11월 13일

대우마케트오오



SAMSUNG

오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오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 워크맨용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용 카세트 플레이어



오토 리버스 기능의
오디오 시리즈 탄생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카세트 플레이어
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오디오 시리즈
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성의
오디오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오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오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 워크맨용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용 카세트 플레이어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동파 스테레오
Active Stereo

My My

YOUNG SOUND, YOUNG FASHION
삼성카세트
三星電子

GEAR OF THE MONTH



지포, 2012 임진년 용의 해 맞아 한정 라이더 시

지포(Zippo)는 2012년 임진년(壬辰年) 용의 해를 맞아 진용(辰龍) 라이더를 선보인다. 라이더 표면에는 용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디자인하고 강렬한 빨간색 규박을 써야 여주승을 문 의 힘찬 기상을 표현했다. 국내에서만 1만 개 한정 출시하는 진용 라이더는 금색, 검정색, 은화색의 총 세 가지 색상이며, 밀린 각인예 "Year of dragon(용의 해)" 이런 각인을 넣어 소장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용의 해에 응우니 라이더까지 준비한다던, 당신의 신년맞이 운세는 그 이렇듯 대박 중의 대박.

가격 99,000원 문의 070-8690-6050
www.zippo.co.kr



이어폰 하나를 귀를 즐겁게 해주자!

음악 하나, 단어 하나를 생생하고 디테일하게 전달하며 불륨을 낮춰도 숨어 있는 모든 소리를 구현해주는 이어폰이 있다면 당신은 구매 할지 아니할 수 있었는가? Atomic Floyd는 더 깊고 풍부한 어쿠스틱 퍼포먼스를 갖춘 HiDefDrumMicrophone을 탑재시켰다. 이는 극도로 얇은 금속 소재로 음향 공간을 극대화, 월드 클래스의 어쿠스틱 사운드를 연출한다. 대부분 헤드폰이 플라스틱 부품들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HiDefDrumMicrophone은 어쿠스틱 스틸, 티타늄, 24K 골드 금속 재질을 소재로 사용했으며, 정밀한 수작업을 거쳐 완성했다. 자, 당신의 선택은?

가격 225,000원 문의 02-2234-2233



프리미엄 사운드의 퀄리티와 세련된 디자인이 만났다.

오디오 명가 쟈니저 (Sennheiser)는 신제품 HD400 시리즈 4종과 HD200 시리즈 4종 등 총 8종의 프리미엄 헤드폰을 출시했다. 귀를 완벽하게 덮어주는 풀 사이즈 밀폐형 디자인을 채택해 집 안에 있거나 이동 중에도 완벽한 소리를 차단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최상의 음질로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 무광으로 처리한 블랙 아이아그와 고광택 화색 링 등 어디에서나 눈길을 끄는 세련된 디자인이 뚜렷한 존재감을 과시한다. 두 제품 모두 애플 아이팟, 아이폰을 비롯한 다양한 포터블 디바이스에도 최적화되어 있다.

문의 02-553-3161 www.koneav.com



키보드와 마우스로 난 백전백승이다!

게임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키보드와 마우스로 무장한다면, 당신은 어떤 게임에서도 백전백승할 수 있을 것이다. 로지텍코리아는 게이밍 신제품 2종 '게이밍 키보드 G105' 및 '게이밍 마우스 G300'을 출시했다. 마우스는 양손형 디자인으로 좌우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기에 장시간 게임을 해도 손목이 무리가 가지 않으며, 키보드에는 먼지나 액체 유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키 스킴이 포함되어 있어 컴퓨터 앞에서 아무리 먹고 놀라도 고백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

문의 02-761-1207 www.logitech.co.kr



역동적인 순간의 영상을 HD 화질로 기록하다!

봇짐 스포츠의 '짐 카메라 및 콘투어 HD 시리즈'와 함께 다양한 아웃도어 영상을 HD 화질로 안전하게 기록해보자. 짐 카메라는 한결 매뉴 인터페이스를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수입 제품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당신이 보다 편하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 LCD 모니터 스크린과 리모컨을 통해서 자유롭게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블랙박스도 손쉽게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문의 02-761-1207
문의 070-4123-9895 www.naver.com/botjimsparts



여자를 위한 스마트폰, 소니 에릭슨 '엑스페리아 레이'

남성적인 스타일의 투박한 여타 스마트폰과 달리 엑스페리아 레이에는 100g 초경량에 9.4mm에 불과한 슬림하고 매끄러운 알루미늄 재질의 스타일리시한 보디 디자인을 자랑해 여성을 흔들고 있다. 셀카 기능, 배경 화면 꾸미기, 태아 설정 등 자칫 놓치기 쉬운 여성들의 민감한 취향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다. 스마트폰 선물도 오렌지엔 여친에게 거머쥘 짐승도 필요하. 엑스페리아 레이의 화이트(엔젤 화이트), 핑크(퀸 펠릭스) 등, 블랙(크 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행복해하는 그녀들의 여자친구 얼굴이 아른거린다.

문의 1588-4170 www.xperia.co.kr



클릭하는 마우스의 시대는 갔다. 터치 마우스 시대의 시작이다.

멀티터치 시대에 마우스만 뒤떨어지면 법이 없던가. MS는 손가락 여러 개를 이용하는 멀티터치 제스처 방식을 이용해 마우스 사용에 필요한 클릭, 스크롤, 창 전환 등의 동작을 터치로 가능케 했다. 마우스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화면을 자유자재로 스크롤하고, 확대 및 축소할 수 있다. 기존 마우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멀티터치 기능으로 재미있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가격 7만 원대 문의 1577-9700

www.microsoft.com/korea

HOT FOR

제군들, 섹시하고 재미있는 여자 선생님을 찾고 있나? 폭발적인 매력을 가진 우주 대스타 **캐머런 디아즈**가 당신에게 화끈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왔다. 말만 잘하면 은밀한 방과후수업도 흔쾌히 해줄 거다!



BY RUTH HILTON
PHOTOGRAPHS GAVIN BOND

TEACHER





(S) Calvin Klein shirt,
Victoria's Secret bra, H&M
skirt, Frederick's of
Hollywood garter belt, Brian
Atwood shoes, Barney's New
York earrings,
(P) Conso shirt, Victoria's
Secret bra, H&M shorts, Aldo
shoes, Saks Fifth Avenue
earrings.

자자, 날마다 오는 수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모든 남성의 학창 시절 판타지를 실현시켜주기 위해 왔다. 심지어 그냥 할리우드 스타도 아니고 캐머런 디아즈!만 아시다시피 지성 그리고 육두문자 클래스가 있다면 아바 A+를 받은 게 분명할 굉장한 유미 감각을 겸비한 이 미녀는, 미친 사람 많기로 소문난 할리우드 스타들 사이에서도 무척 독특한 인물이다. 최근 그녀가 영화 <헤드 티치>에서 맡은 배역은 슬과 약에 빠져 살고, 가짜 가슴을 다는 일에 집착하는 엘리자베스 맥사다. 이 영화는 반갑게도 <세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식 유미 몸 보여준다. 다만... 훨씬 더 야해겠다는 것만 빼고 말이다. 디아즈 선생님, 우린 그동안 아주,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마음껏 혼내주세요, 어서.

8년 만에 MAXIM과의 촬영이군요.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해요!

고마워요. 다시 만나니 좋네요! MAXIM은 진짜 재미 있어요. 너무 심각하지 않으면서 색채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최근 작품 <헤드 티치>는 어땠나요?

어린 학생들이랑 대마초를 피우고 맥주 사발식 같은 것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린 곧장 '섹시 여자 선생님' 판타지 콘셉트로 가게 됐죠.

'섹시한 선생님' 연기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음, 잡지 홍보 촬영에선 처음이에요! 남자들은 대부분 '섹시한 여자 선생님'을 자신들의 판타지 리스트의 맨 위에 두는 것 같아요.

<헤드 티치>로 당신의 전매특허인 섹시 코미디로 복귀했어요. 그 배경이 궁금해요

제 최근 작품들에선 뭔가 채찍이 오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총포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기로 마음먹고 이 작품을 찾았죠.

영화에선 육두문자가 난무하는데, 실제로도 입이 걸췌한가요?

최악이지. 놀리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육두문자?

"Cocksuckermotherfucker!" 이 말엔 왜 내 입에 착착 감기는 걸로가 있어요. 불행하도 말이에요.

* <조카니미사발새끼야!> 정도?

영화 속 캐릭터처럼 차 안에서 물레 대마초를 피우다 걸린 적이 있었어요?

아, 당연히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밖으로 민체 밖으로 던져!"

영화에서 자신들 팀베레이크와 드라이 험핑(Dry Humming), 그러나까 웃 입고 섹스 비슷한 걸 할 땐 단던데, 섹스 직전 단계의 남자를 위해 효과직인 세미 블가



블가 몸을 준비하면?

일단 적합한 옷을 입어야 하겠죠. 거친 소재는 심한 피부 마찰을 일으키니까요. 접촉은 아주 많아야 해요. 친신 스포츠니깐요. 래슬링 경기 같은.

가장 최근에 그럴 한 적은 언제인가요?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이걸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측면이 아주 많아요. 최소 하루에 한 번은 하려고 권하고 싶군요. 또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가슴을 키우는 데 집착하는 여자들 연구했어요. 실제로 가슴 성형을 하고 싶단 생각을 해봤나요?

누구나 가슴을 크게 만들고 싶다면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편견은 없어요.

남자들에게 연애에 관한 팁을 주세요.

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남자들을 사랑해요! 난 모든 남성이 행복하고 자신의 행복을 만나길 바라요. 남자들이 애를 자신을 도전하게 만들고 개만인 것을 잘 잡아 줄 여자가 필요하고요. 반대로 여자들은 남자들이 어렵게 깨낸 열을 싸그리 개우시는 나쁜 년이 되어선 안 돼요.

남자가 갖춰야 할 외모 조건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요?

여자들은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요. 그러나 운동용 해서, 당신들이 여자에게 바라는 것만큼 스스로를 섹시하게 만드세요.

당신과 에이 로드(알렉스 로드리게스, 뉴욕 양키스는 전파 행태에 보이던군요.

맞아요. 완전 좋아요.





캐머런 디아즈

태어난 곳: 미국 샌디에이고
생년월일: 1972년 8월 30일

어릴 적 가장 좋아한 만화:

〈롭과 제디〉. "서로를 죽도록 패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손. "여자를 다룰 줄 아는 듯한 강하고 남자다운 손이 좋아요."

가장 색다른 단어:

SEX. "단어 자체가 험기 세시해요. 이 말엔 뭔가가 있어요."

약동 같은 키스 파트너:

"차질을 안 쓰는 그 모든 사람. 참고로 톰 크루즈도 차질을 쓴답니다."

무엇한 분위기로 가는 가장 빠른 길:

"난 언제나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SEX



“여자를 다룰 줄
아는 듯한,
강하고 남자다운 손이
좋아요.”

실명권, 더
받으세요!



(1) Capri pants: Brian Atwood shoes,
Samsa glasses

Saks Fifth Avenue earrings
(2) Nike Golf T for All Men and shorts, Jimmy
Choo shoes, Nordstrom jewelry



No.1 *Clutch* Shooter!

4쿼터의 사나이, 문태종

BY 김상민 PHOTOGRAPH ARC STUDIO

새다른 그의
모습을
보고 싶나?



ICON

이기고 싶나? 4쿼터를 지배하는
승부사 문태증을 찾아라.
진짜 승부는 4쿼터부터 시작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MAXIM은 색
시한 여자와 유머에 환장한다. 당신
은 어떤가?
딱 보면 모르겠나? 나는 가족을 아끼는
진지한 사내다.

프로 생활의 대부분을 용병으로 지냈
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 유럽에서 필
때는 아내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
고,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는 곁에 있어
주지도 못했다.

우리 나이로 벌써 서른 일곱 살이다.
왜 전성기가 지난 나이가 되어서야 한
국에 왔나?

어머니가 "은퇴하기 전에 한국에서 한
번 뛰어보는 게 어떨까?"고 말씀하
셨다. 한국의 외가 식구에게 농구 선수
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
도 있었다.

슬직히 KBL은 전성기가 지나도 도전할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
유럽에서 마지막 시즌을 뛰었을 때도
몸 상태는 좋았다. 오히려 너무 늦게 도
전하면 추한 꼴을 보일 것 같아서 2010
년에 한국행을 결심했다.

플럭에 가까운 나이에도 격한 필락질이
가능하단 게 놀랍다. 비결이 뭔가? 아
메리카노의 힘인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꾸준한 하체 운동
으로 관리하면 저질 몸매인 당신도 가
능하다.

그래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몸 상태
가 달라지는 걸 느낄 거다. 요즘 들어
부쩍 전성기 시절이 그리웠지?
그때는 번개 같은 스피드를 자랑했
고, 덩크샷도 곧잘 했다. 한국에서 그
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많이 아쉽
다. 같은 팀의 어린 선수에게 "내가
한때 덩크로 날랐다"고 말하면 도통
믿지 않는다(웃음). 이럴 때 전성기가
특히 그렇다.





HOW ABOUT
문태중

2010년 KBL 귀화 혼합 선수 드래프트 1순위로 인천 전자랜드엘리펀츠에 입단했다. 2011년 7월 27일에 동성 문태영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성공해 이제 는 국적도 코리아인.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국내 구단의 눈도장을 찍은 잘나가는 선수였다. 전성기가 지난 지금도 국내의 젊은 선수를 쫓아 싸 드시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문태중

미국 이름: 제로드 스티븐스
태어난 곳: 서울
생년월일: 1975년 12월 21일
신체: 198cm, 99kg
소속팀: 인천 전자랜드엘리펀츠
포지션: 포워드

당신에게 스타클로저란?

신뢰와 육가의 아이콘.

당신에게 소녀시대란?

모르는 사람, 도대체 누군가?

당신에게 힙합이란?

마음의 피스를 찾아주는 음악.
제이지 팬.

당신에게 트레이시 토코린?

헛기 왕성할 때 했던 '토크'.
요즘은 안 그러다.





당신 같은 슈터가 되려면 영화나 만화에 서처럼 눈을 가리고 슛 연습이라도 해야 하나?

그런 건 아무 쪽에도 쓸데 없다. 반복 연습만이 실 경이다. 슛을 쏠 때 늘 같은 몸을 유지하도록 신경 쓰며 연습, 연습, 연습하라라고

NBA의 마이애미 히트에 발탁되기도 NBA 선수 파업으로 꿈의 무대에서 뛰는 걸 포기해야 했다고 들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마이애미 히트의 트라이아웃 캠프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선수 파업으로 캠프 자체가 취소됐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솔직히 우리나라 선수 중 NBA에서 제대로 활약한 선수는 전무하다. 누구가 한국인의 몸집이와 맞지 않는 게 아닐까?

체질상 맞지 않는다는 건 오버다. 다만 한국 선수의 전성기가 20대 후반 즈음에 온다는 게 걸림돌이다. NBA에 입성하려면 젊을수록 유리한데 그런 점에서 손해를 본다. 어린 시절 훈련 방식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선수 중 NBA의 백업 멤버로라도 활약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있다면?

굳이 한 명을 고르려면 김중규 선수. NBA가 선호하는 빠르고 운동력이 좋은 선수다.

그럼 질문을 바꿔서, 당신이 NBA 감독이라면 누구를 뽑을 텐가?

창원 LG 세이커스의 코치 겸 선수로 뽑겠다(웃음).

최근 한국 농구의 인기가 주춤하다. 팀이 특정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은 아닐까?

농구는 단체 스포츠지만 개인의 역할을 모두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런 점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농구의 템포가 빠르다는 생각은 아직 오해 아닌가?

유럽에선 속공을 시도하다 실수하면 필책을 받기에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 지공을 펼친다. 하지만 한국은 속공에서의 실수에는 관대해서 속공이 흥하고,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템포가 빠르게 느껴진다.

한국에서 뭘 첫째에 인천 친팬들을 2위로 끌어올렸고, 한국 국적을 획득하자마자 국가대표 유니폼도 입었다. 불과 2년 만에 해를 건 거 다 세웠다.

실제로 한국에 왔을 때 목표는 대부분 달성했다. 대표팀에서 활약이 미비했던 게 아쉬울 따름이다.

그럼 당신의 선수 생활은 앞으로 몇 년 정도 남은 걸 겁나?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지만 2년 정도는 충분히 더 뛸 수 있다.

운동선수는 결혼을 해야 자신의 커리어가 안정을 찾는다는 말에 동의하나?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책임이 따른다.

애를 키우고, 집세도 내려면 돈을 엉뚱한 데 못 쓰니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웃음).

그 터질 것 같은 말백지라면 총각 시절 여자애 많이 꼬였을 거다. 그런 꿀맛 같은 시간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을 텐데? 내 얼굴이 못 생긴 편도 아니고, 농구도 잘하다 보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웃음). 좀 더 즐기고 싶던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돌아보면 일찌치기 결혼하길 잘한 것 같다.

당신 같은 허벅지만 만들려면 무슨 운동을 해야 하나? 솔직히 말해달라. 스쿼트와 런지를 죽여라 해라. 나는 60kg로 12개, 100kg로 10개, 108kg로 5개씩 2세트나 한다(고)

총허를 수컷의 정력은 축구 선수가 최고고, 그다음이 농구 선수, 제일 마지막이 야구 선수라더라. 동의하나? 내가 어떻게 야구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랑 지면 게 아니니 알 수 없다.

"이것만 제대로 익힌다면 어디서든 농구 좀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는 기술이 있다면?

점프 슛을 익혀라 점프가 높지 않다고 구수원(가리키며) 마라, 낮게 뛰면 되니까

어자에게 가장 잘 익히는 농구 기술은? 당연히 덩크지. 내, 내가 요즘 덩크를 못 해서, 덩크를 언급한 건 아니고(웃음).

당신은 득점, 스텝, 플로링, 덩크 등 무엇을 성공시켰을 때 가장 짜릿한가?

무조건 덩크! 요즘 내 덩크는 개점휴업 상태니까. 할 일 없고, 할 기회도 없다.

을 시즌 당신의 목표는?

팀을 4강에 안착시키고, 플레이오프에선 팀을 우승으로 이끌 거다. 은퇴 후에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MAXIM의 공동 질문?

예쁜 여자를 사랑하십쇼! 브르데



클러치 상황에 강한 걸로도 유명하다. 타고난 건가?

훈련으로 익힐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 클러치 상황을 멋지게 해결하면 경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통해 압박감을 이길 자신감이 생긴다.

클러치 상황에 보통 무슨 생각을 하나? "이 슛은 성공한다"고 믿는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NBA의 레이 앨런을 연상시킬 만큼 깔끔한 플레이 가진 슈터다. 왜 우리나라 토종 선수 중엔 그런 슈터가 없는 걸까?

한국에 처음 있을 때 좋은 슈터가 많다고 들었다. 나랑 비슷한 타입의 슈터 도망을 줄 알았는데 젊은 선수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한국의 플레이 스타일이 바뀐 건지 슛 연습을 예전보다 덜해서 그런 건지 도통 잘 모르겠다(웃음).

하재 감독이 "문태중은 우리나라 슛쟁이 계보에는 낯지"라고 평했듯, 솔직히 당신도 슛 하나만큼은 우리나라에서 대장질 할 자신이 있었지?

우리나라 최고 슈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클러치 상황에서의 슛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 있다.

BASIC INSTINCT

윤채이

〈완벽한 파트너〉의 팜 파탈의 치명적인 유혹에
당신은 이미 넘어갔다.

BY 김성현 PHOTOGRAPH ARC STUDIO WORDAFILM 박한빛누리

STYLING 장난희 HAIR 이도우 ASSISTANT 조다현

COOPERATION 트루센 마루 이너웨어, 코데조컴바인 이너웨어(02-3444-7712),
슈즈원(02-3443-1703)

김정색 언더웨어 코데조컴바인 이너웨어
슈즈 개인소장

남자
타이 트루센
바지 트루센

GO TO
MAXIM
IPAD
미러캐스트



모델로 시작하다 연기자가 되었다. 중간에 의도를 하게 이유가 뭔가?

일단 모델로 밥 먹고 살기가 힘들더라(웃음).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이 당시에는 너무 알게만 느껴졌다. "내 주체에 무슨 배우야" 라는 생각이 들어 성형외과 상담원 일도 해봤다.

당신의 예쁜 얼굴을 보면 내가 여자라도 성형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겠다. 여자들이 입을 가장 많이 대는 부위는 어디인가?

의사마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다. 내가 몸담은 병원장님들은 눈과 코를 예쁘게 만져주는 걸로 유명해서 대부분 눈코를 손보더라.

그때는 사람 얼굴만 봐도 견적서를 뽑을 수 있었겠다. 물론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작업을 공개하지 않았다. 성형외과, 그것도 상담원으로 일한다고 말하면 그 순간 모든 대화가 상담이 되어버린다. 당신도 지금 성형과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했잖아

젠장 틀렸군(웃음).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자신의 얼굴 중 어느 부위를 가장 손보고 싶은가? 눈은 큰데 쌍꺼풀이 없어서 한때 수술을 고려했다. 하지만 청순한 자연산 얼굴이 제일일 것 같아서 권됐다.

얼굴을 보는 데 아굴이 뵈을 테니 남자친구를 고르기도 쉽지 않았다.

외도는 오히려 보지 않는다. 아버지가 미남이어서 이래저레 힘들었다(까웃음). 평범한 외모에 착한 상성을 가진 남자가 이상형이다. 물론 스타일이 좋으면 금상첨화겠지.





성형외과에서 근무할 때 연동이 짝꿍했다고 들었는데
유쾌하게 그만둘다.

그때는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 친구를 엮을 때마다
인센티브로 돌아왔으니 생활은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용돈을 받아 생활 중이다(웃음).

도대체 연기가 뭐길래 사람들이 안정된 실도 때려치우
고 도전하는 건가? 마인드 아니고 말이다.
스물세 살이었나 몸이 심하게 아팠다. 그때 한 번 시는
인생인데 꿈에 도전도 못해보고 끝내면 억울할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에 재도전했다. 그뿐이다.

나를 고생해서 드라마 《일지매》를 비롯해 다수의 작품
에 출연했는데 아무도 당신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나름 CCTV 드라마 《내사랑 제주》
에서 여주인공을 맡을 만큼 잘나갔다. 하지만 회사에
일이 꼬이고, 캐스팅된 작품이 몇 차례 캔슬되면서 고
생길이 열렸다. 그때는 운도 따라주지 않았다.

영화 예기로 넘어가자. 여자들은 보통 친구끼리 특목
탕도 안 갈 정도로 타인 앞에서 노출을 꺼리는데 《완벽
한 파트너》에서 당신은 확연하게 옷을 벗어던졌다.
영화에서 노출은 캐릭터를 보여주는 위한 수단일 뿐이
다. 실제로 연하는 모든 남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매
력이다. 작품 속에서 캐릭터도 잘 살아 있고, 무엇보다
주인공이었으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웃음).

하지만 몇몇 양아치 같은 기자는 《완벽한 파트너》를
“살색 영화가 흘러온다”는 타이틀로 소개했다.
MAXIMI 굿디 핑핑 신공을 시전해줄까?
살색 영화인 건 사실이다(웃음). 남녀간의 솔직한 연애
를 담은 영화라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리얼하게 등장
한다. 그렇지만 결코 아하게 느껴지는 영화는 아니다.

어쨌든 ‘살색’이라니 내 쿨구멍이 갑자기 뿜어져나오
는군. 그나마 배드신을 어떻게 찍었길래 배우가 까
무러칠 수가 있나? 그런 건 별도의 성인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을 알았다.

군살 없는 몸매를 위해 한창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노
출 연기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절정에 달하니까 나
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 그때는 촬영 중간중간마다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지금까지 호흡을 맞춘 배우 중 가장 ‘완벽한 파트너’
는 누구인가?
김영호 선배님! 노출 연기를 함께했다니 많이 가까워
졌다(웃음). 힘든 연기였지만 선배님의 배려 덕분에 많
이 배울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신 예쁜 걸론 모자라 노래까지 잘한다고 들었다.
치사하잖!
기교를 부릴 정도는 아니지만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려
고 노력한다. 처음에 서력했던 김영호 선생님과도 노래방에
서 친해졌대웃음!

가수 제외도 적잖이 받았을 텐데 이참에 투잡을 뭘 생각
은 없었나?
연기 이외에는 생각해 본 적 없다. 나에게는 연기가 전부다.
출연한 O.S.T 음반이라면 고려해볼 생각이 있다.

여배우는 쉬는 시간에도 대체 무얼 하며 지나나?
(서든어택을 즐긴다. FFS 게임이면 정말 함장한다웃음).
공방에서는 1등은 항상 내 차지다. 계급은 중위 5호봉!

조만간 게임 덕후의 여신으로 통극하겠군. 마지막으로 당
신의 꿈은?
한 사람의 배우로 인정 받고 싶다. 연기 하나만으로도 관객
의 공감을 자아내는 여배우가 되는 게 나의 꿈이다.

그때가 되면 <서든어택> 스타일의 화보로 한번 기보자고. 





윤채이

생년월일: 1984년 7월 9일
신체: 170cm, 43kg

불문의 배우: 무명 시절 동안 여러 작품에 출연할 뻔 했지만 전부 허당, 크랭크인 며칠 전에 작품이 없어지기도 했다.

중국에선 관찰일자: SBS (일지매)로 데뷔 이후 중국 CCTV에서 방영된 한중 수교 합작 드라마 《내 사랑 제주》에서 주연을 맡았다. 중국 쇼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알아보는 사람도 꽤 많았다고.

이제는 진짜 스타: 《완벽한 파트너》 이후, 이를 연속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1~2위를 오르내리는 폭풍 관심을 받았다.

“FPS 게임이면
정말 환장한다”

원색한 컴퓨터
리프팅이
궁금하다면



OF BY FOR

BLIZZA

지난 10월 태평양을 건너 블리자드 덕후의 성지 블리즈컨을 순례하고 돌아 온
게임 담당 에디터의 결론 "덕중의 덕은 역시 양덕이다" BY 김성현

블리즈컨의
생생한 현장
공개





게이머를 위한 축제, 블리즈컨 2011!

당신이 게임을 중 하는 수컷이라면 한 번쯤 다녀와야 할 성지 순례 코스지.



내 인생 첫 키스

GIFT BOX

블리즈컨 2011 선물 보따리
올해의 특템은 무엇인가?

올해 블리즈컨의 선물 보따리에는 (C)와 블로3)의 티라렐 피규어, (D)와 블로3) 한정 배틀넷 인종기, (와우)의 예원용 코드, 카드 게임 신규, 후원 업체의 프로모션 코드 및 베스트 이벤트 코드가 들어 있었다. 이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건 (D)와 블로3)의 티라렐 피규어 싸움이었지. 참고로 2009년 블리즈컨에서는 (스타2)의 해방 피규어, 2010년에는 (와우)의 데스윙 피규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MEGA SCALE

블리즈컨 가이드 앤의 등장!
필요해? 그런데 엔스토어에 없어?
그럼 하나 만들어 주.

올해 블리즈컨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것 중 하나는 아이폰용 가이드 앤이었다. 행사장인 에너허임 컨벤션 센터가 워낙 큰 데다 행사가 부스별로 동시에 진행되니 스케줄 관리를 잘못했다면 비싼 돈 내고 돌아와 헛된 쓰기 딱 좋았다. 블리즈컨을 찾는 덕후들이 '블리즈컨을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정장대장 블리즈드는 "그래 알았어. 콜"을 외치고 아이폰용 가이드 앤을 독막 찍어냈다. 확대·축소가 가능한 지도를 기본 탑재했고, 공식 행사 정보 보기는 물론 약속 정소를 표기할 수도 있는 데다 이동 경로까지 확인 가능한 훌륭한 녀석이다. 더 이상 귀찮게 팝업할 때 뒤를 두고 다닐 일은 없다.

블리즈컨이 도대체 뭐래?

블리즈컨은 에너허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블리즈드의 게임 소울로 6회째다. 입장권의 가격이 장당 175달러에 달하는 유료 행사지만 블리즈컨 참가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풍성해서 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좋아하는 게임의 최신 버전을 가장 먼저 즐길 수 있고, 게임 개발자와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마련되며, 최고의 프로게이머가 펼치는 e스포츠 대회, 코스튬 및 댄스 경연대회까지 무진한 행사가 펼쳐진다. 올해 블리즈컨의 피날레는 록 스피드 추만한 푸 파이터스 형님들이 맡아주었다.

블리즈컨은 왜 흥하는가

블리즈드의 최고운영책임자 폴 샘즈는 "행사를 끝내자마자 철저한 분석한 후 바로 다음 블리즈컨 준비에 돌입한다"며 "결과 분석에는 참가자의 반응과 의견이 핵심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관계자 입장에서 하는 소리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동류의 인간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게임은 양덕들에게 당연한 취미 생활이자 즐길 거리지 방구석에 처박혀 죽기 살기로 매달려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다른 이와 소통을 막는 유해한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블리즈컨이야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블리즈드 게임을, 자신만큼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 신나게 노가

리를 할 수 있는 축제라고 여긴다. 따끈따끈한 신작과의 조우는 그저 열일 뿐이다. 그래서 블리즈컨을 찾는 이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즐기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양덕의 위업론은 하이 퀄리티 코스튬 플레이가 가능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저 예쁜 부스걸에 게 하얏대며 사진이나 찍어대는 국내의 게임 소와는 근본부터 다르다.

LG의 모니터 조공

블리즈컨 덕후를 감동시킨 LG의 3D 모니터



게이머만큼 IT 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도 없다. 그러나 블리즈드와 친구를 먹고, 어필게이트 행사장에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싶은 업체도 줄을 설 수밖에. 올해는 LG전자가 블리즈드와 일흔을 맺고 3D 모니터 40대를 설치해 (스타2)를 3D로 즐기는 기회를 제공했다. 블리즈컨을 방문한 수많은 양자가 "이거 플라 좋군"이라고 외치는 걸 보니 기본이 나쁘진 않지 않겠나?



푸 파이터스는?

16년 동안 수천만 명의 앨범 판매 기록과 여섯 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록 스피드 피너는 행남을 되시켰다. 4년 만에 나온 일곱 번째 정규 앨범 (웨이스트)의 홍보를 위해 블리즈컨에 진히 출동해 주었다.



블리즈컨 2011에는 무슨 일이?

이 소식이 전해지자 블리즈컨은 덕후들의 포화로 가득 찼다. "WOW!"

블리즈드의 CEO 마이크 모하임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못지않게 프리젠테이션에서 사람의 정신을 반쯤 빼놓는 짓을 잘한다. 올해 개막 연설에서 시작부터 "벌써 여섯 번째 블리즈컨이고 우리도 20년이 됐다든 것이 믿을 수 없다"며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게임 완성도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하면서 행사장에 모인 수만 명의 열혈 덕후들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스타2> 미국 본토에서 진짜하기 스포츠로 굳히기에 들어가다

CEO 마이크 모하임이 블리즈컨 2011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건 "공통의 GSL. 결승전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진 다"는 사실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한국 프로 게이머가 최고의 기량을 펼치는 것을 감상하라"는 말의 이면에는 블리즈드는 <스타2>를 미국 본토에서도 한국 못지않은 e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번 블리즈컨 토너먼트에 걸린 30만 달러에 달하는 상금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최근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젊은이들은 e스포츠를 우리나라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즐기기 시작했다. 바크레프트(BaB)와 스타크래프트(StarCraft)의 합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야구와 축구를 보듯 맥주를 즐기며 이스포츠를 관람하는 젊은이가 늘었다. <월드트리즈자널>에서 이들을 언급할 정도로 바크레프트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스타2>가 있다. 바크레프트에서 가장 인기 높은 경기 역시 <스타2>에서 미친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프로게이머의 경기다. 이렇듯 진정한 블리즈컨에서 게이머의 황후가 될 것인 데 달한 행사 역시 <스타2> GSL Oct. 결승전과 블리즈 컨컵 인비테이셔널 결승전이었다. 특히 GSL Oct. 결승전에서는 한국 선수끼리 맞붙는 경기였음에도 현장의 미국 팬들은 슈퍼북에서나 보일 법한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적인 응援을 나눴다. 블리즈드는 이번 블리즈컨에서 e스포츠로서의 <스타2>의 흥행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e스포츠의 밑거름을 늘리는 데 성공한 셈이다.

디아블로3 한정판 공개에 와우 연간 이용권 추가!

이번 블리즈컨에서 <디아블로3>의 발매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패키지 디자인과 한정판은 공개됐다. 마이크 모하임 CEO가 "한정판은 게임 디스크와 개발 뒷이야기가 담긴 디스크 세트(DVD 1장+블루레이 1장), 컬렉터스 에디션 사운드트랙, 아트북, 디아블로 해골 피규어와 4GB 소울스톤 USB 메모리는 물론 <와우> 예판물들, <스타크래프트2> 배틀넷 초상화, <디아블로3> 이티팩트도 들어 있다"고 밝히자 행사장은 덕후들의 포화로 가득차더금도 블리즈드가 내놓은 한정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니, 게임 팬이 아니라도 하나쯤 질러두면 재테크 수단으로 꽤나 쓸쓸하다. 이어 "당신 이 <와우> 연간 장액 이용권을 구입하면, 하지만 발매어를 아직까지 한국은 <디아블로3>에 대한 등급 심의가 나지 않아 <와우> 1년 장액권을 선물리 판매할 수 없다. 블리즈드의 입장에선 연간 이용권으로 유저를 길게 묶어두는 게 이득인데 <디아블로3>가 발목을 잡는 상황인 거다. 다행인 건 <디아블로3> 한정판은 국내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란 사실. 비록 구성품의 세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지만 말이다(엔드 도대체 왜? @*#&*#&*)".

와우와 스타2 확장팩, 블리즈드 또다 공개

이와 관련한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하겠다. 여기서 간단하게 다음 내용이 아니라니가 그려내!

USELESS FACT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부스레기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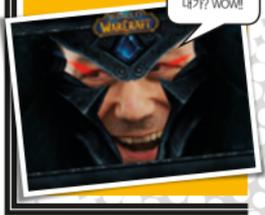
착한 일 있어!
블리즈드는 마이크로 어 워시 재단을 통해 80만 달러 이상을 영도의 자선 해일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이 외에도 <와우>를 처음 서비스할 당시 사용했던 서버를 경매에 부쳐 판매 금액 전부를 세이브 주드 어린이 병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알다시 싫어!

올해는 블리즈드의 명명한 법규인 게임 중 하나인 <디아블로>의 탄생 10주년이 다. 이때부터 사적인 배틀넷은 <스타크래프트>에서 꽃을 피우고, 블리즈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영화 찍을거여!

<와우>가 영화화된다. 걱정 마라, 영화가 <와우>를 능숙할 일은 없다. <스파이더맨>을 찾지게 만들어낸 샘 레이미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현재 <오즈의 마법사>를 열심히 촬영 중이던 스크린트와 스토리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샘 레이미와 <와우>의 조합이라니 이것 참 기대가 되는 걸.



BLIZZCON

COMING SOON

(와우)의 이번 확장팩에서는 아예적으로 주요 인물이 타락하지 않았다. 대신 블리자드는 그간 주춤했던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팬커기에 주목할 것임을 밝혔다. 물론 블리자드는 중요 인물들 하나를 타락시키는 걸 즐기지만 다음 확장팩에서는 우리 판다퀸이 아시서처럼 타락해 '죽음의 편다가' 된다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판다퀸 보러 가기!



핫한 신작들이 온다

포인트만 콕 하고 짚어주겠다. 눈동자 굴릴 준비 됐지?

디아블로3

비공개 서비스 한국에서도 실시!

블리자드원 소속 중 한국 팬이 가장 기뻐했던 건 블리자드가 한국에서도 <디아블로3> 비공개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사실이었다. <디아블로3>의 한글 버전을 최초로 공개할 때만 해도 북미 위주로 비공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블리자드에서 블리자드 부사장 밥 브라이언베커는 "한국은 PC방 문화가 있고, 유저들이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본 소식인 건 분명한데 차츰 한국에서 진행될 <디아블로3>의 비공개 서비스에 당첨되는 유저는 2013년형 타임머신에 탑승할지도 모르니 주의하도록!

디아블로3 현금거래장 서비스는 가능?

블리자드에서도 현금 거래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디아블로3>가 현금거래장을 고집한다면 사형상을 지극한다는 논리 때문에 한국에서 심의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블리자드 관계자는 "디아블로3는 심의를 신청하기 전이라 예측하는 건 어렵다"며 "통과되지 않는다"며 그때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의 통과와는 별개로 검토 결과 현행법상으로는 현금거래장이 법률을 위반하는 요소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디아블로3>는 현재 한국 외 5개 국가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현금 거래장과 관련해 이슈가 된 적은 있지만 등급이 나이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한국은 이번 차례에 별 때 게임을 서비스하기도, 게임을 즐기기도 참 파란만 나라인 셈이다.

와우 확장팩: 판다리아의 안개

판다퀸의 등장!

이번 확장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새로운 종족 판다퀸이다. <공부팬더>를 연상시키는 판다퀸은 <워크래프트3>의 중립 영웅으로 등장해 귀여운 외모와 독특한 스킬로 사랑받았다. (와우) 역사상 최초의 중립 종족이며, 영웅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는 데다 새로운 직업 수도사를 체형해볼 수 있다. 중립 영웅이지만 고향을 떠날 때 얼라이언스의 호드 중 어디와 한편을 먹음은 결정해야 한다. 결정하고 난 후에는 진영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내린 결정을 반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자. 참고로 캐릭터의 최고 레벨 역시 90으로 상향되었다.

애완동물 전투 시스템 도입

<와우>에서 본격 '포켓몬 전투'가 가능해졌다. 한마디로 애완동물을 끌고 싸움을 붙일 수 있는데 이긴다고 주어지는 보상은 따위는 쥐짤도 없다. 그럼 왜 하나? 재미있으니까. 애완동물 역시 노가다를 통해 레벨이 상승하며, 그에 따라 공격력과 수비력 등 나름의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당신이 데리고 다니는 애완동물에게 캠퍼를 시키려면 바지런히 키워두란 얘기다.

디아블로3
옛보기!



HOT DEBUT

<디아블로3>에서 데뷔하는 악마들은?

일곱 악마 중 남은 두 마리 배리얼과 아즈모던이 드디어 출격한다.

배리얼: 거짓의 군주

배리얼은 타락의 아이모넨이다. 상대의 공포를 조정해서 싸우는 게 취미다. 심지어 아즈모던과 손잡고 나뭇잎을 잘라내는 악마 3인방 매피스토, 바알, 디아블로마저 인간계로 내쫓아버렸다. 이놈이 이번 <디아블로3>에 등장해서 도대체 어떤 음모를 꾸미는 지 알아보는 것도 플레이어의 즐거움이 될 거다.

아즈모던: 최악의 군주

<디아블로3>의 케인! 20년간 주구장창 강고했던 악마들의 공격의 배후가 다. 심지어 아즈모던과 손잡고 나뭇잎을 잘라내는 악마 3인방 매피스토, 바알, 디아블로마저 인간계로 내쫓아버렸다. 이놈이 이번 <디아블로3>에 등장해서 도대체 어떤 음모를 꾸미는 지 알아보는 것도 플레이어의 즐거움이 될 거다.



드디어 캐리건
제왕이!



SHUT UP! SHUTDOWN!

블리자드 VS. 여성가족부

일단 블리자드의 판정승이라고 볼 수 있겠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섷대는 제도도 정말 필요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성가족부의 패기 넘치는 선포!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상아 시간대(저장~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다. 섷대문제를 시정해달라는 청사진은 집에서 부모님의 주안점인 영화를 시청해서 게임을 즐기게 뻔한데 그 저 심야 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만 하면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순진한 상상을 하고 있던 거다. 이놈의 여성가족부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스타크래프트2 군단의 심장

캐리건 주인공에 등극하다

그래, 드디어 (스타2) 군단의 심장에서는 여자인구를 찾아 해매는 시꺼먼 수컷이 아닌 칼날여왕 캐리건이 주인공으로 등극한다. 캐리건이 분노해 마치 없는 맹스크를 태도하기 위해 어떤 짓거리로 벌일지는,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만큼 탄탄한 구성이 매력적인 캠페인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새로운 유닛의 등장

저그는 (스타 1)의 디파일러 스타일의 살모사어와 자살 폭탄을 만들어내는 군단 속주(가)가 추가됐다. 살모사는 미병형 유닛으로 지상 원거리 유닛의 사기(가)를 줄이는 핵공격과 먼거리(가)에 있는 적 유닛을 던져올 수 있는 납치, 킨의 페라나이트와 같은 인구 기생충 소환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인구 기생충은 토르 같은 거대 유닛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군단 속주의 공격력 따윈 없지 만 명속에 속으면 지상 공격이 가능한 시종을 생산해 상대 진영을 공격할 수 있다.

테란은 대치, 대공이 가능한 분쇄기 토르의 축소판 공간이 추가된다. 분쇄기는 정지할 때만 공격이 가능하며 공성전과 함께 사용해서 전선을 꾸밀 때 쓰면 된다. 투건은 대치, 대공이 가능하며 기동성도 좋지만 사기(가)가 썰다. 대신 메커닉 유닛에게 추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프로토스나 메커닉 전술을 사용하는 테란 상대로 적절한 유닛이다.

프로토스는 케세어와 비슷한 폭풍과 마법 유닛 예언자, 적 유닛으로 변신 가능한 복제자가 추가된다. 폭풍은 (스타1)의 케세어처럼 스톰레스 데미지가 위력적인 유닛이다. 차(가)가 있던 미(가)인하(가)마 지상 공격도 가능한단 점 예언자는 견제 위주의 유닛이다. 상대의 평물을 깨지 못하게 하는 분쇄 스킬과 테란의 스킨과 비슷한 천리안 스킬이 있다. 차(가)가 있다면 상대의 개발 기술과 생산 중 유닛도 알 수 있다는 점, 차(가)인 이동 기술로 공격을 받는 아군 건물은 물론, 기술을 개발 중인 건물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 복제자는 (스타1)의 디크 아군이 상대편의 유닛을 빼앗아 오는 걸 뛰어넘어 그냥 유닛을 복사해버린다. 이놈 덕분에 프로토스는 테란의 공성전과도 같은 격의 감응충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SECRET WEAPON

블리자드의 숨은 히어로

와우 아래나 위너 OMG를 찬양하라!

혹자는 블리자드에서 영감이 가장 풍부했던 순간은 (와우)의 아레나 33 결승전 이었다고 말했다. 그란 토키먼트 내내 바진갑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다. 한창에 있던 와우 팬들은 정말 절절할 정도였지. 특히 우승을 차지한 한국의 OMG 팀은 다른 프로 팀에서는 거뜬해도 안 보이는 사냥꾼을 유묘하게 활용했고, 차(가)는 개야(가) 흔히 쓰는 패턴이 아닌 독창적인 공비(가)레이션으로 (와우) 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결승전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자 수많은 양키(가) OMG 팀의 미친 듯한 팀워크, 그리고 총재(가)미는 싸움공예(가)가 갑탄, 갑탄, 갑탄을 금지 못했다. 백문이 불어일건 QR 코드를 찍어 이들의 미친 경기를 감상하라. 와우 팬들이 왜 OMG 팀의 장점을 칭송하지 않게 될 거다.

와우 아래나
결승전
보러가기!



블리자드의 반격

블리자드에서 블리자드의 램 브라이덴버거 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답변했다. “(스타1)이 섷대하는 과거의 배틀넷은 나온 지 10년이 넘은 시스템이고, 이걸 제대로 손볼 엔지니어도 없고, 무엇보다 이걸 건드리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섷대문 제도를 준수하면서 그 시간대에 배틀넷 자체를 다운시켜서 수밖에 없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사바(가) 없었어. 섷대문제 지켜줄게. 그냥 아예 구매를 못하게 하고 차(가)해버리면 되지 뭐. 우리(가) 아(가)나. 내내 유저들이(가)습(가)!” 되겠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놀이머는 여성가족부

블리자드가 이렇게 세계 나옴자 여성가족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스타크래프트2(가) QR 형태로 판매되고 개인용 컴퓨터로 접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섷대문제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는 예외적인 단계를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배(가)자로 판매된 블리자드의 (스타1), (디(가)는 섷대문제 적용이 2년간 유예되는데 이들 게임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섷대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스타1)을 즐기는 성인 게이머와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일단 뒤 철저히 없고, 강(가)도 없고, 제(가)도 없는 섷대문제는 왜 하(가)고 난리(가)지 도통 알 수 없다.

당연히 블리자드 한국 지사는 “블리자드는 이들 게임이 섷대문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 굳이 구매를 넷 사(가)를 차단하지 않겠다”며 병행로 나왔다.



블리자드의 영웅들 모여!



진짜 '도타'가 나타났!

고교사들의 <도타> 싸움을 지켜보던 블리자드가 드디어 길을 뚫었다.

도타가 원데?

블리자드의 맵 제작 둘로 만든 게임을 보통 모드(MOD)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즈맵 게임이라고 부른다. <도타>는 <워크래프트2> 오리지날의 시칠 끝자락에 등장했다. 이때 처음 사용된 배경이 스타크래프트의 스트리 맵 중 하나인 '이온 오브 스트라이프(Aeon of strife)'였고, 이후 이런 스타일의 게임을 AOS 장르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사실 <도타 오리지날>은 인기가 그리 많지 않았다. 스트리 픽이란 녀석이 비동등이 어변아 (<도타 올스타즈>를 만들면서 포텐셜이 터진 거다. 이후 여러 명의 개발자를 거친 <도타> 시리즈는 6.0버전 이후부터는 아이소프로그를 영입한 후 <도타>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시작했다. 개인적이고 고유 창작물이 아니어도 <도타>를 보통 영사기 아닌 상표로 사용하는 건 도의식 문제였다. 나름 <도타>와 연이 깊었던 스트리 픽과 스티브 데스콘이 만든 라이엇 게임즈도 <도타>와 유사한 AOS 장르의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내놓았지만 <도타>라

이름은 내놓고 쓰지 않았다. 뒤늦게 라이엇 게임즈가 밸브의 짓거리에 분노해 같은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 신청을 냈지만 밸브는 개의치 않고 <도타>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최근까지 <도타>는 아이소프로그의 영향을 받고 있던 게 사실이고, 이런 쿡저러풍 때들어도 밸브가 내놓은 게임의 퀄리티는 팬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도타>는 <도타>는 물론 <리그 오브 레전드>를 위협하기 충분한 퀄리티 게임이 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어이가 없는 블리자드

밸브가 <도타>의 상표 등록을 시도하자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어이 없었다. 실제로 블리자드의 맵 팔도 부사장은 '워크래프트3' 커뮤니티에서 <도타>를 빼앗아 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결코 울지 않다고 밝혔다. 사실 블리자드 입장에서 AOS 장르의 예기치 않은 돌풍을 눈여겨보지 않았을 리 없다. <도타> 시리즈는 개성이 뚜렷한 고대 영웅들이 한자리에서 싸우는 전투가 핵심이고, 그만큼 캐릭터가 게임의 재미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외우>와 <디아블로3>, <스타즈>의 인기 캐릭터를 망라한 블리자드가 본격적으로 <도타> 시리즈를 만들면 경쟁 우위에 서는 건 예정된 결과였다. 애초에 <도타>는 저사의 맵 데이터에서 출발한 게임이 아닌데가

실체를 공개한 블리자드 도타

올해 블리자드에서 <블리자드 도타>는 드디어 실체를 공개했다. 블리자드 관계자가 "기존의 <도타> 시리즈를 좋아한다면 반드시 값싼 선물이 될 것"이라고 못 박을 만큼 게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블리자드 도타>는 블리자드의 게임이 그러하듯 배우기는 쉽지만 고수가 되면 어려운 게 특징이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저것 공부해야 하는 것에 질려 <도타>를 접은 유저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기존 AOS 게임과 달리 방어탑의 에너지를 줄여 처음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게끔 유도했고, 중립 지역을 점령하면 아군 병력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강화된다 점도 주목할 만하다.

블세출의 영웅이 한자리에

<워크3> 최고의 패륜아 아서스, <외우> 최고의 쾌남 스칼, <스타즈>의 예쁜이 노바와 칼날여왕 캐리건, 무똥똥한 남자 제라툼, <디아블로3>의 워사터터까지 마블 코믹스의 <시빌워>처럼 <블리자드 도타>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블리자드 히어로가 한자리에 모여 푸덕거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 가슴에 불을 지르기에 충분할 거다. 이들은 공격형, 방어형, 지원형, 공성형으로 나뉘는데 모든 영웅은 자신의 캐릭터를 영성시키는 고유 기술을 사용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영웅들이 때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블리자드 도타>에 등장하는 영웅 각각의 캐릭터 스토리를 최대한 살려 게이머가 몰입해서 즐기게끔 하는 게 블리자드가 내세운 목표다.

스타크래프트2 유저리엄 공파

블리자드는 "스타2" 유저리엄 <블리자드 도타>를 공짜로 줄길 수 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의 영웅만 선택이 가능하며, 게임을 하면서 사용 가능한 영웅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료로 게임을 하는 게이머에게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한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고, <스타2> 자유의 날개나 군단의 심장을 구매할 게이머에 한해 특수 영웅을 선택할 권리를 줄 수 있다는 여자는 남겨뒀다. 영웅 선택권을 얻게 될 후에는 특정 영웅으로 플레이하며 다른 추가적인 아이템(대군, 왕관 등)의 권한을 확보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블리자드 도타>는 <스타2>를 베이스로 제작돼 게임 상용 매칭 기능 등 기존 베타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게이머 입장에서 장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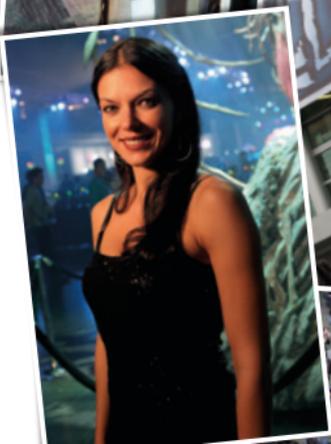




화보로 감상하는 블리즈컨 2011

GO TO
MAXIM
iPAD
미공개 컷

당신이 원하는 게 아마 이거였지? 미공개 사진은 아이패드 앱과 MAXIM 홈페이지의 HQ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으니 어서 달려가도록!





All Night Home Alone with 이신애

온게임넷 <신애와 밤샐기세.sca>를 통해 단숨에 게임 요정으로
군림하게 된 이신애의 나홀로 크리스마스. 그녀를 알게 된다면 당신도
신애와 밤샐기세!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WORKS/FILM 송준민
HAIR/MAKEUP 허한정
ASSISTANT 홍다연, 한영준





니트 원피스 클럽오나코
안다웨어 코디즈컴바인 이너웨어



DECEMBER 2011 MAXIM 105





온게임넷 <컨깡에 참가자>, <산애와 밤샘기세.scx> 등 주로 지구력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게스트되고 있다. 채택은 자신 있나?
문재업:과도하고 체력 시간에 뛰어야다가 여자 축구부 감독한테 선수 제의를 받은 적 있다. 채택에서 1분에 뒷물일기기를 60 개까지 해봤다.

남편이 나도 절대 업무를 못 내는 수지인데 대단하다. 어릴 때부터 MC가 되고 싶었나?
완례: 연극영화과에 다니던 연기자 자원생이었다. 대학교 1학년 때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 지금의 소속사를 만나 방송일을 시작하게 됐다. 스무 살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학교생활을 마쳤다... 어느새 재정이 됐다.

왜 연기가 되고 싶었나?
중학생 때 <여인천하>의 강수연 씨 연기를 보다가 나도 이렇게 소름 끼치는 연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부모님께 연기가 되고 싶다고 말했더니 아빠가 나는 못 생겨서 안 된다고 하셨다.

뭐라고? 장인어른 눈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닌가?
아빠가 나를 너무 챙겼다. 지금도 통금이 2사이다. 이 나이에 클럽과 나이트 한 번 못 가봤다면 말겠나?

못 말겠다. 그렇다 통금은 언제 풀리는 건가?
나도 너무 궁금해서 여쭙았는데 <크민 끝났다> 고만 하셨다. 나는 스무 살이 바로 그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된다고 하신다.

신인일 때 <산애와 밤샘기세.scx>라고 대들 이름을 건 방송을 시작했다.

회의 중에 갑자기 국장님께서 당시 유행어였던 '~해서 밤샘 기세'를 프로그램 제목으로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다. 그 덕에 얼떨결에 내 이름이 걸린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됐다.

원래 성격이 이렇게 쾌활한가?

방송이랑 실재랑 똑같다. 정말 별다. 그런데 실물은 방송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 키 크고 덩치도 있고 얼굴도 큰 줄 안다. 헛 크게 다 영글 탓이다. 내가 완전 앞에 앉아 있다고

서양계 3년이면 통일을 들는다고 '마이 스타리그' 서울 예선에 참가해 1승을 달성했다.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중진호 선수와 게임 못한다고 무시해서 욱하는 마음에 미친 듯이 연습에 매달려서 참가했다. 아침까지 밤새워 가며 연습하고 생방송을 한 적도 있을 정도다. 상대방이 나보다 손이 느려서 이길 수 있었다. 진짜 너무 신났다!

아무리 게임 프로 진행자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스타를 좋아하더라 쉽지 않은 일인데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사실 실 해도 보기 좋다. 처음에는 스타크래프트를 싫어했다. 남자들이 PC방에서 담배 피우고 라면 먹으면서 패인물로 있는 게 너무 보기 싫거든. 하지만 방송을 통해 게임을 자주 접하다 보니 '남자들도 어쩔 수 없었겠구나' 싶었다(웃음). 이제는 일하고 있는 내 프로그램가 너무 귀여워 보인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뭐 하나?

요즘에는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과 아이폰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한다. 특히 디펜스 게임을 좋아하는데 PC로는 <스타크래프트 스포츠>도 한다.

<출조 뉴스재>이란 게임은 혹시 아나? 응? 응? (이하 길고 긴 게임 이야기 생략)

'게임 요정'도 좋지한 연애는 언제 하나?

나는 남자다운 남자가 좋다! 당치도 좀 있고 팔도 굵고 오빠 같은 특질한 남자. 이상형은 비. 생겨물 없는 눈이 아주 멋져 든다.

길을 가다가 그런 남자가 지나간다면?

휴대폰을 빼앗아서 내 번호를 써줄 것 같다. 난 적극적인 여자다. 좋으면 좋다고 말한다. 내가 항상 먼저 고백하는 편이다.

넥센 탁발외의 로맨스가 화제다(탁발외가 디버지 강민경을 추려했다는 오해로 괴로워할 때 사구자로 나선 이산애가 따듯하게 탁발외를 먼저 안아준 사건).

시구 전에 색색으로 탁발외의 풀미스러운 스킨들을 알게 됐다. 불쌍했다. 오해를 풀아주고 싶어 안아주려고 걸심했는데 예상과 달리 나한테 안 안거서 몹시 무안했다. 그래서 내가 달려들었다(웃음). 몇 달 동안 나밖에 없다는 플래카드를 들 때는 민망하!도 했는데 이화선 씨한테 보보 한 번 받더니 날 뺏 쳐버리더라.

뭐했나? 포용보다는 키스가 위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크레스티나,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팬들에게 목도리 한 번 받아보고 싶다. 12월에는 내 생일도 있으니 팬들이 신권 좀 써 줄 거라 믿고 있겠다(웃음).

죽기 전에 꼭 이뤄야 할 목표가 있다면?

스쿠 광고를 찍고 싶다. 언젠가는 나도 꼭 찍고 말 거야!



대님 베스트 탑걸

“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먼저 고백하는 편이다 ”



COOPERATION: 뽀빠니로, 탑걸 (02-548-7764) 코리도르(비디 이너비어) (02-514-0833)
슈프링(02-3443-1703) 봄봄(02-548-3996)

DECEMBER 2011 MAXIM 107



상의 유희모나코
언더웨어 코디조관바인 이너웨어
목걸이 행문
구두 슈즈원



SHE WAS HERE



EBS
《생방송 특목 보나하하》
2009년 '하하' 역할로
첫 MC 데뷔



은계암컷
《신애와 밤샘기세.scx》
케이팝과 공중파를 통틀어
신인 MC가 100회 방송을
넘긴 최초의 프로그램. 제
5회 대한민국 e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프로그램상도 받았다.
196회를 마지막으로
중영하는 날 이신애는
참았던 눈물을
평평 쏟고야 말았다.





이신애

생년월일 1989년 12월 18일

고향 경북 울진

별명 게임 요정

맡은 골 (블러 코스튬)의 정가은

특이한 경력

편의점 알바 중 캐스팅

좋아하는 성격 승부욕만점은

프로게이머 이상이다.

가장 최근에 즐겼던 이유 남동생이

근대 갈 때 울었다. 얼마 전 면회

갔었는데 선망들이 알아봐주셔서

사인도 해드렸다.

"동생아, 누난 할 일을 다 했다"

트위터 @idolamji





身士不二

SUPER GUN K1A

특수부대의 영원한 짝꿍!

우리나라에서 총 쏘는 걸로 유명한 특수부대라면
이름 없이는 못 산다. 신토볼이라는 말마따나 우리나라 군바이라면,
토종 기관단총만큼 몸에 딱 맞는 녀석도 없던 거지. WORD BY 김대영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특수부대인 육군 특전사, 해군 UDT/SEAL, 공군 CCT 그리고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여자랑 딱치는 것만큼이나 야기는 총이 바로 K1A 기관단총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서 그런지 우리나라 군바리에겐 타고난 돌풀이 마냥 아주 그냥 몸에 착 달라붙는다. 요즘에는 특수부대뿐 아니라 기갑병이나 통신병처럼 특수한 병과도 애용 중이다. 도대체 어떤 놀이길래 이렇게 수컷의 사랑을 징그럽게 받고 있는 걸까?



김대영은 육군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칼럼을 기술했던 밀리터리 전문 칼럼니스트 육군 웹진 아이지(ARMYZIN)에서 (영화 속의 전쟁)을 기고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며, 인텔닷컴에서 국방조사팀 팀장을 맡고 있다.



1

2



MADE IN GERMANY

1. 기관총은 보통 강력한 탄환을 사용한다. 경기관총이라고 해도 통상 무게가 10kg 정도에 육박한다.
2. KAI 기관총은 1982년부터 보급이 시작되어 대한민국 특수부대를 대표하는 기관총이 되었다.

우리 군의 처녀 기관총 M3 그리스 건

우리 군은 한국전쟁 때 처음으로 기관총과 조우했다. 당시 북한군은 '파발총'으로 유명한 구소련제 PPSH-41을 사용 중이었다. 이 녀석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총이 바로 M3였다. 개머리판을 썼을 때 74.5cm, 접을 때 57cm 정도인 M3는 생김새가 유탄유 그리스스를 주입하는 기구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그리스 건'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미군은 M3를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을 거쳐, 베트남 전쟁까지 활용했다. 우리 군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던져준 M3를 사용했고, 1960년 하반기 기갑부대 창설과 함께 탑승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특수부대와 여군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덩치가 슬림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기관총? 기관총? 따발총?

영화나 TV에서 보는 총을 다 통 쳐서 기관총이라 불렀다면 X잡고 반성해라. 기관총은 영어로 '머신 건'이라는 이름답게 일단 탄환의 위력이 후덜덜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줄줄이 사방처럼 발사된다. 무게가 10kg에 달할 정도로 한 방의 위력이 대단한 중화기다. 반면 기관총은 기관총보다 덩치가 작고, 자동 사격에 따른 반동을 줄이려고 위력이 약한 탄환을 사용한다. 시가전이나 정글전처럼 좁고 복잡한 지형에서는 오히려 기관총보다 뛰어난 위력을 보여준다.

MP5 전용 H&K의 독일 병정이 만든 이 놈은 테러 부대 최상의 상징이다.

과거 기관총이 개방형 격발 방식이라 첫 방은 빛나가기 심상이었는데 이는 폐쇄형 격발 방식이라 첫 방으로 승부를 볼 만큼 명중률이 높다. 1970년대부터 정교한 사격이 필수인 테러 부대가 많아져 이놈을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1980년 4월 30일 영국 런던의 이란 대사관에서 인질극을 벌이던 테러리스트를 영국의 특수부대 SAS가 이놈으로 사살하는 장면이 BBC로 생중계되면서 인기가 소년시대급으로 올라갔다. 우리나라의 테러리 부대 707 특임대, UDT/SEAL, 경찰 특공대도 MP5 마나이다. 작년 1월 21일 상호 주일리 구술 작전에서 해적을 사살하고, 선원들을 구하는 데 사용한 총 역시 전자의 MP5 싸움이었다.



3



4



5

- 3. 한국전쟁 당시 당시 북한군은 일명 "피땀총"으로 불린 구 소련제 PPSH-49을 사용했다
- 4. KIA 기관단총의 개리파란은 사격 시 총기의 반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 5. 지난 ADEX 2011에서 첫 선을 보인 테크투사의 KIA 근거리 전투형 카트



MADE IN ISRAEL

UZI

중동의 강패가 만든 기관단총의 베스트셀러

1951년 생산된 우지 기관단총은 개리파 이스라엘을 포함해 90개국 이상에서 사용 중인 베스트셀러다. 개방형 격발 방식이라 MP5보다 명중률은 떨어지지만, 개방형 타인 중에서는 명중률이 꽤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그래서 많이들 쓴다는 건 개랄 구라고, 싸고 튼튼 8단 계 체임 큰 장점이다. 그래서 근대과 경찰은 물론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도 애용하는 기관총이다. 자매품으로 미니 우지와 마이크로 우지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대동경 경호실에 도입했다.

맞춤형 기관단총 K1

한때 우리 군 특수부대는 M3로 대동경결했지만 1970년대에 접어들어 이놈도 퇴물이 되어버렸다. M16 소총으로 자리를 대신하려 했더니 알기 사이드라서 우리 군바리에겐는 너무 컸다. 특수부대원은 일명 일탄 "슬림한 기관단총으로 바꿔달라"고 청원했다. 결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는 "야 사병! 그냥 우리 애들 사이에 맞게 총 하나 만들어줘!"라고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과학연구소와 부산 조병창(현 S&T 대우)은 기동한 신형 기관단총을 똑딱 하고 뽑아냈다. 신형 기관단총은 M3에서 사용했던 45구경탄의 부족한 위력을 메웠고, 수급하기 좋은 5.56mm 탄환을 채택했다. 1980년 시제품이 생산됐고, 이후 1991년 K1이라는 이름으로 양산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맞춤형 기관단총 K1이다.

K1로 업그레이드에 성공하다.

K1은 성능은 먹어줬지만 M3를 베이스로 한 원후형 소용기가 말병이었다. 시끄러운 데다 성량까지 강해 사격하는 사람의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총구의 반동도 심해서 사용자가 K1에 휘둘리다는 단점까지 지적됐다. 하지만 K1은 이미 보급이 완료된 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소용기를 XM177E2 카빈 소총과 유사한 형태로 바꾸는 데 중점을 뒀다. 소용기의 오른쪽 상단 부분에 3개의 구멍을 내서 총의 반동을 효율적으로 억제했고, 사격 시 발생하는 화염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 외에도 3발 점사 기능을 추가해 연발 사격의 명중률은 물론 탄약 소비도 줄이는 게 가능했다. 이렇게 개량한 KIA 기관단총은 1982년부터 보급됐고,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야오 썬나"를 외치는 A급 기관단총이 되었다.



6. KIA 기관총은 진속 소나나 물 속과 같은 어려운 약전 하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다.
7. MG 기관총은 그라스를 주입하는 기구와 비슷하게 생겼다.

필방미인 기관총 KIA

예비역 군بار리 열 명에게 가장 손맛 좋은 총이 뭐냐고 물어봐라. 열이면 열, KIA 기관총을 꼽을 거다. 작고 가벼우니까 매끈하게 다듬어져 M16 소총과 달리 장시간 메고 있어도 힘들지 않다. 진흙탕과 물속처럼 어떠한 약조건 속에서도 사격이 가능한 미군의 M4 카빈 소총쯤은 가볍게 관망시켜버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KIA의 부품 중 상당수는 M160나 K2 소총과 동일하며, KIA의 총열과 K2 소총의 몸통은 합체도 가능하다. 오셀 5.56mm탄을 사용한 기관총치고 꽤 긴 250cm의 유효 사거리를 자랑하는 건 그저 거들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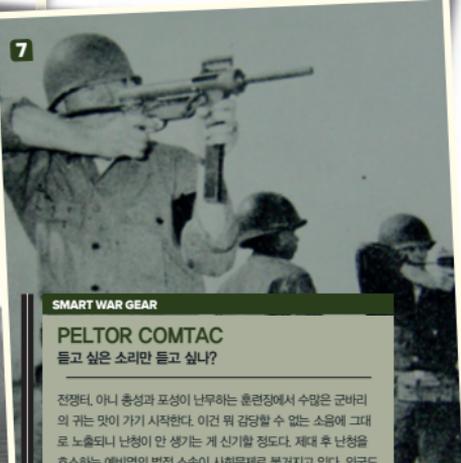
그래도 미운 구석은 있지 마련

아무리 KIA 기관총이 잘 만든 놀일지라도 단점이 없으랴. 굵은 철심을 봐야 놓은 개머리판은 사격의 충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전술 준비를 추가로 장착할 없다는 점도 아쉽다. 이간 작전이 많은 특수부대는 전술용 플래시 라이터가 필수인데 이것이 불가능하다.

하단 말이다. 미국의 M4 칼빈 소총 역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파카트니 레일 시스템으로 해결했다. KIA도 이런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었던 예가다.

다시 진화에 성공한 KIA

KIA에서 KIA로 멋지게 업그레이드에 성공한 KIA가 아니던가? KIA를 위한 파카트니 레일을 개발하는 건 식은죽 먹기였다. 국내 업체는 2004년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KIA를 위한 파카트니 레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2~3종의 파카트니 레일이 현재 나와 있는데 데브그루 커뮤니케이션사가 개발한 KIA 근거리 전투형 키트가 단연 눈에 띈다. 총기 레일과 개머리판으로 구성된 이 키트는 특수작전 시 주야간을 불문하고 작전 요원의 사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 KIA의 S&T 대우가 정식 채용해 수출용 KIA에 적용할 만큼 높은 품질과 성능을 자랑한다. 덕분에 우리 군 특수부대에 5.56mm 기관총 KIA를 활용한 대테러 작전이 가능해졌다. KIA는 이렇듯 다시 한 번 진화에 성공하며 특수부대의 작공 자리를 넓혀지 수 있었다.



SMART WAR GEAR

PELTOR COMTAC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나?

전쟁터, 아니 총성과 포성이 난무하는 훈련장에서 수많은 군바리의 귀는 맛이 가기 시작한다. 이런 뒤 감당할 수 없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니 단청이 안 생기는 게 신기할 정도다. 제대 후 난청을 호소하는 예비역의 병정 소음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외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군바리가 훈련과 작전을 소화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 그래서 스웨덴의 펠타르는 청력 보호 장치를 내놓았다.

군인의 청력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청력을 극대화시켜 주는 컴팩트한 펠타링으로 외부 소음을 막아줄 뿐 아니라, 주변에 작은 소리를 증폭해서 들을 수도 있다. 착용감도 좋고, 방탄 헬멧과 합체는 물론 무전기와 연결하면 헤드셋으로도 사용도 가능하다. 이 녀석의 진가를 알아 본 이 육군과 해병대 그리고 특수전 사령부가 감탄을 애드레트로 채웠다. 우리나라는 특수사 예하 707 독립대와 경향특공대가 사용 중이다.



MADE IN KOREA

K7 신투벌이 소음 기관총 K7

우리나라에서 만든 K7 소음 기관총은 2003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9mm 파라블럼 권총탄을 사용했고, 패쇄형 격발 방식을 채택해 높은 명중률을 자랑한다. 소음기를 장착해 사격 시 발사음은 큰 목소리 정도인 110db 정도고, 섬광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가격도 저렴한데,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해군 UDT/SEAL에서 사용 중이다.



동쪽관 그녀를
풍영성에서



SEXY MARINE GIRL

MAXIM US가 자랑하는 최고의 독자 모델 멜라니가
'필승' 넘치는 화보로 2011년을 뜨겁게 마무리한다.

PHOTOGRAPHS
SASHA EISENMAN



MELANIE

고향: 미국 뉴욕

생년월일: 1987년 6월 18일





여자는 제복을 입은 남자에 대한 판타지가 있다. 그 이유가 뭐까?

유니폼 입은 남자는 정말 섹시한 것 같다. 군 복무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멋지다. 용감하고 아주 충직한 남자일 테니까. 남자친구감으로도 훌륭하다!

특별한 개인기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 흉내를 무척 잘 낸다. 원래 코미디를 하고 싶었다. 남 흉내도 잘 내고 입을 다문 채 말할 수도 있다. 복화술 같은 건데, 더 섹시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해변에 왔으니 말인데, 바닷가에서 다 벗고 놀아본 적이 있나?

뭐? 하해! 누드 비치에 가본 적은 있지만 그것도 토크리스(상의 누드) 정도였는데 영영이까지 까보일 만한 흥기는 없다.

군인들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무사히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어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



“
군 복무를 한 남자는 용감하고
아주 충직한 남자일 테니
남자친구감으로도 훌륭할 것 같다.
”





공감 받지, 자의 여하에
공감할수있다.

TANK PAUL & JOE SISTER
BIMBO BOTTOM ECO SWIM

SHIRT ARMY & NAVY
OUTDOOR SUPPLY
BIKINI BOTTOM ECO SWIM





Billy Beane GAME CHANGER



STARRING
BRAD PITT
AS BILLY BEANE

DECEMBER 2011



THE MAN BEHIND MONEYBALL

영화 (미·)로
속으로



홍팬들을 좌절시키기만 하던 90년대의 악골팀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를 체질개선했던 사나이 빌리 빈. 그 성공 뒤엔 온갖 통계와 스펙 분석이 가득한 서류몽치가 있었다. 영리한 선수에서 스카우터로 그리고 오클랜드의 단장이 된 이 흥미로운 인물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다뤄져 최근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머니볼)로도 펼쳐졌다. 빈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또 다른 스포츠마저 손보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는 중이다. 축구, 긴장해!



AKLAND ATHLETICS 지금 내가 서있는 이곳은 오클랜드 에이(A·어슬레틱스)를 줄여 부르는 애칭)의 클럽하우스 안이다.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이 여기가 무슨 잡동사나를 처넣는 창고나 감옥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지금 빌리 빈은 창고 같은 방에서 낡은 소파에 앉아 그 커다란 발을 베이지색 카펫 위에 올려놓고 있다. 내가 열한 살 적에 아버지와 함께 먼 길을 차로 달려와 오클랜드가 드웨인 머피의 휴먼으로 레드 삭스에게 4대3 승리를 거둔 것을 목격한 게 1981년. 지금이나 그대나 오클랜드 에이 경기장의 모습은 변한 게 거의 없다.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허물한 경기장 일 게 분명한 이곳에서 빈과 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PARAGRAPHS

52

WORDS

2,157

CHARACTERS

8,961

PAGE

123



얼마 전 여기서 빌리 빈과 브래드 피트가 피자
를 먹었다. 피트는 어슬렁거리며 (머니볼)에서
빌리 빈을 연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빈의 설
명에 따르면 '동네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부유한 사
나아' 피트는 단장의 집에도 들렀다. "난 그
의 방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
내와 가정부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새벽 5시부
터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니까, 와이프가 새벽 5
시에 일어난 건 처음이었어요." 빈이 말했다.

빈은 여기서 대형 TV로 유럽 축구를 자주 본
다. 그가 축구를 보는 동안 예인철스 선수들은
그런 그를 구경한다. 빈은 작년 챔피언스에서 켄
헨이 아르헨 로빈의 발리슛으로 맨유를 꺾은 장
면을 떠올렸다. 쉰 살이 다 된 빈은 앉아 있던 소
파에서 뛰어올라 환호했다. 예이의 한 선수가 그
걸 보며 크게 웃었다. 얼마나 웃긴가. 빈은 자기
팀이 이길 때도 좀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던 사
람이다.

"저 골 좀 봐." 빈이 그 선수에게 말했다. 190cm
가 넘는 키에, 한때 야구 및 축구 스카우터 중 절
대 빈이 그의 부모가 사는 샌디에이고의 집에 찾아
올 만큼 뛰어난 운동선수였으며 여전히 보디빌
더 같은 체격을 가진 빌리 빈 단장의 기세 때문
일까? 그는 빈의 말대로 축구 경기 영상을 지켜
봤다. 영상을 두 번째 재생활 즈음 그는 로빈이
난 작고 깡마른 데머리 유럽인이 자기만큼이나
훌륭한 운동선수란 것을 알아냈다. "우유." 그가
외쳤다. 비록 그 외침은 단장의 비위를 맞춰주려
던 의도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수백만의 다른 미국인이 그랬던 것처럼, 축구
에 빠진 빈도 거의 병적으로 축구를 좋아하게 되
었다. 본인도 인정한다. "가능한 한 많은 경기를
관람합니다. 거의 중독자예요."

팬인 동시에 그는 축구 혁명가다. 유럽에서 5
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게다가 미디어엔 거
의 노출되지 않는 빌리 빈의 영향력은 헤카나 맨
체스터 시티 같은 축구 명문 클럽에까지 미친다.
빈과 아스날의 프랑스인 단장 아르센 벵거는 서
로를 사울메이트로 여긴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레드 악스 구단주 존 헨리가 사들인 리버풀의 숨
은 브래인이 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빈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축구마저 변화시키고 있
다. 마치 그가 예전에 야구를 변화시켰듯.

BILLY BOY 2009년 말, 빈과 나
는 전화와 이메일로 축구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
다. 그를 실제로 만난 건 2010년 10월이었다. 동
그를 인경 뒤로 큰 눈을 굴리는 친절한 캘리포니
아 사람이지만 실은 뱃속까지 단단한 사업가였
다. 이 비범한 인물을 만난 일은 즐거운 동시에 실
로 초실절적이었다. 그는 현실 속 인물 같지 않
았다. 나 역시 그를 마이클 루이스의 책 (머니볼)



모두가 탐내던 소년

(왼쪽부터) 2009년 오글랜드 에이의 라리움에
서 일했던 빌리 빈 단장/ 1989년 오글랜드 와이
수 시절 / 2006년 산인 선수를 풀기 위해 전화
하는 모습

을 통해 알고 있었다. 10년 전 오글랜드 에이를
강팀으로 부활시킨 빈 단장은 내게 윈스턴 스미
스나 훌륭한 골필드처럼 위대한 문학 속 인물이나
미친가자였다.
그가 해군 장교의 아들로 태어나 총명한 10대
운동선수로 성장한 뒤 메이저리그 야구팀들과
영문대 축구부로부터 구애를 받았다는 얘기는
대부분 이미 책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나는
그에게 축구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번도 없어요." 빈이 말했다.

어째껏 공을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었나?

"고등학교 때 스피드 풀이라는 공자기는 해봤
어요. 미국 사람이 아니면 바둑을 만한 경기였
지. 공을 손으로 잡아서 던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난 방엔 텔레 포스터를 붙여놨었죠. 70
년대 대부분의 미국인은 텔레가 누군지는 알았
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알긴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빈은 할나가는 운동선수이자 범
생이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대학에 갈 기회
가 없었던 그의 부모는 빌리가 공부를 하길 원했
다. "우리 가족은 특별히 유복하진 않았어요. 사
실 아버지께서 내게 운동을 시킨 이유도 대학 장학
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등록금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빈이 말했다.

1980년 스탠퍼드에서 빈을 쿼터백으로 데려가
고 싶다고 했을 때 빈의 가족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빈은 그때 자기가 그 장학금을 받아들였
다면 당시 스탠퍼드의 쿼터백 존 엘웨이는 세상
에 알려지지도 못했을 거라고 골담 놀담한다. 어
썸거나 빈은 스탠퍼드의 제의를 거절했다. 뉴욕
메츠가 2만5천 달러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중산
층 군인 가족의 아이는 그 돈을 받아야겠다고 결
심했다. 빈은 그렇게 대학을 포기했다.

"후회하진 않습디다. 그런 기회비용이라고 하
는 게 맞겠네요. 미래의 지도자나 상원 의원들과
동등히 될 기회를 놓쳤으니까요. 그 가치는 깊을
매기거나 무엇과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일
로 나는 삶의 교훈을 얻었죠." 이후 빈은 돈만들
기조차 심야 결정하지 않게 됐다.



빈은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는 자신이 직업을 잘못 택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선수가 아니라 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면서는 그 사업 자체를 운영하고 싶어졌죠. 요즘 스포츠에서는 구단을 운영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졌죠."

빈은 스카우트 담당자들이 기대했던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했다. "아구선수 생활을 실패하면 서...라며 내가 질문을 시작했다. 빈이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우리... 좀 다른 말로 할 수 없을까요? 다른 표현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상대적인 성공'은 어때요?"

사실 그는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1990년 27세의 그는 오글랜드 에이의 외야수로 뛰었다. 그가 에이의 부부에 가서 선수를 그만두고 스카우트 담당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것도 이때다. (머니볼)엔, "27세 나이에 스카우터가 되려고 비리그를 떠난 사람은 그가 최후였다."고 적혀 있다. 빈은 그 소를 끌리고 싶었다.

그는 새 커리어를 일종의 교육으로 여겼다. 빌리 빈 대학교의 대학원 과정 같은 걸로 말이다.



“우리 가족은 특별히 유복하진 않았어요. 사실 아버지가 제게 운동을 하게 한 이유는 대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빈이 말했다.

마침 당시 아구는 혁명적인 지적 스포츠인 컴퓨터 기록 분석(Sabermetrics, 세이버메트릭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 (머니볼)은 빈이 오글랜드 에이 단장이 되어 어떻게 세이버메트릭스를 이용해 구단을 개혁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 그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훔친 거죠." 이렇게 말하더니 그는 다시 말을 정정한다. "훔친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네요."

빈은 24세의 허버드대 졸업생 폴 디포디스타를 비롯해 젊고 똑똑한 통계 전문가들을 고용한다. 그들의 임무는 과소평가된 선수들을 찾는 동시에 빌리 빈을 재교육하는 일이었다.

(머니볼)은 빈의 오글랜드 개혁을 이렇게 썼다. "통계가 먹었다." 다른 구단들이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동안 에이는 새 운영 방식을 개발했다. 다른 팀이 18세의 빌리 빈처럼 걸어다니는 그리스

조각상들을 모으는 동안, 에이는 다른 구단에서 과소평가된 선수들을 찾고 그동안 선수와의 계약에도 꽤 만족해했다. "우리 통보보다 '우람한 통백'한 말이 좋아요"라며 빈이 절절 웃는다.

이 변화들 밖에서도 감지하기 시작했다. 2002년 보스턴 레드 삭스의 구단주 존 헨리는 빈을 보스턴으로 영입하려고 했다. 헨리는 빈에게 5년간 최소 125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단장의 페이로는 최고가였다. 빈은 존의 제안을 승낙했다가 곧 거절했다. 다시는 돈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존 헨리는 테오 엘스타인이라는 이름의 28세 예뻐진 졸업생 레드 삭스에 고용했다.

에이는 수년간 능력 이상의 성과를 냈다. 팀은 2000~2009년 아메리칸리그 서부 디비전에 4회 우승했다. 조금만 운이 더 좋았으면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을지도 모른다.



MONEYBALLERS



**브래드 피트:
빌리 빈 역**

지난 수년간 피트는 빌리 빈과 오글랜드 에이의 이야기를 영웅적으로 풀어내고 시도했다. 결국 베넷 밀러(가티)가 매가폰을 잡고, 애런 소르킨(소셜 네트워크)이 공동 각본을 맡게 됐다.



**조나 힐:
피터 브랜드 역**

실제로(그리고 책에서) 빈의 오글랜드 폴 디포디스타(위의 오른쪽)였다. 하지만 그는 현재 뉴욕 메츠의 임원이다. 디포디스타의 요구로 이 인물의 이름은 영화에서 피터 브랜드로 바뀌었다.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
아트 하위 역**

가장 최근에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벤치 코치였던, 오글랜드 에이의 무모독한 부단장 아트 하위 역은 오스카상 수상자인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 맡아 꼭 짚는 야구 유니폼을 입고 출연한다.



**크리스 프랫:
스캇 헤더버그 역**

훈남 배우 크리스 프랫이 지금은 신사네그리 레저에서 뛰고 있는 헤더버그 역에 등단한다. 빈은 헤더버그를 쓴(가티) 계약 해 포우에서 1루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바 있다. 팬들은 징사짓기



**로이스 클레이튼:
미겔 테다다 역**

오글랜드 에이의 올스타 유격수보다 더 잘 소화할 사람이 있을까 현재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고 있는 클레이튼은 17년간 메이저리거로 11개 팀에서 뛰 배터이다.



빈은 브래드 피트와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내내는 아니었나 봐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하지 됩니까?”

만약 그가 오글랜드 경기장의 길 건너 아래쪽에 살던 어느 똑똑한 사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빈은 한 작은 구단의 2루 병수로 남고 거기서 야기가 끝났을 수도 있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마이클 루이스다.

비즈니스 서적들을 통해 경영을 독학한 빈에게 비즈니스 서적에 등장한 루이스는 좋은 선생이었다. 빈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친구이자 놀라운 자국을 주는 사람입니다.” 빈이 루이스와 1년간 어울린 것은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빈이 흥분의 가치를 아는 영리한 사업가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2003년 루이스는 《미나불》을 출판했다. 그 순간 모든 야구 관계자들은 빈과 오글랜드 에이 소속의 동등한 야구 선수들이 될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구단이 그들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빈은 야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과학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과학에 의존합니다.”

《미나불》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대단했다. 그것은 다른 스포츠까지 번져나갔다. 2004년 한 NBA 팀이 처음으로 정규직 통계 전문가 1명을 고용했다. 현재는 모든 스포츠팀이 통계 전문가를 두고 있다. 혁명은 대표양을 건너 러비와 크리켓, 심지어는 축구 등의 스포츠에까지 퍼져갔다.

통계를 이용한 구단 운영법은 《미나불》을 통해 야구 전체를 휩쓸었다. 효과는 2004년 공식적으로 증명되었다. 존 헨리와 테오 엘스타인의 보스턴 레드 삭스가 1989년 이래 처음 월드시리즈 우승을 거머쥔 것이다. 그들은 2007년도 또 한 번 우승했다. 어떤 면에서는 레드 삭스를 비롯한 빈

의 추종자들의 우승은 빈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승리는 아닐지라도 말이다. 거의 모든 야구팀이 《미나불》 속 빈을 따라하자 오히려 오글랜드 에이는 고유의 이점을 잃어버렸다. 예가 다스 약해지고 빈의 추구에 대한 집착이 커진 건 분명해서 아니다.

KICK OFF! 빈이 축구에 집착하기 시작한 건 그의 야구 생활을 맞았을 때의 일이다. 대부분의 남성처럼 그도 마땅한 선물을 생각하지 못해 당황했다. 운동복도 빈은 관중은 선물을 떠올렸다. “마침 저명한 런던행 비행기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생활을 위해 런던에 가자고 했죠.’”

사실 빈에게 아내와의 여행은 일종의 영국 문화 현장 학습이었다. “내가 축구와 사랑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런던에서 매일 아침 신문을 탐독한 그는 영국인들이 NFL이나 야구에 대한 생각의 한 마디도 안 한다는 걸 알았다. 대신 그들은 축구 이야기뿐이었다. 부인과 낭만적인 산책을 하며 빈은 대부분의 슬픈 일에 침범이 하나씩 있고 그날 밤영되는 축구 경기스케줄이 적힌 걸 보았다. 그는 런던 여행을 이렇게 회상했다. “난 미국 대학 풋볼의 광적인 팬이예요. 영국 축구는 마치 미국 남부의 대학 풋볼 열기 같아요. 영국에도 스포츠 열정이 넘치고 엄청나게 많은 축구 팬이 어디에나 있죠.”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빈은 축구를 이중 전공 삼아 공부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볼 수 있는 모든 문헌을 샅샅이 읽었습니다”라고 그가 말한다.

빈이 축구에 빠진 건 단지 그가 운동을 좋아하

젊은 빈자들의 만남

2010년 오글랜드 경기장에서 얘기를 나누는 브래드 피트와 빌리 빈. 피트는 수년간 빈의 야구팬 영화를 끌어내려고 노력했다.

고 집하는 범성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를 서로 잡은 것은 바로 경기장을 달리는 선수들이었다. 그에게 축구 선수들은 엉성한 전사 그 자체였다. 축구를 보면서 빈은 깨달았다. “이들은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과 똑같아요. 단지 다른 중독을 선택했을 뿐이죠. 그들이 미국에서 자랐다면, 어떤 스포츠를 했더라도 최고의 플레이어를 했을 겁니다.” 만약 다른 미국인이 그에게 바르셀로나의 영웅 리오넬 메시가 누구냐고 물으면 빈은 이렇게 대답할 거다. “NFL 역사상 가장 훌륭한 러닝백인 배리 샌더스의 민첩함과 방향 전환 능력, 그리고 NBA 코트 위에서 환상적인 패스를 보여준 가드 스티브 내시의 넓은 시야를 갖춘 선수가 있다고 상상해보요. 그게 리오넬 메시입니다.”

빈이 축구에 흥미를 갖게 되었을 즈음에 다소 뜻밖에도 축구인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빈은 데이빙 코를라렌 리버풀과 빌리 워너의 미카엘 포드,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이주해 온 독일의 전설 위르겐 클린스만과 친분을 다졌다. 이후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이 된 ‘달밤의 폭격기’ 클린스만은 그 어떤 감독보다도 더 많은 스포츠 과학자를 고용했고, 2006년 독일은 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후 클린스만은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해 뮌헨에 ‘벨리 빈’이라고 쓴 바이에른 유니폼을 빈에게 보냈다. 빈은 “그 셔츠를 좋아하지만” 그걸 입고 동네 스타벅스에 가거나 내 자의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클린스만은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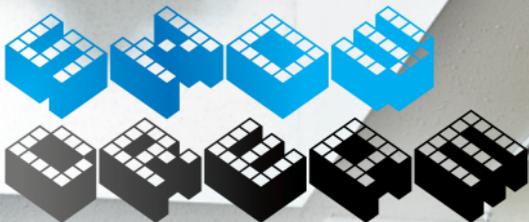
빈은 축구팬이지만 여전히 매일 야구광들에게 둘러싸여 야구를 생각하고 얘기했다. 그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빌리 빈 대학교는 축구를 가르칠 제대로 된 교수진이 필요했다. 오글랜드 에이 새로운 팀을 통해 전문가를 찾고 있던 어느 날, 빈은 필로폰 자취단 이름의 MT 경제학 과 졸업생을 만났하게 된다.

젊은 아이기를 나를 때 빈이 자이드를 불렀다. 이름 체우의 자이드는 명망이 자랐는 빌리였다. MIT에서 그는 행동경제학을 전공했다.“행동경제학이라니, 듣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고 빈이 그를 놀렸다. 자이드가 반점을 보러 왔을 때 빈은 그에게 텐드 오아시스에 대한 퀴즈를 냈다. 두 남자(대부분의 영국 축구팬이) 가장 좋아하는 밴드도 같은 야구기(야구)라고 따르면 역시 축구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빈은 그를 고용하기로 한다. 자이드는 “사실 일부러 내 이름을 축구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까”라고 시사회를 했다.

자이드는 1998년과 2002년에 월드컵을 보러 갔다. 2005년 독일 월드컵이 다가올 무렵, 빈과

스노보드처럼 얼굴 평준화를 적용하는 옷은 드물다.
 얼굴에 자신 없는 사람도 눈발 위에서 리브러브를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스타일이 아닌, '슈가포인트'의
 신상품이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줄 거다.

BY 곽경희 PHOTOGRAPHS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곽영은
 MODELS 육성민, 신일호, 박성진, 조좌겸, Brendon Smith
 COOPERATIONS 슈가포인트(www.sugapoint.com)
 라베어(02-3446-9949) 슈즈팀(02-3443-1703)



gapoint
 teinit.



작 신일호

러닝 패딩의 패딩 배스트는
 팔을 붙이 매듭이 된다.
 338,000원(Freeman)
 반스매 티셔츠 33,000원(3D Tee)
 브라운 컬러 팬츠 169,000원(Nobe_Tolo)

여 육성민

방한 부츠 169,000원 러버 by 각삼

은 조좌겸

넥 워머 20,000원(Cujo)
 블루 컬러 재킷 908,000원(Cage)
 오렌지 컬러 롱 티셔츠 38,000원(Spot)
 오렌지 컬러 팬츠 269,000원(Cokaholic)
 모두 슈가포인트

조좌겸

2009~2011년 버르
 클레스 코치야 오를
 지명 부문 3원왕에 오른
 국내 유일무이한 어떤
 스타일 프로 스노보더

STYLE

슈가포인트?

바너나가 가장 맛있을 때
표면에 생기는 갈색 반점.
브런치 슈가포인트는 익스트림
스포츠80아웃렛(아웃도어+
스트리트웨어) 대표로, 최적의
상태가 된 바너나처럼 최고의
가치와 열정을 담고 있다.

신인호

(비보이를 사랑한 탈레리나)
초연과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
댄스 무지걸 (B-Alive)
를 올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최고의 프리스타일 합창팀
고릴라 크루의 단장

여 육신화

핑크 러더 캡 42,000원(Side Attack)
핑크러스 장갑 28,000원(Alpine)

남 신인호

빙글 두면 비니 22,000원(Yobe Booby)
빙글 댄츠 159,000원(Yobe_Dodo)
모두 슈가포인트



여 육선화

원본 컬러 포인트의 양말 18,000원(Bee)

신 초화컴

엘보&그린 컬러 점퍼 198,000원(Dean)

온 박성민

블랙 컬러 재킷 308,000원(Cage)

모두 슈가포인트

할매장
등록하기



Brendon Smith

호주 서핑 주니어 챔피언 출신, 픽업머, 빌리볼 서핑 대회 참가위원, 현재 서경대학교 교수

EVENT
애독자 스키 무료 강습 이벤트
SUGAPOINT * 휘닉스 파크 * MAXIM

슈가포인트 소속 국가 대표 스노보드 선수와 국내 최고 보드 강사에게 무료로 보드를 배울 기회! 당선도 이제 국보급 꽃 보다가 될 수 있다. MAXIM과 휘닉스파크에서 맥을 함께 보낼 주인공을 찾는다.

참여 방법

1. 아래 OR 코드 스캔 정정
2. www.maximkorea.net 에서 EVENT 응모
3. reader@maximkorea.net 응모 사진 보내기

국가대표에게 보드 강사로 배우기



박성진

2010/2011시즌 프로 스노보드 챔피언 1명, 현재 휘닉스파크 휘닉스 국가 대표 스노보드 선수

카트 Brendon Smith

블랙 컬러 캡 37,000원(Legend)
그린 컬러 자켓 318,000원(Harks)
화이트 반스메 티셔츠 38,000원(Vader)
그레이 컬러 팬츠 269,000원(Cokeaholic)
옐로 컬러 포인트의 양말 18,000원(Bee)

면 욱신화 로피 패턴 슈즈 49,200원 슈츠원

반달 박성진

그레이 컬러 후드 점퍼 78,000원(Goodman)
화이트 컬러 팬츠 279,000원(Beer)

별 신일호

오렌지 컬러 방울이 문보이는 비니 22,000원(mallard)
인체적인 도형 패턴의 자켓 298,000원(Newman)
화이트 반스메 티셔츠 33,000원(Satisfaction)
블루 컬러 팬츠 159,000원(Yobe_Dodo)
모두 슈가포인트

ADIDAS ORIGINALS X JEREMY SCOTT X 2NE1

아디다스와 제레미 스콧이 2NE1을 모티브 삼아 프리 크리스마스 팩 (PRE-CHRISTMAS PACK)을 출시했다. 크리스마스에 딱히 돈을 데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말이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S ARC STUDIO

JS 콜라주 윙 (JS Collage Wings)

자신의 블로그와 인터뷰를 통해 2NE1에 임을 열심히 보여주었던 제레미 스콧은 결국 그녀들을 위해 신발까지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적 디자이너 제레미 스콧이 2NE1에 이렇게 애착을 갖는 모습은 마치 헤트트릭을 기록한 호날두가 인터뷰에서 이경규의 꼬꼬면을 먹은 덕분에 한 골 넣었다고 말한 것처럼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평소 2NE1의 음악과 패션을 즐겨보고 이를 모티브 삼았다는 스콧의 내리사랑이 콜라주 윙에 고스란히 녹았다. 현란한 색상의 가죽과 호피 무늬 디자인은 에디터의 열집 사는 김옥림(72세) 할머니가 봐도 당장 2NE1을 떠올릴 정도니까 말이다. 'You and I'만 들어도 코피를 흘리는 박용 팬이자 MAXM의 일러스트레이터 전영준 굵은 이를 이미 구입. 잠들기 전 번호를 하고 잔다고 하니 2NE1을 좋아하는 수컷이라면 적금을 깨서라도 질러야겠지? 가격 319,000원 +



광장시장에 물건 해러 한 번 가야 되는데...



패션왕이라 불리는 남자

'제레미 스콧' 낯익어 아플인지 이름 해서는 참 잘 지었다.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흥행왕'이었다면 얼마나 없어 보였을까. 브루클린 출신이지만 파리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콜렉션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제레미 스콧은 패션계의 익명이라 불리며 이단아 디자이너 대열에 합류했다. 아디다스와 제레미 스콧은 앙리와 베르강프, 지상필과 영경함의 뒤를 잇는 최고의 조합이었다. 아디다스는 오리지널스 제레미 스콧 라인을 출시하면서 기발한 디자인과 아이디어로 무장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고, 제레미 스콧은 아디다스를 통해 업고 세계적 디자이너로서 입지를 탄탄히 굳혔다. 이후 할리우드 스타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각종 쇼 프로그램까지 출연해나니, 요즘은 파리에서 검 좀 씹는디며?

* 재메이가 만자준 스타들 *



브리튼니 스미어스

브리튼니 스미어스의 'TOXIC' 뮤직비디오에서 그녀가 입은 미래 지향적인 섹시송무원 복장이 바로 재메이 스카트의 작품이다. 이렇게 예의 넘치는 유니폼을 왜 아직까진 국내 항공사에서 도입하지 않는 것일까?



이윤리

대레(대레닷컴)의 이윤리가 'I go girl' 뮤비에서 입은 별 무늬 트레이닝복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완판을 기록했다. 트레이닝복 한 벌에 40만 원 정도니까, 당해 시라 나갈 때 대충 걸치기 딱 좋구먼.



레이디 가가

중집을 수 없는 패션으로 스스로를 도마 위에 올리는 황어 같은 여자 레이디 가가가 역시 재메이 스카트의 손길이 닿았다. 아... 이 대책 없는 아가씨는 좀 덜 미칠 수는 없는 건가.



+ JS Wing 2.0 새틴 (JS Wings 2.0 Satin)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JS 클라주 원과 동시 출시된 JS Wing 2.0 새틴은 새틴 소재를 이용하여 찬사를 모티브 삼아 한정 출시된 제품이다. 새틴은 고급스러운 여성 속옷이나 드레스에 사용되는 소재로 신발을 만들 때마다 브라운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존슨을 움찔거리게 하는 섹시한 매력이었다. 뒤로 쪽 빨은 날개 덕분에 클럽에서 서품을 밟다가 하늘로 승천할 수 있으니, 가족 재킷이나 캐시미어 코트같이 무거운 옷과 매칭해야 간지도 살리고 목숨도 유지할 수 있다.

가격 259,000원



김민석(26세, 대학생)

장하/ 명동

원앙집 레이스 트윈드
아우터 풀로, 청하지
유니클로, 신발 영앤빈
가방 찬스포츠



임근오(19세, 학생)

가림/ 명동

원앙집 라이플 아우터
일본 빈티지 양장, 셔츠
와 바지, 양말 모두 빈티
지, 신발 헬로볼



신재욱(22세, 스파이스키러 매장 직원)

양말/ 해운대

안경 수비, 아우터와 양
말은 모두 라코스테, 바
지 에이프월77, 신발 나
이키, 반지 빈티지

명동 패션포

STYLE

동면에 들어가기 직전, 가을의 끝물을 즐기는 멋쟁이를 명동에서 만났다. 센스 넘치는 겨울 아우터만 더하면 당 신도 겨울 패션왕. 권 고경희, 조더현 PHOTOGRAPHS ARC STUDIO



오늘 패션의 포인트는? / 주요 소품지?



윤동민(25세, 회사원)

모자/ 온라인

모자 레드볼, 후드 나이
키, 니트와 바지는 모두
자라, 시계 톤보스크
신발 뉴발란스



GO TO
MAXIM
IPAD
이공계

송기성(20세, 학생)

셔츠/ 명동

아우터 빈티지
셔츠 유니클로
바지 윌리엄스
가방 브라운브레스
신발 팀버랜드



정재우(23세, 포에버21 매장 직원)

신발/ 신사동, 명동

셔츠 유니클로, 티셔츠
아메리칸 아메일, 바지
누디진, 가림 크라이탁,
신발 일본 빈티지



홍상현(25세, 학생)

신발/ 명동

가죽 재킷과 티셔츠는 모
두 보세, 후드 티셔츠 유
니클로, 바지 누디진
신발 윌리엄스



조은묵(31세, 프리랜서)

현형캡/ 명동

현형캡 캡슐 아우터 타
일 셔츠 지오디노,
니트 풀로, 바지 누디친
가방 디스퀘어드
신발 필버랜드



홍순철(26세,
포에버21 매장 직원)

시계/ 온라인

아우터 알렌테이크, 티셔츠와
가방은 모두 보세,
바지 칩앤데이, 시계 지
삭, 신발 나이키



김대현(22세, 바텐더)

재킷/ 명동

아우터 디자이너 셔츠,
셔츠, 티셔츠, 바지와 신
발 모두 빈티지, 가방 티
래블, 바지 에이랜드



박수민(25세, 대학생)

신발/ 명동

아우터 본 셔츠 유니클로,
바지 누디친, 가방 라
피도, 신발 뉴발란스



탄재호(21세, 학생)

타이/ 명동

현형캡 라코스테, 아우터
샤스텔 올드, 타이 보세,
셔츠 유니클로, 벨트 타
미힐피게, 청바지 누디친,
신발 닥터마틴



최지민(22세,
이류 매장 직원)

머플러/ 온라인

안경, 재킷, 머플러, 벨트
와 양말 모두 보세, 셔츠
유니클로, 바지 테이브,
신발 나이키



이강민(23세,
퍼스널 쇼퍼)

타이/ 명동

안경, 아우터, 셔츠, 타이,
바지, 반지 모두 빈티지,
시계 알바, 신발 나이키

EAT IT

동면을 위한 식품 저장소는 뱃속만이 아니다.
피부도 챙겨주자.

BY 고경희 PHOTOGRAPH ARC STUDIO

COOPERATIONS 영도씨(080-334-3780) 필로소피, 피터토티아로스(www.spacebeauty.co.kr)
셀화수, 헤라 옴드 블랙(080-023-5454) 스킨79(1544-2230) 맨즈 클래식(1644-7727)



1. 영도씨 릴리프 에센셜 마스크

여성용 마스크팩 시트보다 큰 사이즈가 반갑다. 향도 상당히 남성적이어서 확실히 남자를 위한 패키임을 알 수 있다. 칙칙해진 피부를 맑게 표현하는 알부틴과 피부에 활력을 주는 해양 식물 성분인 클로렐라 추출물이 개개자 같은 당신의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바꿔준다. 팩을 만진 순간 약간 끈적임이 남아있지만, 얼굴에선 끈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일주일에 1회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18mL X 4개 12,000원

2. 맨즈 클래식

더블 이펙트 아이시세럼
아이 크림 특유의 묵직한 느낌이 싫다면 좀 더 신뜻한 느낌의 이 제품을 사용해 보자. 아데노신 성분이 주름을 개선하고, 알부틴이 어두운 눈가를 환하게 밝혀주니 일석이조!
15mL 25,000원

3. 셀화수 장영크림

버튼처럼 생긴 윗부분을 누르면 동그란 구멍 사이로 한 번 쓸 만큼의 크림이 나온다. 친한 한방 향이 느껴지는 이 크림은 고농축의 정장단과 홍삼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를 온존하게 만든다. 술과 담배, 스트레스로 지친 피부에 보약을 먹이듯.
40mL 100,000원대

4. 필로소피

헨 효프 닛 나트 이너프 세럼
스프레이에서 떨어지는 짙은 점액의 농도에 비해 가볍게 발리며 피부에 금방 흡수된다. 피부 트러블을 치료하는 비타민 A와 미백, 노화 작용을 억제하는 비티닌C가 함유되어 있다. 얼굴에서 중후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한 살이라도 더若い 전에 관리를 서두르자.
30mL 68,000원

5. 영도씨

릴리프 에센스 에멀전

촉촉하면서도 실크처럼 부들부들한 피부에 여자들이 넘어가는 법.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동시에 공급하는 이 제품은 개기름을 제어하는 독특한 기능도 있다. 발림성이 좋고 마무리가 신뜻하니 매일 매일 듬뿍 발라주자.
100mL 22,000원

6. 피터토티아로스

언리빙 크림

푸그원바자기가 되기 전에 눈개나 이마, 주름이 지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바르자. 이지 캠퍼이드 성분과 비티닌이 다량 질 역할을 한다. 용기에 비해 용량은 작고 비싼 편이나, 소용량 사용해도 효과가 좋다.
30mL 195,000원

7. 헤라 옴드 블랙

파펙트 플루이드

스킨과 로션을 하나로 뭉쳤다. 사용감도 가볍고 양도 많아서 목 부분까지 맘껏 발라도 걱정 없다. NAG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증진하고 각질을 제거해준다. 짙은 수컷향은 덩이다.
120mL 55,000원

8. 스킨79

스네일 뉴트리션 크림

달걀이 천연 여과물을 75% 함유해 피부 톤을 화사하게 가꿔주고 주름을 개선해 피부를 탄력 있고 끈적한 달걀이 천연처럼 피부를 촉촉하게 만든다. 바르고 난 직후엔 약간 번들거리는 시간이 지나면 켈럽(자지) 걱정하지 마라.
50g 40,000원

SHINE IN THE DARK 2011 10 28

지난 핼러윈 에디터는 신세계를 보았다. 지금까지 갔던 핼러윈 파티 중 가장 다양한 코스튬을 볼 수 있었던 그곳. 바니걸의 출현 따위는 일도 아닌 역대 가장 뜨거웠던 핼러윈 파티를 보여주마!

BY 김학성 PHOTOGRAPHS 최기은
COOPERATIONS 밀러브투코리아(www.miller.co.kr), CLUB HOLIC

+ SO HOT!

클럽바들 사이에서 가로수길에 위치한 CLUB HOLIC은 요즘 가장 뜨는 지스곳.. 아니 핫 스폿이다. 물론 재미있다는 말에는 '물 좋다'는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요즘 가장 또는 클럽이라고 해도 이날 파티장 입구에 늘어선 줄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근래 에디터가 가본 파티 중 가장 긴 줄이었을 정도니까. 훌릭이 최근에 살아들리고 있는 명성과 핼러윈 데이의 특수성. 그리고 밀러에서 주관하는 파티라는 점이 모두 더해져 최근 보기 드문 인파를 끌어들이던 이날, 조금씩 비는 내리고 날씨는 쌀쌀했지만 클럽 근처의 열기는 후끈후끈했다.

뜨거운 파티
속으로





DRESS CODE: HALLOWEEN COSTUME

할러윈 파티니까 드레스 코드는 당연히 '할러윈 코스튬' 이었다. 하지만 사실 예디터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매년 파티를 가봐도 드레스 코드를 지키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몇몇 파티에서는 드레스 코드를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이 살짝 겸연쩍어하기도 한다. 이번 파티에서 기껏 해야 바니걸의 출현 정도만 예상했던 예디터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에 묘연하고 있는 할러윈 코스튬을 보여 기쁨과 환호의 눈물을 흘렸대 게다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장 할러윈스러운 복장을 한 참가자에게 상을 내리는 '베스트 코스튬 콘테스트'도 열렸다. 수컷들은 각종 코스튬 복장을 한 미녀들의 색시 행사를 덤으로 감상하며 각각 저마다의 여산님을 향해 환호하기 시작했다.

아, 어떤 코스튬이 있었나?

환자

섹시한 간호사 누나들의 춤출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 환자복을 입은 나이팅 환자 코스프레를 한 수컷도 보였다. 환자복만 입으면 간호사 여친 생길 것 같죠? 안 생겼어요~

메이드

클럽 안을 돌아다니다 보니 한 무리의 메이드도 발견할 수 있었다. 가까이 가면 "주인님~" 하며 당신에게 예고 팔실기름 낄릴 기세뿜을 때릴지도 모르니 주의할 것.



간호사

바니걸 다음으로 많이 보였던 의상은
섹시한 간호사 코스튬이었다. 백의 천사
색시 버전이라나... 아아,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귀신

무섭기만 했다. 이런 진짜
공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귀신이 취한 남자도
있나요?



바니걸

이 날 클럽 안에는 수많은 바니걸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바니걸 정도는 이제
코스튬 축제도 못가는 흔한 코스튬이 됐다.
하지만 MSS MAXIM 최혜연 양의 바니걸
의상만큼 핫한 건 어디에도 없었다
(공금하다면 2011년 MAXIM 10월호를...)



IT'S MILLER TIME

이제 다가 아니다. 이 날 파티에서는 밀러를 코가 삐뚤어지게
마실 수 있었다. 세계질 내내 영하 2도의 차가운 상태로
제공되는 '밀러 엑스트라 콜드'의 무료 시음 행사도 열리고 천
원짜리 석 장으로 밀러를 마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DJ Helboy,
HOON, Jeun 등의 디제이들이 멋지게 만들어내는 트랜스
음악에 취하고, 셀러한 파티에 취하고, 맥주에 취한 클럽바들은
이날 등이 트도록 집에 돌아갈 생각이 하지 않았다. ☺



MAXIM BUYER'S EDGE



스티브 매든, 남성 워커 출시

부츠의 계절 겨울을 맞아 해외 디자이너 슈즈브랜드 스티브 매든(STEVE MADDEN)이 노숙자가 신어도 간지가 흘러 남달 워커 노마드를 출시했다. 대님이나 트랜치코트, 더 플록와드 찰떡궁합 인생맞춤인 긴지 워커로 올 겨울 간의 지의 중지부를 피아보자.

가격 239,000원 문의 070-7095-9897



리코스테 라이브, 풀 캐츠 콜라보레이션
새롭게 론칭한 리코스테 라이브에서 유명 크레이티브 그룹 풀 캐츠와 콜라보레이션 하여 캡슐 컬렉션을 출시했다. 악어와 고양이와 워드 있는 로고가 돋보이는 01번 콜렉션은 티셔츠, 셔츠, 점퍼, 가디건. 가방 등으로 구성되었다.

문의 02-550-1181



슈가포인트, 비박스 스토어&카페 오픈

국내 익스트림&이트릿 웨어의 트렌드를 이끌어 온 슈가포인트와 익스 스토어 비박스가 카페와 의류 매장을 다한 비박스 스토어&카페를 오픈했다. 지난 11월 11일 오픈 기념 피티에선 Beatbox Web의 현란한 비트박스, 고릴라 크루의 화려한 비보이 피포먼스 등 서브컬처의 매력을 흠뻑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넘쳤다. 스노보드와 스트리트 문화를 즐기는 이를 위한 문화 공간의 자리에서 커미의 향기로운 여유로움까지 모두 즐기자. 문의 02-2217-5009 www.biboxs.com

레중 신제품

레중 피버(FEVER) 출시

컬러풀한 디자인과 업그레이드 된 맛으로 리뉴얼 된 레중이 신제품 레중 피버(FEVER)를 선보였다. 레중 피버는 오랜 지의 강렬한 색상을 바탕으로 레중 특유의 '깊은 고양이' 캐릭터를 중앙에 배치한 심플한 패키지의 제품이다. 또한 고타르 담배에 적합한 맛을 새롭게 개발해 타르 6mg의 진한 담배 맛을 느낄 수 있으며, 하드필터를 적용하여 오래 물고 있어도 필터의 원형이 유지되어 보다 깔끔하게 흡연을 할 수 있다.

가격 2,500원(타르 6mg)



첫인상을 밝히자! 엠티씨 화이트닝 스킨 플러스 로션

엠티씨 화이트닝 스킨+로션은 스킨과 로션의 기능을 담은 남성 미백기능성 제품으로 기초 단계부터 피부톤을 밝게 조절해 주어 깨끗한 피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자외선 추출물, 마치린 추출물이 인강해지기 쉬운 피부를 진정시키며 비타민D 유도체와 녹차 추출물은 수분을 잃어 거칠어 지기 쉬운 피부에 오랫동안 촉촉함을 부여하는 동시에 피부에 영양 성분을 공급하여 밝고 건강한 피부결을 가꾸도록 도와준다.

문의 02-2093-3380 www.mdac.co.kr



소니코리아, 렌즈 교환식 캠코더 NEX-VG20 출시

소니코리아에서 더욱 업그레이드 된 렌즈 교환식 캠코더 NEX-VG20를 출시한다. 기존 가정용 캠코더보다 약 1.5배 더 큰 16.1M Exmor APS-HD CMOS 센서가 탑재되어 영화 같은 느낌의 백그라운드 디포커싱이 아웃포커스 표현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NEX-5N 등 알파 NEX의 모든 E-마운트 렌즈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렌즈 마운트 어댑터 LA-EA2를 장착하면 광범위한 종류의 A-마운트 렌즈도 사용 가능하다. 문의 080-777-2000





G-style, 간편한 몸짱 프로젝트 제안

헬스장에서 보충제를 먹기 불편했던 남성들을 위한 신개념 헬스 식품 지스 타일이 출시된다. 지스타일은 이지쉐이크(EZ Shake)를 적용해 간편하게 휴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우유나 물을 부어 흔들어 마실 수 있게 제작되었다. 단백질 9종의 비타민, 5종의 미네랄로 구성되어 운동 후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포함하여 몸짱으로 가는 길이 쉬워진다. 무료 체험도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문의 070-8255-8888 www.gstylelife.co.kr



볼보자동차코리아, 2012년형 New Volvo S80 D5 출시

2012년형 New Volvo S80 D5는 기존 모델에 비해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된 드라이브 파워트레인 특징이다. 업그레이드된 D5엔진은 2,40cc, 직렬 5기통 트윈 터보 디젤로, 최고 출력은 200마력에서 260마력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최대 토크 역시 44.9kg·m로 개선돼 한층 더 강력하고 민첩한 드라이빙을 구현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기존 202g/km에서 176g/km로 감소했다. 가격 5,700만 원(VAT포함) 문의 02-3781-3863



아디다스 퍼포먼스 워치 리스폰스(Response) 출시

가벼운 착용감과 심플한 기능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디다스 스포츠 워치. 이번에 출시된 리스폰스 워치는 올 블랙에 블루 포인트가 파워풀하면서도 과하지 않아 매력적이다. 날씨, 요일, 타이머, 알람 등의 기본 기능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10기압 부수가 가능하다.

가격 125,000원 문의 02-3483-7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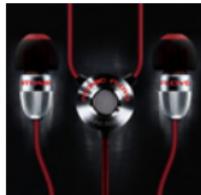
한국타이어의 겨울용 타이어로 안전운행 이상 무

한국타이어가 현명한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겨울용 타이어 '윈터 아이셉트 에보'와 '윈터 아이셉트 이지'를 추천한다. 윈터 아이셉트 에보(Winter icept evo)는 새로운 실리카 트레드 컴파운드를 적용하여 최강의 주행 성능을 구현함을 물론, 회전저항을 감소시켜 연비 성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윈터 아이셉트 이지(Winter icept 이지)는 고정력 스포이드 화이버 컴파운드를 적용하여 겨울철 노면과의 마찰력 증진을 획기적으로 이루어낸 제품이다. www.hankooktire.com



세계적 명품 이어폰 Atomic Floyd, 판매처 확대

기존 AE, 10 코르소코 등 일부 매장에서 판매되던 Atomic Floyd의 판매처가 AE, 컨시어지, 이메이션, 딜라이트샵 등 50여 개 비일일샵과 신세계몰, 롯데몰,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샵, 오프라인 IT 매장으로 확대된다. 특히 모바일샵 판매처를 크게 늘려 감각적인 소비자층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전략이다. Atomic Floyd는 최상의 퍼포먼스와 스타일일 필요하게 더해진 명품 이어폰 브랜드이다. 문의 02-2234-2233



현대인의 필수품! 소스스킨의 남성 청결제, 스포링 클렌저

남자를 위한 청결제 소스스킨의 스포링 클렌저는 살균진 예방 완화 등 남성 피부 케어를 깔끔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팬택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천연 항균 속 추출물, 이도피 민강성 피부의 진정효과가 탁월한 SONYFA-10스킨케어템이 함유되어 사용되는 순간 시원함과 깨끗함을 느낄 수 있다. 유기농 천연 성분의 스포링 클렌저로 보이지 않는 까맣지 신경 쓰자. 문의 02-445-5760 www.sosskin.com



CAMEL, 국내 첫 테워 후 순향 중
 제이티엔타부채셀코리아주(이하, 담배 브랜드 CAMEL)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테워 해 젊은이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풍부한 맛을 만끽할 수 있는 CAMEL FLTR(8mg)와 부드러운 맛의 CAMEL LIGHT(6mg) 라인으로 이루어진 CAMEL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닌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아이콘으로 특히 젊은 층 연가들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어 담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가격 2,500원
 문의 080-777-7777 www.JTL.co.kr

리바이스 바디웨어, 언더진 슬림&파자마 출시

리바이스 바디웨어가 진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리바이스의 진수를 언더웨어로 재해석하여 절음의 개성이 넘치는 새로운 언더웨어를 선보인다. 특히 속옷인지 겉옷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정교하게 데님을 언더웨어에 프린트 하고, 지퍼나 벨트, 포켓 등의 디자인 요소까지 추가해 속옷 같지 않은 속옷이 인기다. 문의 070-7404-2778



크레이지본 언더웨어 12월 신제품 출시

다양한 디자인의 신제품을 매일 선보이며 평범한 언더웨어를 거부하는 크레이지본(CRAZYBONE)의 12월 신제품이 출시되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GROM-BK 제품은 세탁 후 30분 만에 마르는 Coolon 기능성 원단과 할러플한 Lycra 소재의 아웃밴드를 사용하였으며, Color4+Simple, 30min Speed Dry, Soft Tough를 컨셉으로 디자인. 기능성, 품질 등 세 조건을 만족시킨다. www.crazyboneshop.com

시세이도 우노 화이바 네오 왁스 시리즈

시세이도 에스티지의 남성 전용 브랜드 우노에서 페션과 유행에 민감한 남성들에게 세팅력과 지속력이 뛰어난 우노 화이바 네오 왁스 시리즈를 소개한다. '매트 크리에이터', '멀티디자인', '아크로웨이 외', '올트라 슬리드'는 유연성과 고정력을 동시에 가진 신소재를 배합하여 세팅력과 지속력이 뛰어난 제품이다. 또한 '액티브 킹'은 어린이 피우더가 배합되어 강력한 세팅력과 가벼운 사용감 모두를 충족한다. 가격 각 제품 모두 1만 원(80g)



프랑스 정통 레스토랑, 르 페닐롱

이번 연말, 분위기가 좋으면서도 맛 좋은 음식을 파는 식당을 찾는다면 르 페닐롱을 만나 보자. 레스토랑 르 페닐롱은 프랑스 음식 고유의 레시피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창의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프랑스 정통의 레스토랑이다. 프랑스에서나 맛보기 쉬운 브랑다드, 까슬레 등의 메인 요리에 걸맞은 디저트들과 와인을 구비하고 있어 색다른 연말을 찾는 연인들에게는 좋은 데이트 코스이다. 문의 02-583-2233 www.lefenelon.com



닛산, 시승 이벤트 실시

뉴 닐다라 플러스, 무라노, 로고 플러스, 370Z 등 말로만 듣던 닐산의 빠르던 차들을 직접 시승할 수 있는 이벤트가 실시된다. 게다가 시승 고객 중 추천을 통해 BOSE 선문까지 증정하며, 더욱 구미가 당긴다. 12월 30일까지 전국 12개 닐산 전시장 및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문의 080-010-2323 www.nissan.co.kr



리복 직면 윈터 자켓 출시

리복에서 선명한 색상과 슬림한 스타일로 체온을 유지해주는 직면 윈터 자켓을 선보인다. 최고급 거위털을 사용해 가볍고 착용감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몸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몸으로 보내주는 기능성 셀러티브 소재를 채택, 운동 능력 향상 효과가 지극하고 있다. 문의 02-3446-4058 shop.reebok.co.kr



MAXIM INSIDER

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맥이 생긴다!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을 준비가 됐나?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원하나요?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 따윈 없어!**

- 1 MAXIM 12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를 3개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 또는 트위터, 미투데이, 다음에 'MAXIM 11월호 BEST 3'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첨부한 이미지가 때때미 날수록, 내용이 알수록 폴라로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치솟는다!
- 4 블로그나 트위터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낸다. 이름과 연락처가 없으면 자동 탈락!
- 5 2012년 1월호 MAXIM INSIDER 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붙을 것을 꼭 확인한다. 12월의 승리자는 MAXIM과 함께 스티븐 잡스를 추모해준 정현식 독자다.



SUGAPOINT + 휘닉스파크 + MAXIM 애독자 스키 무료 강습 이벤트

슈가포인트 소속 국가 대표 스노보드 선수와 국내 최고 보드 강사에게 무료로 보드를 배울 기회
당신도 이제 국보급 굿보타가 될 수 있다. MAXIM과 휘닉스파크에서 짝을 함께 보낼 주인공을 찾는다.

참여 방법

- 1 QR 코드 스캔 진행
- 2 www.maximkorea.net에서 EVENT 응모
- 3 reader@maximkorea.net 응모 사본 보내기

국내에게
보드 공짜로
배우기



PICK ME

다음 달 MAXIM 화보 모델을 사수하라!

이번 호 1페이지의 아름다운 차차들을 소핑몰 공간에
만 묶어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가? 어떤 소핑몰 모델
이 좋은지 반응을 일으켜라 다음 달 가장 인기 있는 처
자와 함께 사랑한 화보를 꺼내어주겠다!

참여 방법

- 방법 1 가장 많이 드는 소핑몰 모델의 번호를 골라
MAXIM 편집부로 문자 발송~(☎010-5199-1182).
- 방법 2 20원이 아깝다면 MAXIM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와 QR 코드를 통해 댓글을 남겨
도 좋다. 그녀를 지목한 독자 중 20명에게 맨즈클래식
더블액티브 비비크림을 선물로 준다!



다음 달
MAXIM 모델
정하기



GIFT LIST

안더월버 30CM by 반8 /우노 폼 클렌징 /맨즈클래식
에프터 셰이브 /루마인 클리어스 달링어 세안제 /소유
스킨 수수남성성경체 소 플린 클렌징 /천다이 프리모델
/슬라카드 차양 티빙 체형관 /파니소닉 방수 캠코더/
GOODNATION 등신용 보모방 /슈가포인트 비-1&보드
복 등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남긴다!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남긴다!

MAXIM 11월호 곳곳에 박혀 있는 QR 코드에 주목하라.

생생한 촬영 현장을 담은 영상은 물론 각종 이벤트와
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 MAXIM 홈페이지와 공식 트
위터에서도 선물을 꺼내다 즐겨찾기 하라!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트위터로
모이스



야말의 도전 과제

이런 거 4천 개 모으면
소희랑 바꿔준다에?

말풍선
달라가기



● BEAT THIS CAPTION ●

WINNER

영점의 우승자

"영점 잘못 잡았어."

- 김동수



자랑 병맛 같은 구터와 고춧가루의 향연 속에서 7만 원을 버틴 끝에 사회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특기 111(소총수) 육군 병장 만기재에 의 담담 에디터는 유독 군인 독자들에게 관대할 수밖에 없다. 말풍선을 보는 순간 반사적으로 "총기 번호 K2 7848322 노리쇠 2, 3회 후퇴 전진"을 외쳤다. 김동수 독자 영점 제대로 잡아 특박 한 번 받아보게 내 입어드려 봐.

참모하기

- 1 솔직한 캡션을 써라 솔직한 마음에서 우러나네!
- 2 응모는 우편으로 (02-841)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지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이쁜, 연락처를 빼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3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에게 GOODNATION 등신용 클럽을 선물로 주겠다.

AND LOSER

이 패배자들!

아니! 내가 이해서 우승
하기 싫은거야!

ID 이태호

우승하기 싫대서
안 뽑았어.

MAXIM

난 코로 넣을 테니
넌 입으로 넣어줘.

ID 노오란

워, 할?

MAXIM

어무...사, 심메인은 코로
넣어야 재밌이지.

ID 월드컵대명징조고

진짜 비 담당 조교라는
증거를 대봐.

MAXIM



K.O의 끝판왕을 만나다!!!



FX채널 맛보고
과월호 받기



Monster Knockout

몬스터 넥아웃

12월 19일(월) 밤 11시 첫방송!

MAXIM

KOREA

MOVIE

완벽한 파트너 **윤채이**

브래트 피트의 <머니볼>
실화 주인공과의 만남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MILITARY

세상에서 가장 아찔한
MARINE GIRL

기관단총 K1A의 진실

MOTOR

두카티 1199 파니갈레
할리데이비슨 48

연예인 뺨치는
쇼핑몰 모델 최강미인전

ICON: 문태종

GEAR

성탄 선물로 '적당한'

7 WATCHES

갤럭시 노트

PARTY

뜨거웠던 할로윈
코스프레

STYLE

보드북 안 풀리게 입기
명동 패션왕 찾기
2NE1빠의 스니커즈

DECEMBER 2011



www.maximkorea.net

카메론 디아즈
홍경민
이신애
양배추 vs. 상추